대부금융 10주년 기념 창간호

대부금융 백서

2012년도판

CLFA
Consumer Loan Finance Association

한국대부금융협회

발행의 글



우리 협회가 법정협회로 설립되어 어언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날들이었습니다. 대부업법 제정 이래 대부금융업계는 성장을 거듭해 왔고 대부업 이용자는 이제 250만명에 이릅니다. 대출 잔액 또한 8조원이 넘어 명실 상부한 서민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잡은 듯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비단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나타나 대부금융사의 시스템은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에 버금 가는 수준을 이루었습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각 사가 일치단결하여 준법영업에 힘을 쏟았으며, 불법사채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활동에도 앞장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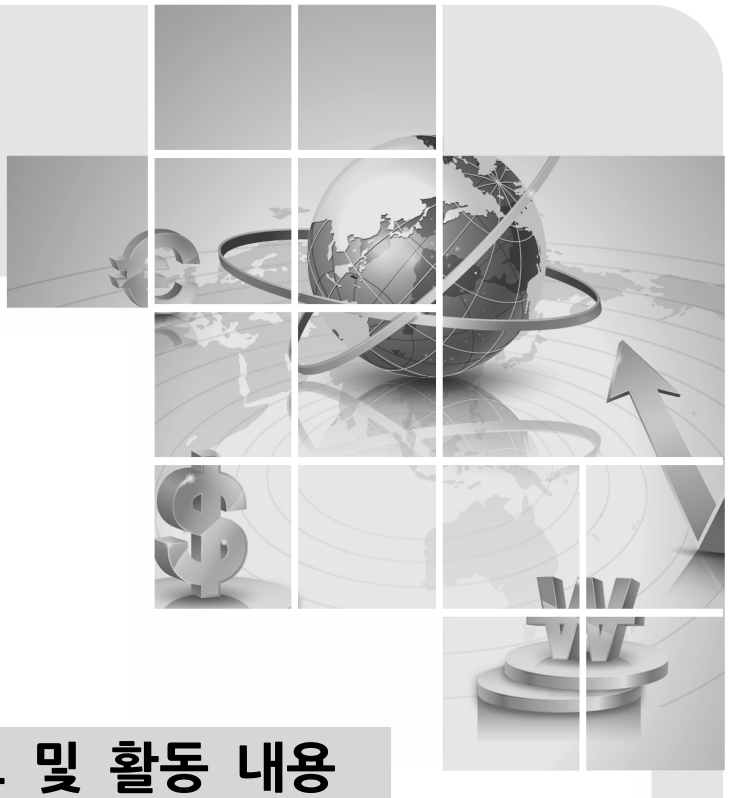
협회가 지금까지 밟아온 발자취를 백서로 엮고 보니 감회가 새롭기만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본 백서를 참조하시어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본 백서는 매년 발행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업권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제도개편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우리 업권의 현실을 알리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 되오니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 드립니다.

2013년 9월 30일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양 승

Contents



제1편 | 협회 개요 및 활동 내용

제1장 협회의 개요

1. 협회 설립 배경 ····· 3
2. 설립 목적 ····· 4
3. 조직 ····· 4
   1) 총회 ····· 4
   2) 이사회 ····· 5
   3) 사무국 조직 ····· 7
4. 협회 연혁 ····· 7

제2장 협회의 업무

1. 자율규제 업무 ····· 9
   1) 업무 개요 ····· 9
   2) 자율규제업무 추진실적 ····· 9
      (1)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의 제정 및 운영 ····· 9
      (2) 대부금융 광고심의규정 ····· 12
      (3) 소비자금융 준법관리규정 ····· 13
2. 소비자보호 업무 ····· 17
   1) 소비자보호센터 ····· 17

2) 민원 현황 ····· 18
(1) 개요 ····· 18
(2) 민원유형별 현황 ····· 19
(3) 주요 민원현황 ····· 20
(4) 초과이자 반환 실적 및 조정 현황 ····· 24
3) 사고·사망자 채무 유예·감면제도 운영 현황 ····· 26
(1) 제도 운영 개요 ····· 26
(2) 운영 현황 ····· 26
3. 홍보·계몽 활동 ····· 28
1) 업무 개요 ····· 28
2) 불법사채 추방 캠페인 실시 ····· 28
(1) 불법사채 신고포상제 ····· 29
(2) 불법사채 피해예방 문자릴레이 ····· 29
(3) 불법사채 대부광고 고발 ····· 29
3) 불법사채 척결, 소비자보호 다짐대회 개최 ····· 30
4) "2012 불법사채 피해예방 콘텐츠 공모전" 개최 ····· 33
5) 일수바로쓰기 캠페인 개최 ····· 34
6) 소비자금융신문 발행 ····· 35
7) 서민금융 관련 학술 대회 개최 ····· 36
8) 기타 홍보·계몽 활동 ····· 39
4. 사회공헌 활동 ····· 39
1) 업무 개요 ····· 39
(1) 목적 ····· 39
(2) 회원사 사회공헌활동 내용 ····· 39
2)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개최 ····· 40
(1) 목적 ····· 40
(2) 행사 현황 ····· 40
3) 금융교육 실시 ····· 42
5. 행정협력사무 ····· 43
1) 휴대폰 실명확인 서비스 현황 ····· 43
(1) 개요 ····· 43
(2) 이용현황 ····· 43

2) 대부업 등록 교육 실시 현황 ····· 43
(1) 개요 ····· 43
(2) 등록교육 시간 및 과목 ····· 44
(3) 등록교육 현황 ····· 45
6. 회원사 지원 및 교육 사업 ····· 49
1) 회원사 지원 사업 ····· 49
(1)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서비스 ····· 49
(2) 소비자금융 직거래 대출센터 ····· 50
(3) 중소 대부업체 e경영 지원 서비스 ····· 54
(4) 우수 회원사 인증·포상 및 임직원 포상 ····· 57
(5) 회원사 상조 서비스 시행 ····· 62
(6) 회원사 임·직원의 자기계발 교육 지원 ····· 63
(7) 각종 도서 출판 ····· 63
2) 교육 사업 ····· 64
(1) 중개 교육 ····· 64
(2) 직무 교육 ····· 66
(3) 세무·회계교육 ····· 71
7. 법·제도 개선 업무 ····· 72
1) 업무개요 ····· 72
2) 법률 개정에 대한 대응 ····· 72
3) 제도 개선 건의 ····· 75
4) 차별규제 개선 건의 ····· 76
(1) 개요 ····· 76
(2) 내용 ····· 76



제2편 | 대부업계 현황



제1장 대부업 시장 현황

1. 등록업체 수 추이 ····· 81
1) 개요 ····· 81

2) 업종별 등록업체 현황 ····· 81
3) 규모별 등록업체 현황 ····· 83
2. 규모별 거래자 현황 ····· 84
3. 대출 잔액 현황 ····· 86
4. 대부중개업 현황 ····· 89
1) 개요 ····· 89
2) 대부중개건수 ····· 90
3) 대부중개금액 ····· 90
4) 대부중개업 수입수수료 ····· 91



제2장 회원사 현황

1. 회원사 수 추이 ····· 92
1) 영업형태별 회원사수 추이 ····· 92
2) 의무가입 및 자율가입업체 추이 ····· 93
3) 대출 잔액 규모별 회원사수 추이 ····· 99
4) 유형별 추이(개인/법인) ····· 99
2. 회원사 점포 현황 ····· 100
3. 회원사 종업원 현황 ····· 100
4. 회원사 현황 ····· 101
5.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 영업 현황 ····· 110
1)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 현황 ····· 110
2) 대출 잔액 현황 ····· 112
3) 신규 대출 현황 ····· 113
4) 연체율 현황 ····· 114
5) 신용등급별 이용자 현황 ····· 115



제3편 | 대부업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 119

2. 대부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 119
1) 대부업 이용자의 특성 ····· 119
(1) 성별 현황 ····· 119
(2) 연령대별 현황 ····· 120
(3) 직업별 현황 ····· 121
2) 대부업 이용 실태 ····· 122
(1) 자금용도 ····· 122
(2) 1인당 대출 금액 ····· 123
(3) 평균 연체 기간 ····· 124
(4) 부채상환 능력 ····· 125



부록 | 대부업의 역사 및 대부업법 연혁



제1장 소비대차의 역사

1. 고대의 소비대차 ····· 129
1) 삼국시대 ····· 129
2) 고려시대 ····· 129
3) 조선시대 ····· 130
4) 구한말 ····· 130
5) 각 시대별 금리 관련 구휼(피해구제) 제도 ····· 131
2. 해방 전후 ····· 131
1) 사설무진 (私設無盡) ····· 131
2) 사설계 (私設契) ····· 132
3) 전당포 (典當鋪) ····· 132
4) 암달러상 ····· 133
3. 1970년대 이후 ····· 133
1) 사채동결조치 ····· 133
2) 금융실명제 ····· 134
3) 이자제한법 폐지 ····· 136
4) 이자제한법 부활 ····· 136

제2장 대부업법의 제정 및 개정

1. 대부업법의 제정 ····· 137
2. 2005년 개정 ····· 139
3. 2007년 개정 ····· 140
4. 2009년 개정 ····· 141
5. 2010년 개정 ····· 142
6. 2011년 개정 ····· 143
7. 2012년 개정 ·····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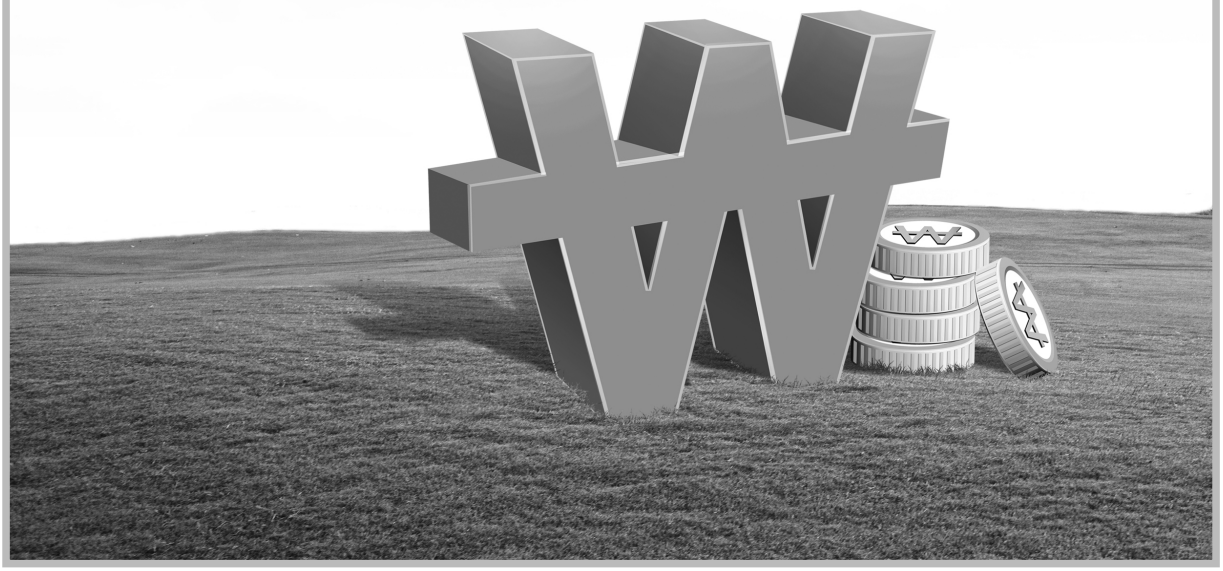
제3장 대부업의 관리·감독체계

1.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 현황 ····· 145

제1편
협회 개요 및 활동 내용

제1장 협회의 개요

제2장 협회의 업무



제1장 협회의 개요

1. 협회 설립 배경

2002년 8월 26일 사금융 양성화를 위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6706호,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이후, 2003년 올바른 대부업을 정립하고 회원사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상호 정보교류,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구성되었다. 협회가 구성된 이후 회원사의 준법영업을 독려하고, 불법사채업자의 피해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가 하면, 대부업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는 등 단순히 회원간의 친목단체에 그치지 않고 업계의 의견수렴 창구 및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여타 금융협회는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 운영되는 법정협회로서 관할업권에 대한 영향력이 광범위하고 강력하였으나 동 협회는 사업자단체 형태로 설립 운영되는 한계로 인해 회원 수와 기능 그리고 자율규제의 효과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어 협회의 법정기구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또한 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의 서병수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에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2012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정부 역시 등록 대부업자의 수가 약 1만 8천개에 이르자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고 대부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위한 법정협회 설립의 필요에 따라 협회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동 정부안은



▲ 2009년 5월 19일 은행회관에서 협회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제279회 임시국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수정 가결, 2009년 1월 21일에 공포되었다. 이로써 협회는 개정된 대부업법 제18조의 2에 의거하여 2009년 5월 7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법정협회로 설립되었다.

2. 설립 목적

대부업법 제18조의2 제 1항에서 협회의 설립취지를 대부업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협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18조의3에서는 구체적인 업무로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권고〉, 〈대부업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대부업등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법령위반사항 자율감시〉로 정하였다.

아울러, 동법 제18조의 7(업무의 위탁)에 의거하여 감독권자인 시·도지사로부터 대부업등의 등록교육 업무를 협회가 위탁받아서 2009년 5월부터 교육과정의 기획, 진행, 교육이수증 교부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 협회가 대부사업자 권익보호단체의 성격이 짙었던 반면, 법정기관으로 신설된 협회는 대부업등의 자율규제단체 성격이 짙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3. 조직

1) 총회

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와 필요 시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총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적 정회원[1]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진다.

총회에서는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보고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과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협회의 해산 및 해산 시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출, 해임 및 보궐선임에 관한 사항 등이 결의된다.

1) 대부업법에 의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협회에 입회한 자

2) 이사회



▲ 협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 모습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협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다.

2009년 4월 30일 창립총회에서 회장 1인과 사내이사 1인, 감사 1인을 포함하여 총 15인으로 제1대 이사회가 구성되었으며 3년 임기 만료 등으로 2012년 3월 7일 제3기 정기총회에서 제2대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제2대 이사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10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015년 3월 8일까지이다.

〈표 1〉 제1대 이사회 임원 현황

구분	성명	소속 및 직함
회장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
부회장	손종주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대표
	최 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대표
전무이사	임영환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사 (10인)	김경조	㈜머니라이프대부 대표
	김용필	목동에셋㈜대부 대표
	김정환	㈜위드캐피탈대부 대표
	김충호	㈜바로크레디트대부 대표
	박동석	산와대부㈜ 대표
	이문경	㈜하트캐싱대부 대표

	장병인	와이앤금융파트너스대부㈜ 대표
	주환곤	㈜에이원대부캐피탈 대표
	지흥진	㈜강남캐피탈대부 대표
	한경일	오닉스대부중개㈜ 대표
감사	심상돈	원캐싱대부㈜ 대표

〈표 2〉 제2대 이사회 임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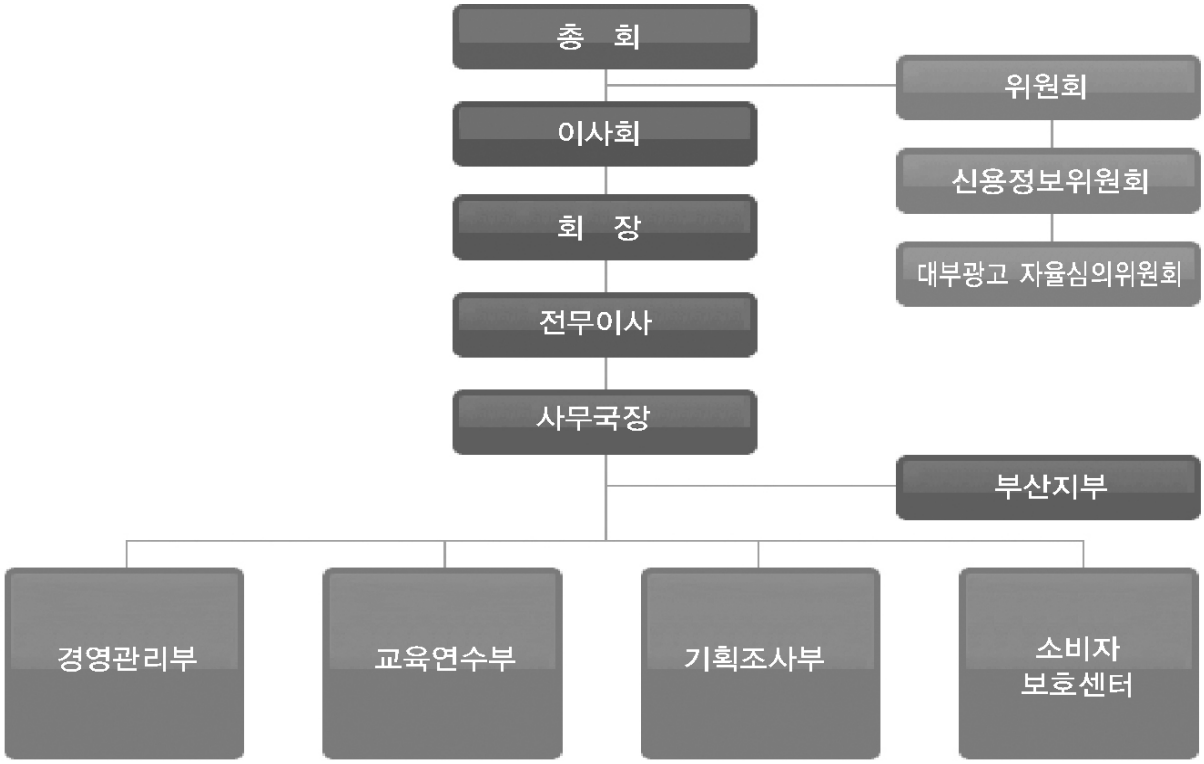
〈2012.12.31.현재〉

구분	성명	소속 및 직함
회 장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
부 회 장	손종주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대표
전무이사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사 (10인)	정성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감사
	김충호	㈜바로크레디트대부 대표
	주환곤	㈜에이원대부캐피탈 대표
	김정환	㈜위드캐피탈대부 대표
	김경조	㈜머니라이프대부 대표
	지흥진	㈜강남캐피탈대부 대표
	김용필	목동에셋㈜대부 대표
	한경일	오닉스대부중개㈜ 대표
	강상훈	㈜스타크레디트대부 대표
	양상흥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유) 대표
감 사	심상돈	원캐싱대부㈜ 대표

3) 사무국 조직

현재 사무국은 경영관리부와 교육연수부, 기획조사부, 소비자보호센터 그리고 부산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조직도



4. 협회 연혁

2009년

05.07.	한국대부금융협회 정관 금융위원회 인가 (고유명칭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
05.11.	대부업 등의 등록을 위한 교육업무 실시
07.01.	대포폰 사용방지 시스템 도입 및 운용
07.16.	제1회 대부업의 미래와 민원근절을 위한 간담회
07.20.	중소 대부금융업자 업무자동화 서비스 오픈
09.01.	대부금융신문 창간호 발행
10.08.	신용정보위원회 신설
10.23.	제2회 대부업의 미래와 민원근절을 위한 간담회
11.17..	2009년 소비자금융 학술세미나

2010년

02.23. 대부금융업 6대 개선안 제출
03.03. 제1기 정기총회
04.23. 제1차 서민금융포럼
06.17.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 개설
07.01.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시행
07.20. 제2차 서민금융포럼
10.14. 대부업 통합CB 구축 설명회
11.03. 제1회 소비자금융컨퍼런스

2011년

03.03. 제2기 정기총회
03.29. 2011년 서민금융포럼
05.23. 2011년 대부업 감독기관 워크숍
08.17. 소비자금융 대출직거래센터 개설
09.01. 불법사채추방 캠페인
10.05. 제2회 소비자금융컨퍼런스
11.14. 청소년 금융교육 뮤지컬 개최

2012년

02.23. 대부업 광고 자율심의 시행
03.07. 제3기 정기총회
03.08.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 TFT 발족
04.25. 2012년 서민금융포럼
04.26. 불법사채 척결 다짐대회
10.18. 제3회 소비자금융컨퍼런스
11.29.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12.06. 준법관리인 제도 도입

제2장 협회의 업무

1. 자율규제 업무

1) 업무 개요

대부업법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을 고려하여 협회 독자적으로 자율규제규정을 제정하고 회원사가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2) 자율규제업무 추진실적

(1)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의 제정 및 운영

① 개요

2010년을 기점으로 대출중개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가 급증세를 보이며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3~4단계의 다단계 구조로 이루어진 대부중개업계의 위법적인 고객모집방법(휴대폰 스팸전화 및 스팸문자, 정체불명의 인터넷 대출중개광고 등)과 고객으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 편취(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행위로 인하여 대부이용자의 피해가 속출하였다. 한편, 대부중개업체가 대출승인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출신청자의 신용정보 내역을(직업, 소득 등) 조5작하거나 위조하여 대부업체에게 제공하는 부당거래 행위도 증가하여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급증하는 등의 리스크 관리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에 대부금융업계에서도 협회를 중심으로 대부중개시장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업무방식을 체계화함으로써 중개시장을 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그 결과 2010년 5월 24일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제2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② 적용대상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은 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금융회사가 대출모집업무[2]를 대부중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와 대부금융회사의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대부중개인이 다른 대부중개인에게 그 대출모집업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이러한 대출모집업무의 위·수탁과 관련된 협회소속 대부금융회사와 대부중개인에게 적용된다.

③ 내용

협회소속 대부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대부중개인은 대부업법에 의거 시도지사 등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후, 협회 등록 대부중개사 신청을 하고, 협회에서 실시하는 관계법령 및 사고예방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한다. 교육은 대표자가 받으며 다만, 대부중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영업을 총괄하는 임·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대부금융회사는 동 규정에 의하여 대부중개인의 교육·감독의무, 상위대부중개인과 위탁관계에 있는 하위대부중개인의 전체 명단 수령 및 협회 제출 의무, 대출중개경로표시서[3] 확인·수령의무, 불법중개수수료 편취 주의 메시지 발송의무가 있다.

상위대부중개인[4]은 하위대부중개인에 대한 교육·감독의무, 위탁관계에 있는 하위대부중개인 명단 수령 및 대부금융회사 통보의무 및 협회 등록 확인의무, 대출중개경로표시서 확인·수령의무 및 작성의무, 협회 및 대부금융회사가 실시하는 교육 참여 의무가 있으며, 하위대부중개인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 상위대부중개인은 고객에게 먼저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상위대부중개인 우선 손해배상제)

하위대부중개인[5] 및 단독대부중개인[6]은 대출상품 내용 설명의무, 대출모집인임을 알릴 의무, 대출경로표시서 작성의무 및 상위 대부중개인, 대부금융회사에게

2)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대부금융회사 및 상위 대부중개인이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대부금융회사로서의 본질적 업무와 대출 실행 이후의 사후관리 업무는 제외한다.
3) 대부업자 등이 고객정보의 유통경로를 실명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대부중개업자가 다른 대부중개업자나 대부금융회사에 고객 정보를 제공할 경우 대부중개업자의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제공일 등을 명기하는 양식
4) 대부중개인간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한 대부중개인”을 말한다.
5) 대부중개인간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 받은 대부중개인”을 말한다.
6) 대부중개인간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지 않고 대부금융회사의 대출모집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대부중개인을 말한다.

제출의무, 협회 및 대부금융회사가 실시하는 교육 참여 의무가 있다.
이러한 규준안의 일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금이 부과된다.

④ 운영실적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의 운영으로 인하여 2012년도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가 전년도에 비하여 1/5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대부중개회사의 영업질서가 체계를 갖추었으며 동시에 불법적인 대부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되어 대부중개인을 통하여 긴급생활자금을 대출 받아온 대부업 등의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본 규정의 엄격한 적용에 따라 음성적인 불법 수임이 감소하여 대부중개인들이 경영난을 겪게 되자 일부 상위대부중개인이 악의적으로 폐업을 함으로써 민원처리 업무에 허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일부 대두되었는데 향후 이를 보완하여 대부중개시장의 자율정화를 가속화하고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 대부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신청 건수

(단위 : 건)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신청건수	390	1,776	1,190	281

<표 4>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의 운영 실적

(단위 : 개, %)

항 목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율
협회등록 대부중개업자수		713	617	730	15.5
교육이수 대부중개업자수		567	617	699	11.7
제재 업체수	제재금 부과	-	14	11	△ 21.4
	해 지	226	237	10	△ 95.7
	소 계	326	251	21	△ 91.6

(2) 대부금융 광고심의규정

① 개요

대부시장의 확대에 따라 대부광고 역시 과거에 비해 그 양적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양적 확대에 따라 대부광고의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로 끊임없이 대두되어 대부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방영회수가 비교적 많고 대중들이 자주 접하는 케이블TV 대출광고가 서민들에게 고금리의 과잉 대출을 조장하여 다중채무자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이 심하였으며, 일부 국회의원(심재철 의원 등)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부업 광고의 전면 금지 및 대부광고 시간대의 제한 등의 구체적인 규제책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협회는 사회적 비판을 수용하여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추방하고 무분별한 광고 표현을 자제하고자 대부광고를 모니터링 하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특히 2011년 1월부터 논의된 대부광고 규정 도입은 업계 스스로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전·사후 심의를 통하여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업계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대부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러한 취지를 토대로 2012년도 초에 금융당국과 광고전문가, 회원사의 의견을 총 망라하여 대부금융광고 자율심의 규정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협회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동년 3월부터 대부금융광고 자율심의 규정이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규정의 내용

동 규정은 크게 대부금융회사와 대부중개회사의 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대상과 절차를 담은 광고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원사가 광고 제작시에 준수해야 하는 광고 문안의 표현기준과 표기기준 등을 담은 대부금융광고 심의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고심의를 위해 협회 내에 언론인 또는 학계, 연구기관 등 광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부금융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대부금융 관련 광고가 대부업법과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에 대해 심의하고 있으며, 광고물에 대한 시정요구, 게시 및 배포 중지 요구, 위반업체에 대한 주의 경고 및 제재금 부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다. 심의 대상 외의 광고(비회원사의 광고)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지도를 하고 있다.

③ 운영실적

2012년 3월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총 57건의 광고에 대해 광고심의를 실시했는데 심의위원이 직접 협회를 방문하여 심의를 실시하는 현장심의를 4회, 서면 또는 이메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심의를 실시하는 온라인심의를 6회 실시했다. 심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대부금융광고심의 현황

(단위 : 건)

월별	신청 건수	심의 결과		
		적격	조건부 적격[7]	부적격/반려
3월	15	6	2	7
4월	7	2	1	4
5월	9	4	3	2
6월	4	-	-	4
7월	2	-	1	1
8월	1	-	-	1
9월	14	3	4	7
10월	1	-	-	1
11월	2	1	-	1
12월	2	2	-	-
총계	**57**	**18**	**11**	**28**

(3) 소비자금융 준법관리규정

① 개요

협회는 창립 이래 회원사의 준법 영업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한 활동을 해왔다. 회원사의 준법 영업은 대부업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전환하여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일부 대부업체가 관련법

7) 조건부 적격의 경우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시 지적한 사항을 수정한 후 광고를 실시할 수 있다.

령을 숙지하지 못해 법에 저촉되는 영업이나 추심에 연관되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에 협회에서는 대부금융회사와 그 종사자가 금융회사로서 법률 규정과 정책,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함과 동시에 일반정책과 내규를 준수하도록 회원사의 사전적, 상시적 통제,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2012년 4월 "불법사채 척결, 소비자보호 다짐대회" 개최 시 1사당 1인 이상의 준법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준법관리인제도를 실시하기로 다짐했으며, "소비자금융 준법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② 규정의 내용

동 규정에 따르면 회원사는 민원처리 및 직원 교육 등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관리인을 1인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준법관리인의 자격 조건은 〈금융기관 또는 대부금융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경영 및 법률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로 관련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다.

선임된 준법관리인은 회사 내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기할 경우와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거나 추진할 경우, 국가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에 제출하는 자료나 문서에 대해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이사회, 경영진,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역할과 소비자보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적정하게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감독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운영실적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동 규정에 따라 2012년말 기준 총 63개 회원사가 준법관리인을 지정하였는데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참여 회원사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63개 회원사의 준법관리인 명단은 〈표 6〉과 같다. 협회에서는 준법관리인이 선임된 이후 각 사의 준법관리인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워

크숍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앞으로도 법령 개정이나 업계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준법관리인 육성교육”을 통하여 컴플라이언스 능력 배양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개최 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6〉 회원사의 준법관리인 현황

〈2012.12.31.현재〉

회원사명	담당자	직함	회원사명	담당자	직함
㈜굿모닝캐피탈대부	김선엽	팀장	㈜에치제이인베스트먼트대부	김용민	실장
㈜굿이에프대부	윤고욱	이사	㈜엘씨대부	유용기	팀장
㈜굿타이밍대부	김윤석	상무이사	㈜엘하비스트대부	우제균	부장
㈜굿프렌드대부	박수호	팀장	에스캐피탈대부㈜	강태균	팀장
나라대부금융㈜	김진환	이사	원캐싱대부㈜	김광호	지부장
㈜나이스대부	위범량	이사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현경진	팀장
노블캐쉬대부	이성형	대표	㈜위드캐피탈대부	김상도	전무이사
대산대부㈜	엄재철	팀장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박희만	본부장
㈜동그라미대부	서동석	팀장	유승산업대부㈜	이광욱	부장
동원산업㈜	윤수원	과장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이열	이사
㈜론스타캐피탈대부	정태원	팀장	㈜인터머니대부	이찬배	팀장
맥가이버대부중개	강병수	대표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	장민우	본부장
㈜머니라이프대부	구본영	이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박주철	팀장
머스트원캐피탈대부㈜	유재홍	실장	㈜칸도인베스트대부	김병주	팀장
㈜미래크레디트대부	박원근	이사	케이비캐피탈대부㈜	김진경	이사
㈜미르코리아대부	신현원	대표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유)	임성준	이사
미즈사랑대부㈜	윤재은	센터장	㈜콜렉트대부	임상훈	본부장
㈜밀리언캐쉬대부	이열	이사	㈜태강대부	우윤호	팀장
㈜바로크레디트대부	최수용	이사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박혜성	팀장
㈜베르넷크레디트대부	신창수	부장	㈜티에스신용투자대부	김상근	부장

㈜비컴콜렉션대부	이성곤	과장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	원종광	팀장
산와대부㈜	최민옥	실장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김관운	이사
㈜서울기업금융대부	조연행	이사	㈜파워캐피탈대부	이승일	본부장
㈜스타크레디트대부	이상표	이사	㈜피앤에이치글로벌대부	문종일	팀장
㈜씨씨콜렉션대부	김윤석	상무이사	하이캐피탈대부㈜	고범관	과장
㈜아세아캐피탈대부금융	김재승	실장	㈜하트캐싱대부	김윤석	상무이사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	장석명	이사	㈜한국리치캐피탈대부	김소연	직원
㈜액트캐쉬대부	이건웅	부장	한국이지론㈜	서정민	차장
㈜어프로치대부	이상표	이사	대부헬로우크레디트㈜	노경일	과장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	권창기	이사	㈜휴앤케이파트너스대부	문희준	부장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김용희	팀장	㈜희망만드는사람들대부	안백엽	이사
㈜에이원대부캐피탈	신태환	본부장			

〈표 7〉 준법관리인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현황

일자	참석현황	주요내용
2012.08.30	38개사	대부업 관계법령 강의 준법관리인 소양교육 실실
2012.10.10	13개사	대부업법 상 해석이 모호한 사안 발굴/논의
2012.12.06	16개사	대부업법 개정사항 안내 민원 사례 관련 유의사항 전달

2. 소비자보호 업무

1) 소비자보호센터

협회는 창립 이래 줄곧 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후구제를 실시하고자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발생하고 있는 채무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형사 처벌이나 민사재판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가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비자보호센터가 이해 당사자간의 분쟁에 직접 개입하여 효율적인 중재를 통하여 보다 확실하게 민원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와 불만 등과 관련한 민원내용이 각 대부금융사의 경영개선 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민원 100PPM제도[8]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불만사항의 근원적 해소를 목적으로 대부업권의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8) 소비자민원 100PPM(Part Per Million) 제도는 소비자민원 발생건수를 고객 1만명당 1건 이내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민원 현황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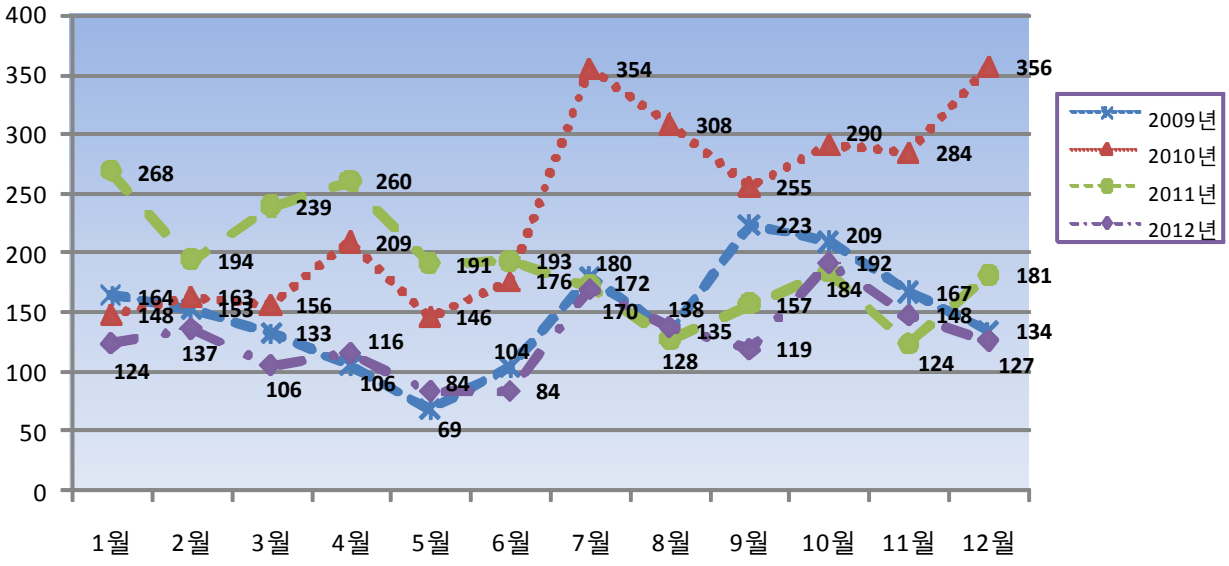
소비자보호센터는 대부업 등의 이용자의 피해 또는 불만에 대해 전화 및 내방 상담을 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한 전체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 1,777건에서 2010년 2,84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2,2291건, 2012년에는 1,545건으로 2010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협회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노력과 대부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민원감축 노력 및 언론 홍보와 금융교육 등으로 대부업 등의 이용자의 인식 전환 및 선택능력이 향상된 점과 대부업권의 자율정화 기능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연도별 총 민원 신청 현황

(단위 : 건, %)

민원건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9년	164	153	133	106	69	104	180	135	223	209	167	134	1,777
2010년	148	163	156	209	146	176	354	308	255	290	284	356	2,845
2011년	268	194	239	260	191	193	172	128	157	184	124	181	2,291
2012년	**124**	**137**	**106**	**116**	**84**	**84**	**170**	**138**	**119**	**192**	**148**	**127**	**1,545**
전년대비	△54	△29	△56	△55	△56	△56	△1	8	△24	4	19	△30	△33

<그림 2> 연도별 총 민원 신청 건수 추이



(2) 민원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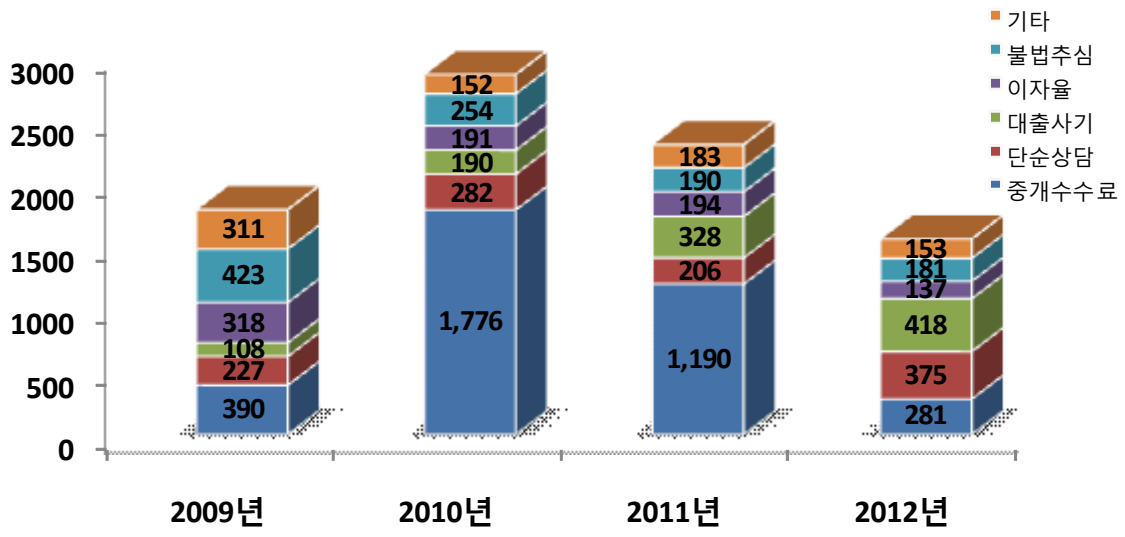
협회에 접수된 민원 유형은 크게 중개수수료와 단순상담, 대출사기, 이자, 불법추심, 기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초기인 2009년부터 2011년에는 중개수수료편취와 관련된 민원이 많았으나,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의 정착으로 중개수수료편취와 관련된 민원이 감소하고, 이후 대출사기 및 단순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9〉 유형별 민원 신청 현황

(단위 : 건, %)

구분	중개수수료	단순상담	대출사기	이자	불법추심	기타	합계
2009년	390	227	108	318	423	311[9]	1,777
2010년	1,776	282	190	191	254	152	2,845
2011년	1,190	206	328	194	190	183	2,291
2012년	281	375	418	137	181	153	1,545
전년대비	△ 76.4	82.0	27.4	△ 29.4	△ 4.7	△ 16.4	△ 32.6

〈그림 3〉 유형별 민원 신청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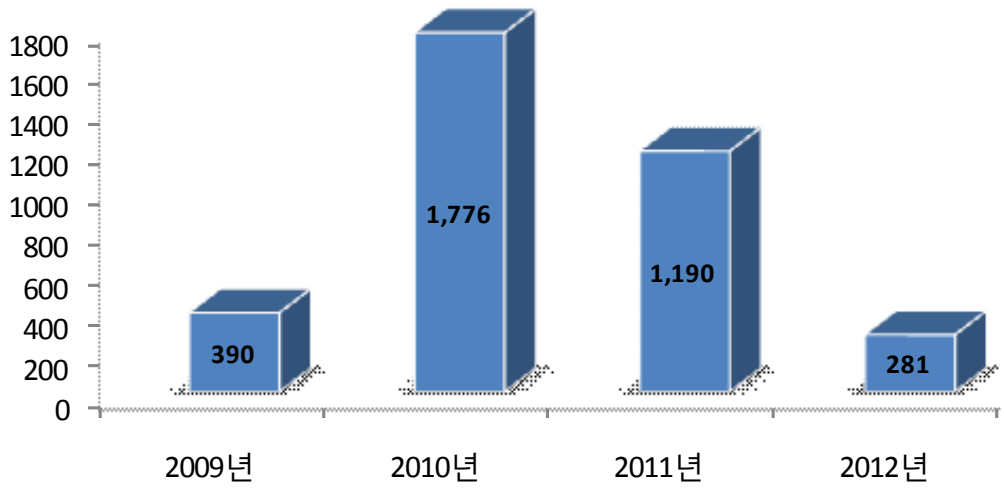
9) 2009년 기타에는 서울시청에서 협회로 이첩한 141건이 포함되어 있다.

(3) 주요 민원현황

① 중개수수료 민원

중개수수료 민원은 2009년 390건, 2010년 1,776건, 2011년 1,190건, 2012년 281건을 기록하였다. 특히 2010년은 중개수수료 편취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대부중개(대출모집)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가 기존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시행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시행 초기 급격한 민원 신청 증가가 있었으나 2012년 이후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이 정착되면서 중개수수료 민원이 2011년 대비 909건(76.3%)이나 감소하여 대부중개시장에서의 준법 영업이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중개수수료 민원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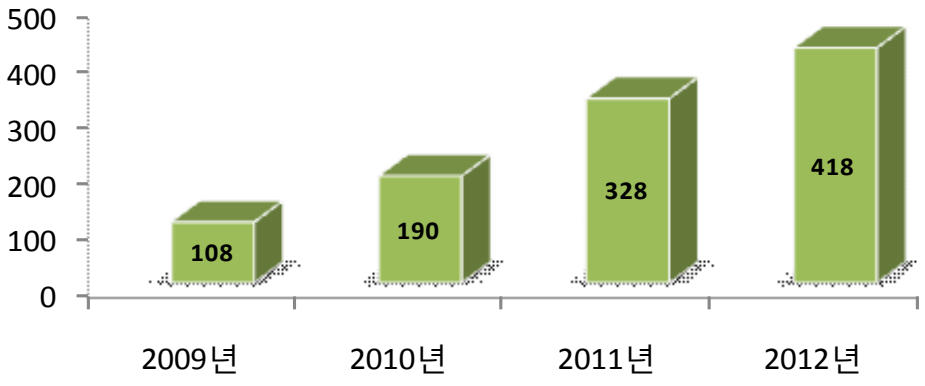
② 대출사기 민원

대출사기(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광고 등을 하여 급전을 구하는 소비자를 유인한 후에 각종 명목으로 대출금의 20% 가량의 선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갈취한 후에 대출은 해주지 않고 잠적하는 사기 행위로, 가해자가 거의 대부분 차명통장과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검거하거나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 받기가 매우 어려움) 관련 민원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108건에 불과하던 대출사기는 2010년 190건, 2011년 328건, 2012년 418건으로 증가하는 등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70% 대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층과 저신용 서민층의 자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소득층과 자산가에 대한 자금 공급은 확대하는 반면 저소득층이나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은 오히려 축소하는 금융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특히 대부업법상 상한금리의 지속적 인하로 인하여 저소득층과 저신용 서민층의 자금공급을 담당하던 대부금융회사가 대출심사를 엄격히 함에 따라 시장에서의 만성적인 자금 공급 부족의 여파가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긴급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한 대출사기가 급증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사기 수단이 진화하면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차명통장이나 차명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5> 대출사기 민원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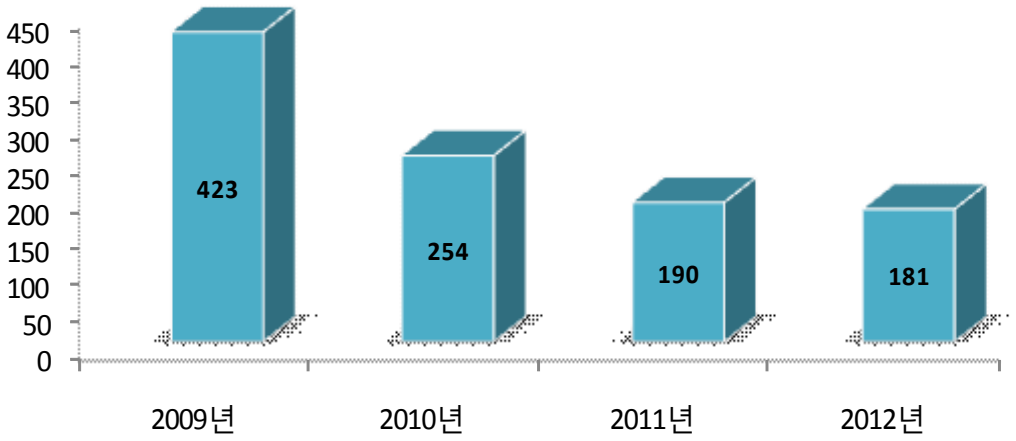


③ 불법추심 민원

불법추심 관련 민원현황을 보면 2009년 7월 24일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9년 423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2010년에는 254건으로 전년 대비 169건(39.9%)이 감소하였고, 2011년 190건, 2012년 181건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회가 법령 제정 시부터 회원사에 대한 자율지도강화 등을 통하여 회원사의 추심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교육 등을 실시하여 왔고 특히 준법관리인 제도와 100PPM 운동 도입 등을 통하여 회원사의 불법추심행위 근절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온 결과 건전한 추심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불법추심 민원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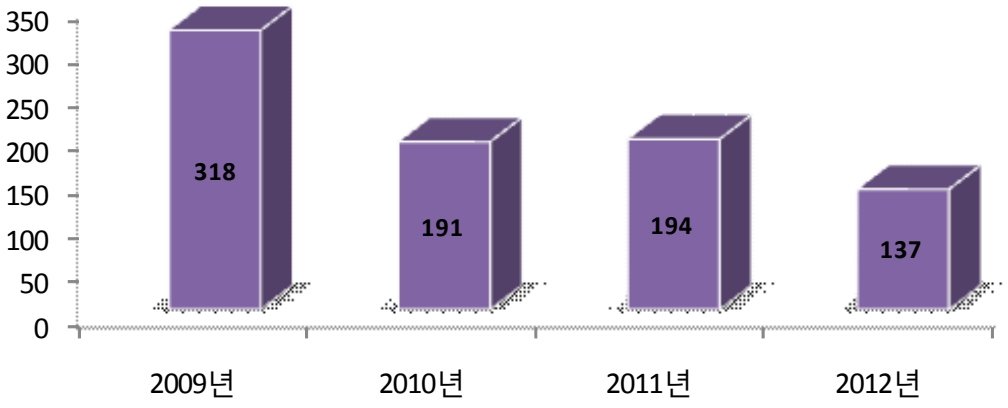
④ 이자율 민원

이자율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318건, 2010년에는 191건으로 전년에 비하여127건(39.9%)이 줄어드는 등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11년에는 194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137건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이자율 관련 민원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이자율과 관련된 민원의 경우에는 회원사 보다는 비회원사와 관련된 민원이 많은 편인데 이는 자율규제가 비회원사의 경우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많은 대부업체가 협회 회원사로 가입함으로써 자율규제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회는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통하여 이자율 민원 특히 이자율 상한 규정을 위반한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림 7> 이자율 민원 건수 추이



(4) 초과이자 반환 실적 및 조정 현황

① 채무조정

대부업법의 법령 개정으로 계약시점 및 법령 시행일에 따라 적용이율이 달라짐으로써 이에 따른 이자율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총 채무액과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과 법정 이율 내 금액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무금액을 재조정하고, 채권자가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반환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에 실시한 채무조정건수는 총 171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103건, 2011년에는 66건, 2012년에는 30건으로 계속하여 감소하였다.

2012년도에 실시한 채무조정 총 건수는 30건으로 이 중 20건, 총 9,220만원의 채무를 법정 이율 내 금액으로 재조정하고, 나머지 10건의 민원은 채권자가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 2,615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하였다.

〈표 10〉 불법이자 관련 민원처리 결과

(단위 : 건, 만원)

구분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재조정				초과이자 채무자앞 반환		합계	
	건수	조정前 금액	조정後 금액	조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년	111	86,936	28,436	58,500	60	14,111	171	72,611
2010년	81	32,517	15,629	16,888	22	3,357	103	20,245
2011년	46	48,360	34,114	14,246	20	3,603	66	17,849
2012년	20	9,220	1,594	7,626	10	2,615	30	10,241
전년대비	△ 35	△ 81	△ 95	△ 46	△ 50	△ 27	△ 39	△ 43

②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반환

대부중개회사는 대부업법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해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불법적으로 편취하는 대부중개회사들이 있어 협회에서는 이러한 중개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민원을 접수 받아 대부중개업무 관리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2009년에는 296건의 불법 대부중개수수료가 반환조치 되었고, 2010년에는 전년대비 791건(267.2%)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814건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전년대비 84.3%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협회가 운영 중인 자율규제인 대부중개업무 관리 규정이 정착되면서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 업무 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진데 기인했다고 볼 수 있어, 건전한 대부중개업 환경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중개수수료 반환 현황

(단위 : 건, 만원)

구분	반환건수	반환금액
2009년	296	21,952
2010년	1,087	91,147
2011년	814	86,289
2012년	127	21,223
전년대비	△ 85.0	△ 76.5

3) 사고·사망자 채무 유예·감면제도 운영 현황

(1) 제도 운영 개요

협회는 대부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 또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채무 변제가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연체가 계속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대출 상환금의 납부를 유예해주는 사고자 채무유예제도와 대부금융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사망한 경우 대출 상환금을 일부 또는 전액 면제하여 주는 사망자 채무감면제도를 2012년 9월 18일부터 운영해 왔다.

(2) 운영 현황

도입 초기 26개 회원사가 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해오다가 현재는 30개사로 늘어났으며, 시행 후 불과 2개월 남짓한 기간인 2012년 12월말 기준 총 11개사가 28명에게 4,800만원의 채무를 감면해주었다. 향후 중소 대부금융사의 협약 가입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한계채무자 보호를 위해 업계 공동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본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감면금액만큼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등 회계상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 더 많은 회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협약 규정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고 자사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협약에 따르지 않는 회원사에 대한 지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12〉 사고·사망자 채무 유예·감면제도 참여 회원사 현황

〈2012.12.31.현재〉

번호	회원사명	번호	회원사명
1	㈜굿모닝캐피탈대부	16	예스캐피탈대부㈜
2	㈜동그라미대부	17	원캐싱대부㈜
3	㈜머니라이프대부	18	웰컴크레디라인대부㈜
4	㈜미래크레디트대부	19	㈜위드캐피탈대부
5	㈜미즈사랑대부	20	㈜유아이크레디트대부
6	㈜밀리언캐쉬대부	21	㈜인터머니대부

7	㈜바로크레디트대부	22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8	㈜스타크레디트대부	23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유)
9	㈜아스리트대부	24	㈜콜렉트대부
10	애니원캐피탈대부㈜	25	㈜태강대부
11	㈜액트캐쉬대부	26	투머니크레디트대부
12	㈜어프로치대부	27	하이캐피탈대부㈜
13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28	㈜하트캐싱대부
14	㈜에이원대부캐피탈	29	대부헬로우크레디트㈜
15	㈜엘하비스트대부	30	㈜한국리치캐피탈대부

〈표 13〉 사고·사망자 채무 유예·감면제도 운영 현황

(단위 : 개, 건, 원, %)

구분	참여사	감면건수	감면금액	감면율
사고자 채무감면	6	14	17,679,690	30.34
사망자 채무감면	8	14	30,868,904	46.59
합계	11	28	48,548,594	38.98

※ 참여사 합계는 중복업체를 1개사로 계산하여 합산한 수치임

〈표 14〉 각 사별 사고자 채무 유예·감면제도 운영 현황

(단위 : 건, 원, %)

참여사	감면건수	감면금액	감면율
㈜머니라이프대부	1	211,561	6.59
㈜바로크레디트대부	1	328,969	6.17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1	180,890	8.73
웰컴크레디라인대부㈜	1	1,624,411	53.01
하이캐피탈대부㈜	2	3,056,178	52.19
㈜하트캐싱대부	8	12,277,681	31.69
합 계	14	17,679,690	30.34

〈표 15〉 각 사별 사망자 채무감면제도 운영 현황

(단위 : 건, 원, %)

참여사	감면건수	감면금액	감면율
㈜굿모닝캐피탈대부	1	613,740	100.00
㈜머니라이프대부	2	1,695,581	14.50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5	8,959,066	37.59
예스캐피탈대부㈜	1	11,015,796	95.66
웰컴크레디라인대부㈜	1	2,414,699	54.70
㈜위드캐피탈대부	1	1,312,640	29.09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2	3,855,254	50.24
㈜콜렉트대부	1	1,002,128	50.05
합 계	14	30,868,904	46.59

3. 홍보·계몽 활동

1) 업무 개요

협회는 정관 제4조 제9항에 따라 대부업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긴급생활자금 공급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부금융회사의 역할을 알리기 위한 대내외 홍보 활동과 정보 공개, 계몽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대부업 등의 이용자가 건전한 대부업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등록 대부업자와 불법사채업자와의 차이를 금융소비자에게 홍보할 뿐 아니라 불법사채업자 근절을 위한 각종 홍보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2) 불법사채 추방 캠페인 실시

금융소비자에게 불법 고금리를 수취하고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자행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채)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의 후원 하에 “불법사채 단속 전담반”을 협회 내에 설치하고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불법사채 신고포상제”와 “불법사채 피해예방 문자릴레이”, “불법사채 대부광고 고발” 활동을 전개하였다.

(1) 불법사채 신고포상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 영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10만원에서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자가 직접 신고를 하거나 신고양식을 다운 받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도록 했다. 접수를 받은 결과 2012년 12월말 기준 총 42명이 신고를 했으며, 이 중 5명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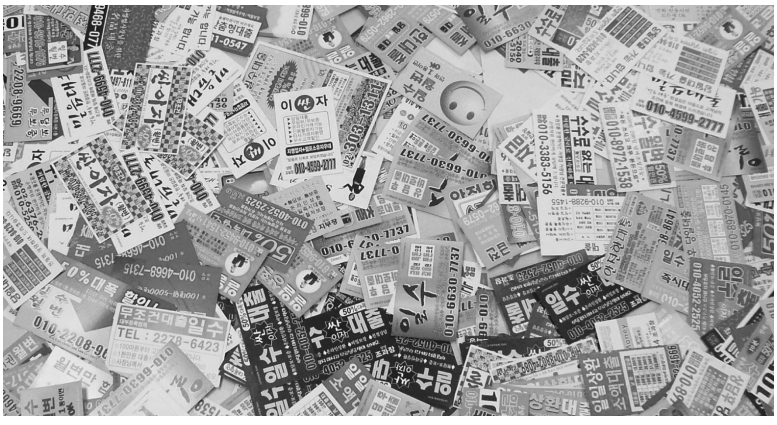
(2) 불법사채 피해예방 문자릴레이

협회 홈페이지 내에 설치된 휴대폰 문자 발송기를 이용하여 참가자가 가까운 지인에게 불법사채 피해 예방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사로 총 199명이 참가하여 참가자의 지인에게 1,893통의 문자를 발송했으며 이들 참가자 전원에게는 본인신용정보조회권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참여자 중 총 40명을 추첨하여 5만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였다.

(3) 불법사채 대부광고 고발

불법적인 허위·과장 대부광고의 근절을 통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및 서민의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협회에서는 인터넷에 게재된 대부업자의 대부광고와 무가지 신문 광고, 전단지 광고, 명함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전단지 광고물과 명함 광고물은 수거하여 수사당국 등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인터넷에 게재된 불법대부광고 행위는 2012년 12월말 기준, 총 1,097건의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불법을 조장하는 대부 등의 광고 126건에 대해서는 금융질서 교란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관계부처로 통보하였다.



▲ 협회에서 수거한 불법 명함광고

협회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그동안 영업상의 이유로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광고를 유치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광고를 집행가지 전 대부업자의 등록 여부와 광고의 대부업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광고를 게재하게 됨으로써 불법사채업자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틀이 다져졌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대부업자들의 불법적 허위·과장 대부광고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매체를 통한 불법적 허위·과장 대부광고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표 16〉 불법사채 대부광고 단속활동 추진결과

(단위 : 건)

광고 유형	모니터링 광고 수	불법사채 광고 수	경찰서 및 지자체 고발건수
인터넷광고	1,097	238	126
생활정보지	1,015	73	28
명함광고	458	328	진행중
합계	2,570	639	154

3) 불법사채 척결, 소비자보호 다짐대회 개최

2012년 4월 11일 총선 이후 정부는 불법사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불법사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금융당국과 검찰 등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펼쳤다. 이에 협회에서도 범정부 차원의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자 2012년 4월 26일 대부금융회사 소속 임직원 130명과 협회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사채 척결, 소비자 보호 다짐대회”를 개최하였다. 다짐대회에서는 불법사채 척결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6개 실천사항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는 250여개 회원사가 지역 내의 불법사채 대출광고를 일괄 수거·고발하고 대부업 등의 이용자에게 전화상담, 휴대폰 문자, e메일 등을 통해 “불법사채 사용주의” 안내에 나서기로 했으며, 불법사채 신고 포상금 제도 역시 확대 시행하고 회원

사의 소비자민원 발생률을 1만명당 1건으로 낮추기 위한 “소비자민원 100ppm 운동”을 실시하기로 다짐했다.

아울러 각 회원사마다 준법관리인 1인을 설치해 각종 민원 및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과 한계 채무자 상담센터도 개설해 질병이나 사고, 일시적으로 경제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경우 채무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다짐했다. 다짐대회 참석자 현황은 〈표 17〉과 같다.



▲ “불법사채척결, 소비자 보호 다짐대회”에서 협회 및 회원사 임직원이 다짐을 하는 모습

〈표 17〉 불법사채척결 및 소비자보호 다짐대회 참석자 현황

(단위 : 명)

회원사명	참석자 수	회원사명	참석자 수
㈜강남캐피탈대부	2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3
㈜굿모닝캐피탈대부	1	대부헬로우크레디트㈜	2
㈜굿프렌드대부	1	대산대부㈜	2
㈜더조은대부	1	㈜엠티인터내셔날아이앤시대부	1
㈜동그라미대부	2	와이앤금융파트너스대부㈜	1
㈜리드코프	2	웰컴크레디라인대부㈜	7
㈜머니라이프대부	3	㈜위드캐피탈대부	3
머스트원캐피탈대부㈜	2	㈜오닉스대부중개	1
㈜미래크레디트대부	3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	1
㈜미르코리아대부	1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7
㈜바로크레디트대부	10	㈜칸도인베스트대부	1
㈜베르넷크레디트대부	2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유)	3
산와대부㈜	9	㈜콜렉트대부	5
㈜서울코스모홀딩스	2	㈜크라운홀딩스대부	1

㈜스타크레디트대부	7	㈜태강대부	5
씨앤브이투자대부㈜	2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	1
㈜아이루리아대부	2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4
㈜액트캐쉬대부	2	㈜피앤에이치글로벌대부	1
앤알캐피탈대부㈜	2	하이캐피탈대부㈜	7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11	㈜하트캐싱대부	1
㈜에이원대부캐피탈	3	㈜엘씨대부	1
㈜엘하비스트대부	2		

다짐대회에서 다짐한 바를 실천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법사채 대출 광고물을 수거하고 고객에게 불법사채 사용을 금하는 안내 문구를 발송하도록 안내하여 2012년 5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18개 회원사가 460건의 불법사채 대출 광고물을 수거하여 협회로 송부하였으며 239,301건의 불법사채 사용금지 안내 문구를 고객에게 발송하였다. 구체적인 실적은 〈표 18〉과 같다.

〈표 18〉 다짐대회 후속 조치 실적

(단위 : 건)

회원사명	불법사채 대출광고물 수거	안내문구 발송 실적	계
㈜굿모닝캐피탈대부		8,687	8,687
대부헬로우크레디트㈜		6,553	6,553
㈜더조은대부		3,867	3,867
㈜동그라미대부		529	529
㈜머니라이프대부		747	747
㈜미르코리아대부		5,609	5,609
㈜바로크레디트대부		109,091	109,091
산와대부㈜		23,696	23,696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6,263	6,263
㈜엘하비스트대부		2,147	2,147

오케이캐피탈대부㈜		280	280
웰컴크레디라인대부㈜	341		341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63		63
㈜칸도인베스트대부		7,166	7,166
㈜태강대부	56	2,625	2,681
투머니크레디트대부		310	310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		10,233	10,233
하이캐피탈대부㈜		51,498	51,498
계	460	239,301	239,761

4) “2012 불법사채 피해예방 콘텐츠 공모전” 개최

협회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2 불법사채 피해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했다.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을 이룬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불법사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하였다.

작품은 총 116개 작품(웹툰 35, UCC 65, 플래시 14)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3, 입선 15개 등 총 31개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수상작품은 금융소비자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협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 SNS 채널에 게시하여 금융 범죄의 취약 층인 젊은 세대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였다. 또한 수상작품을 CD로 제작하여 전국 220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대부업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 2013년 신년회 개최 시 콘텐츠 공모전의 시상식도 함께 실시했다.

5) 일수바로쓰기 캠페인 개최



▲ 협회 직원이 재래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일수대출 조견표를 배포하고 있는 모습

시장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수대출의 경우 금리 계산법이 복잡해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 착안하여, 법정금리 한도 내 적정 상환금(일수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수 대출 조견표를 작성해 전국 276개 재래시장에 일수 대출 조견표 2,000부를 배포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이러한 고금리 일수대출의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재기관인 협회를 안내하고,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여 불법행위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표 19〉 일수바로쓰기 캠페인 실적

(단위 : 건, 부)

지역	배포시장	배포수량
서울	25	1,000
경기	121	10,000
부산	130	9,000
합계	**276**	**20,000**

〈그림 8〉 일수대출 조견표



6) 소비자금융신문 발행

대부금융신문이란 제호로 2009년 9월 1일 창간한 이래 대부업계의 정보지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12년 1월부터 불법사채와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대부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소비자금융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했다. 매월 2회 1만부씩 타블로이드 4도로 20면을 발행하고 있으며 대부업 관련 법령정보와 회원사 소식, 영업통계, 민원정보, 오피니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포기관으로는 회원사와 국회의원, 금융당국, 시도 공무원, 언론사, 금융기관, 학계 등이며 향후 금융당국 및 언론사 데스크 등 필진을 폭 넓게 확대하여 대부업권에 대한 대국민 이해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보의 사각지대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늘려갈 예정인데 담보대출이나 대부중개, 채권관리 분야에 대한 취재를 한층 더 강화하고 개인사업자 등 소형사에 대한 인물, 정보기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7) 서민금융 관련 학술 대회 개최

협회는 창립 이래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학계 등으로부터 외면 받아 왔던 주제인 서민금융과 관련한 중요 이슈를 안건으로 각종 간담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 2010년부터 매년 1회 개최되고 있는 소비자금융컨퍼런스의 경우 대부업계의 당면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함께 회원사간의 유대를 결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언론이나 학계와의 소통의 창구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협회에서 개최한 학술 대회 실적은 〈표 20〉과 같다.

〈표 20〉 학술대회 개최 현황

행사명	일정	장소	주요내용
소비자금융 학술대회	2009.11.17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서민금융의 현안** **- 감독, 규제, 대안금융의 문제점** 주제1 서민금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부금융업체의 관리감독 체계 개선방안 발제자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토론자 : 금융위원회 배준수 과장 주제2 서민시장의 규제방향 발제자 : KB부동산신탁 최동준 감사 토론자 : 서울디지털대 김대규 교수 주제3 우리나라 대안금융 현황과 과제 발제자 : 상명대 김규한 교수 토론자 : 신나는조합 정명기 이사장
2010 제1차 서민금융포럼	2010.4.23	서울프라자 호텔	**대부금융업 CB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주제1 대부금융업 CB의 현황 발제자 : 한국신용정보 오규근 실장 토론자 : 상명대 김규한 교수 주제2 대부금융업 CB의 나아갈 방향 발제자 : 원캐싱 심상돈 대표 토론자 : 서울디지털대 신언명 교수
2010 제2차 서민금융포럼	2010.7.20	서울코리아나 호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상한금리 정책 방향** 주제1 정부의 금리정책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제자 : 한양대 이상빈 교수

			주제2 금리정책이 대부업 및 서민금융에 미치는 영향 발제자 : 앤알캐피탈 민동오 대표
2010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2010 11.3.~11.5	에버리스 리조트	1부 [초청 특강] 일본 소비자금융에서 배워야 할 5가지, 배우지 말아야 할 5가지 발제자 : 와세다대 사카노 토모아키 교수 2부 [토론] 주제 건전 대부업 육성 및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계의 역할과 과제 발제자 : 금융감독원 조성목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박사 웰컴크레디라인 손종주 대표 토론자 : 금융위원회 배준수 과장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매일경제 장경덕 논설위원
2011 서민금융포럼	2011.3.29	서울팔레스 호텔	**대부중개시장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주제1 대부중개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발제자 : W파이낸셜대부중개 이원세 대표 토론자 : 단국대 심지홍 교수 상명대 김규한 교수 원캐싱 심상돈 대표 주제2 대부중개업의 나아갈 방향 발제자 : 협회 담당자 토론자 : 단국대 심지홍 교수 상명대 김규한 교수 원캐싱 심상돈 대표
2011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2011 10.5~10.7	제주 라온리조트	1부 [VCR 감상] “韓 소비자금융, 길을 잃다” 2부 [토론] 주제 소비자금융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차별화 전략 – 발제자 : 한양대 이상빈 교수 에이원대부 주환곤 대표 금융감독원 조성래 실장 토론자 : 매일경제 장경덕 논설위원 협회 양석승 회장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박사
2012 서민금융포럼	2012.4.25	프레지던트 호텔	**대포폰 이용한 대출사기, 어떻게 할 것인가?** 1부 [피해사례 발표] 대포폰 대출사기 피해자 2인 사례 발표

			2부 [토론] 발제자 : 협회 박담재 센터장 토론자 : 한양대 이상빈 교수 협회 양석승 회장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영직 책임연구원
2012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2012 10.18~10.19	타미우스 빌리지	**1부 [발표 및 토론]** 주제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방안 발제자 : 대륙아주 노미리 변호사 토론자 : 협회 양석승 회장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성균관대 박덕배 교수 인하대 이민환 교수 **2부 [특강]** 주제1 한국경제 현황과 전망 발제자 : 성균관대 박덕배 교수 주제2 경영인문학 나를 버리고 얻은 8가지 발제자 : 씨앤블루 김영한 대표



▲ 2010년에 개최된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의 모습



▲ 2011년에 개최된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의 모습

8) 기타 홍보·계몽 활동

법제처는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없더라도 스스로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협회도 2010년 5월 3일 법제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기관으로서 대부업 관련 상담에 응하고 있다.

4. 사회공헌 활동

1) 업무 개요

(1) 목적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나눔 경영의 실천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협회를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2) 회원사 사회공헌활동 내용

협회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기 이전에도 각 회원사에서는 자발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협회에서는 이런 각사의 노력과 병행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이원적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소외 받은 우리의 이웃에게 대부업계의 공헌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표 21〉 각 회원사별 사회공헌활동 현황

회원사명	사회공헌활동 내용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아프로 장학재단 운영, 전국농아인 야구대회 개최 행복나눔봉사단 운영 등
산와대부(주)	강남구청 겨울나기 기부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유)	노숙인 돕기, 시각장애인 후원, 보육원·복지관 후원
하이캐피탈(주)	연탄나눔활동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방정환 장학금 지급, 핸드볼팀 후원
(주)리드코프	복지관 후원

2)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개최

(1) 목적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결손가정 및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에게 김장을 담아 직접 전달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2) 행사 현황

2012년 11월 29일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김치 10kg, 200통을 불우이웃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참석인원은 회원사 임원 20명과 협회 임직원 13명 등 총 33명이 참석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였으며, 앞으로 이 행사는 더욱 확대하여 매년 4분기에 정기적으로 회원사 공동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예정이다.

<표 22> 2012년 김장담그기 회원사 참가 인원(20명)

NO	회사명	직함	참석자명
1	㈜바로크레디트대부	대표이사	김충호
2	㈜에이원대부캐피탈	대표이사	주환곤
3	㈜오닉스대부중개	대표이사	한경일
4	목동에셋㈜대부	대표이사	김용필
5	원캐싱대부㈜	대표이사	심상돈
6	㈜동그라미대부	대표이사	이형열
7	㈜희망만드는사람들대부	대표이사	김희철
8	산와대부㈜	부사장	이동권
9	웰컴크레디라인대부㈜	감사	전길수
10	㈜태강대부	고문	김재실
11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유)	이사	임성준

12	㈜리드코프	이사	유진하
13	㈜나이스대부	이사	위범량
14	㈜콜렉트대부	이사	현창익
15	㈜머니라이프대부	상무이사	구본영
16	대부헬로우크레디트㈜	이사	장은정
17	대산대부㈜	본부장	유경돈
18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	이사	김민혁
19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부장	이동규
20	㈜아세아캐피탈대부금융	실장	김재승



▲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모습

3) 금융교육 실시

대학진학이나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 거래에 중요한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과잉채무의 위험성, 예방방법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교육 관련 지식기부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미스 E(Economy)'s 시크릿머니"라고 하는 금융교육 뮤지컬을 제작하여 2011년 11월 14일부터 12월 7일까지 서울의 14개 고등학교에서 상연하였는데 총 6,327명이 관람하였다.

또한 뮤지컬은 DVD로도 제작하여 금융관련 협회와 전국의 특성화고 283개교에도 배포하였다.



▲ "미스 E(Economy)'s 시크릿머니"의 공연 모습

〈표 23〉 금융뮤지컬 공연 실적

	2011년	비고
현장공연	14개 고등학교, 6,327명 관람	2011.11.14. ~ 12.7
DVD 발송	전국 특성화고교 283개교 566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매일경제신문, 자산관리공사, 동양생명, ACE생명, ING생명, 메트라이프	
리플렛 배포	7000부 배포	
언론 보도 현황	12개 신문사 보도	아시아경제, 이투데이, 이지경제, 뉴시스, 매일경제, 아주경제, 한국금융신문, 아시아투데이, 조선비즈, 내일신문,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MBN 방송 보도	
	아르떼TV 3일 5회 방영	

5. 행정협력사무

1) 휴대폰 실명확인 서비스 현황

(1) 개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등록갱신 시 등록신청서상 휴대폰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협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담당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대포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협회가 구축한 휴대폰 실명확인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회에 휴대폰 실명확인 서비스 사용을 요청하면 협회에서는 ID와 비밀번호를 발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여 해당 번호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인지 조회할 수 있다.

(2) 이용현황

지금까지 협회에서 제공한 휴대폰 실명확인 서비스는 〈표 24〉와 같다.

〈표 24〉 휴대폰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현황

(단위 : 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확인건수	1,771	5,926	6,942	6,193

2) 대부업 등록 교육 실시 현황

(1) 개요

2009년 1월 21일 대부업법의 개정으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 또는 갱신하려는 자는 2009년 4월 21일부터 대부업 등의 준법사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기관에 등록(또는 등록갱신) 신청 시 구비서류와 함께 유효기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해야 대부업 등의 등록이 가능하다.

준법사항에 관한 교육은 대부업법 제18조의7(업무의 위탁)에 따라 협회에 위탁되어 현재까지 등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등록교육 시간 및 과목

시행 첫해인 2009년에는 총 4시간으로 교육과목이 구성되었으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2009년 8월) 및 세금포탈 방지 등을 위해 세무교육이 포함되면서 2010년부터는 8시간으로 교육시간이 늘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표 25〉 2009년 교육 과목

교시	과목	교육시간
1교시	대부업법	3시간
2교시	공정채권추심법 및 신용정보법	1시간

〈표 26〉 2010년 이후 교육 과목

교시	과목	교육시간
1교시	대부업법	4시간
2교시	대부업 세무·회계	1시간
3교시	공정채권추심법 신용정보법 민원사례	3시간



▲ 2009년 5월 11일 첫 등록교육 당시의 모습

(3) 등록교육 현황

① 등록교육 진행 횟수

대부업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수요에 따라 교육 횟수는 협회에서 조절하며 실시하고 있다. 법률 개정 이후 꾸준히 교육 수요가 증가하여 교육일수도 늘려왔으나 대부업법상의 상한금리 인하 등 규제 강화로 인해 대부업체가 감소하면서 교육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부터는 교육일수를 줄여가고 있다.

〈표 27〉 연도별 등록교육 진행 현황

(단위 : 회)

구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기타	합계
2009년	102	6	8	12	5	10	143
2010년	125	12	12	17	3	-	169
2011년	130	12	12	27	6	-	187
2012년	115	12	12	25	6	-	170
합계	472	42	44	81	20	10	669

※ 2009년 5월부터 교육 진행
※ 기타지역은 강릉 1회, 수원 1회, 원주 1회, 전주 4회, 춘천 3회로 총10회 진행

② 연도별 등록교육 이수자 현황

2009년 대부업법 개정이후 등록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매년 증가(2009년 대비 2010년 25% 증가, 2010년 대비 2011년 21%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법정최고이자율 인하(연 49% → 연 39%) 등 대부업 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대부업체 수가 감소하자 대부업 등을 등록 하고자 교육을 신청하는 인원도 2011년을 정점으로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

〈표 28〉 연도별 등록교육 이수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비율
남성	4,895	6,199	7,361	6,294	24,749	77.5
여성	1,445	1,712	2,201	1,829	7,187	22.5
합계	6,340	7,911	9,562	8,123	31,936	

※ 남성의 비율이 8대 2로 여성의 비율보다 약 4배 많다.

준법교육 시행 첫해인 2009년에는 총 11개 지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릉, 수원, 원주, 전주, 춘천)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비교적 인구가 적은 곳에서의 수요부족으로 2010년부터는 총 5개 지역(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으로 축소하여 실시하고 있다.

③ 지역별 등록교육 이수자 현황

서울교육 이수자가 전체 교육 이수자의 68%를 차지할 정도로 다른 지역보다 많은 교육 이수자가 배출되고 있다.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편인데 이는 인구집중도가 높은 편인 경기도와 인천지역 등의 수요도 서울 교육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다음으로는 부산이 12%, 대전 9%, 대구 8% 순으로 나타났는데 인구분포도에 따라 교육지역의 인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9> 지역별 등록교육 이수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비율
서울	4,340	5,417	6,308	5,498	21,563	68
부산	764	949	1,192	983	3,888	12
대전	327	744	960	755	2,786	9
대구	482	702	776	603	2,563	8
광주	148	99	326	284	857	3
기타	279	0	0	0	279	1
합계	6,340	7,911	9,562	8,123	31,936	

④ 연령대별 등록교육 이수자 현황

연령대별로 교육이수자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가 전체 교육이수자의 35%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40대, 50대, 20대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60대 이상의 비율도 9%로 비교적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0〉 연령대별 등록교육 이수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비율
20대	970	1,161	1,062	881	4,074	12
30대	2,170	2,938	3,144	2,980	11,232	35
40대	1,711	2,113	2,508	2,192	8,524	27
50대	1,026	1,205	1,762	1,398	5,391	17
60대 이상	463	494	1,086	672	2,715	9
합계	6,340	7,911	9,562	8,123	31,936	

※ 해당 연도 기준 연령대

⑤ 영업형태[10]별 등록교육 이수자 현황

등록업체의 감소로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영업형태별 추이를 살펴보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중개업을 영위하는 비율이 2009년 대비 2010년에 28%까지 증가한 점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이후 다시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전당업을 영위하는 비율도 계속 증가하다가 2011년 9%까지 증가한 후 현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추심을 하는 추심업만이 매년 소폭씩 증가하고 있는 점이 이례적이라 볼 수 있다.

〈표 31〉 영업형태별 등록교육 이수자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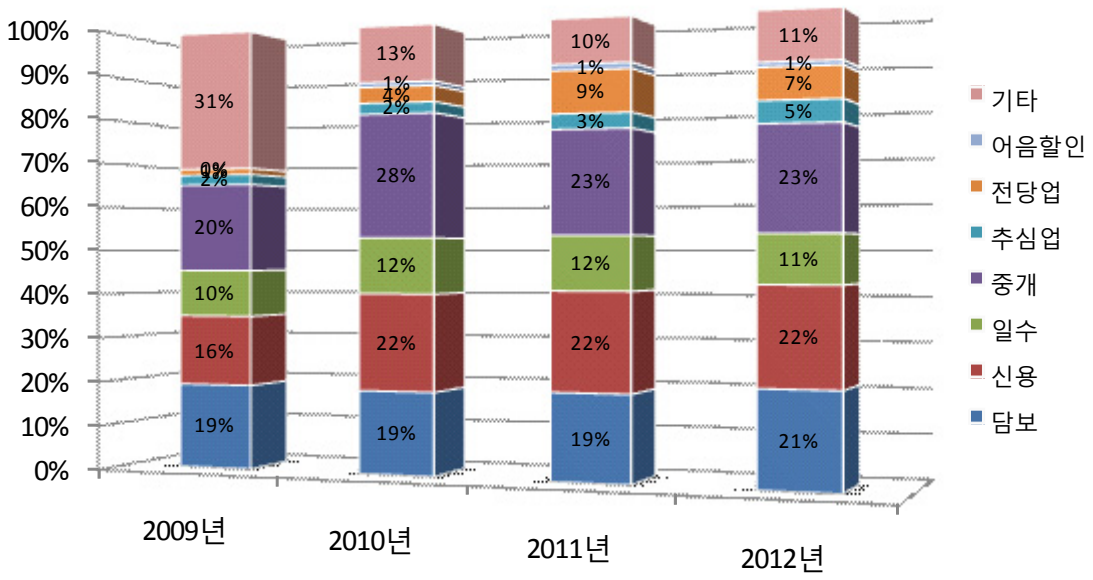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담보	1,211	1,473	1,848	1,723	6,255
신용	1,003	1,717	2,097	1,759	6,576
일수	663	983	1,145	868	3,659
중개	1,248	2,187	2,185	1,852	7,472

10) 대부업 등을 영업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채무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신용대출과 담보물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실행하는 담보대출, 금전대부를 중개하는 대부중개, 부실채권 및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채권추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밖에 편의상 〈표 30〉과 같이 일수와 전당업, 어음할인, 기타로 구분하였다.

추심업	146	196	322	393	1,057
전당업	86	282	892	562	1,822
어음할인	2	79	126	84	291
기타	1,981	994	947	882	4,804
합계	6,340	7,911	9,562	8,123	31,936

※ 상기 영업형태는 대부업 등을 영위하고자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것으로 실제 등록한 영업형태와는 다를 수 있다.

<그림 9> 영업형태별 등록교육 이수자 추이



⑥ 갱신 비율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 등은 신규 등록이후 3년이 되는 해에는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갱신 신청 시에도 신규 등록 시 이수했던 등록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2009년 대부업법 개정이후 처음 갱신을 하게 되는 2011년도에는 비교적 갱신을 하고자 하는 교육생 비율이 전체 교육생중 25%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 2012년에는 15%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신규영업이후 지속적으로 업을 연장하고자 하는 인원이 상당히 한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32〉 등록교육 갱신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신규	5,694	7,130	7,175	6,927	26,926
비율	90	90	75	85	84
갱신	646	781	2,387	1,196	5,010
비율	10	10	25	15	16
합계	6,340	7,911	9,562	8,123	31,936

6. 회원사 지원 및 교육 사업

1) 회원사 지원 사업

(1)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서비스

업계의 업무방식 통일이 필요한 법해석 사항이 있을 경우 협회가 선임한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2012년 5월부터 도입되었다. 협회에서 지금까지 법률자문을 의뢰한 곳으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수호, 김앤장 등이 있으며, 2012년도에 실시된 법률자문 내역은 〈표 33〉과 같다.

〈표 33〉 법률자문 의뢰 내역 현황

No.	내 용	날짜	법무법인
1	무등록 대부업체의 이동전화 이용정지 가부에 관한 검토	5.21	대륙아주
2	대부업자의 유질계약 허용 여부	5.31 6.14	수호 대륙아주
3	대부업자의 보증업 영위 가부	7.13	대륙아주 수호
4	대부업 업무서식의 적법 여부	7.13	대륙아주

5	대구지방법원 사실조회 회신내역 검토	7.16	대륙아주
6	대부업자의 보증업 영위 가능성 관련 검토	7.17	수호
7	대부업자의 '금융회사' 해당여부 관련 검토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 서식 관련	7.17	대륙아주 수호
8	대부업체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 서식에 대한 검토	7.20	대륙아주
9	채권추심법 개정안(홍종학 의원)에 대한 검토	8. 2	대륙아주 수호
10	대부업자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협회가입명령 가능여부	9. 6 9.20	대륙아주 수호
11	대부업 신용정보의 온라인 공개에 대한 검토	9.25 9.27	수호 대륙아주
12	채권추심전문 대부업자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10.16 10.23	대륙아주 수호
13	소멸시효완성채권이 공추법상 존재하지 않는 채권 해당 여부	10.16 10.23	대륙아주 수호
14	소비자금융신문 보도자료의 정정보도 청구대상 여부	10.17	대륙아주
15	대부업법상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의 증명서류의 종류와 범위	10.19	김앤장
16	채권추심비용이 이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11.28 12. 3	대륙아주 수호
17	화해계약의 대부거래계약 해당여부	12.13	대륙아주

(2) 소비자금융 직거래 대출센터

① 서비스 개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업자나 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회원사의 대출상품을 소개하고 소비자가 직접 대출 상품을 선택하여 대출신청도 할 수 있는 직거래 대출센터를 2011년 10월 17일부터 개설하였다.

② 운용 현황

개설 당시 18개 회원사가 참여했는데 금융소비자가 대출센터를 이용할 경우 대부중개회사를 통한 대출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중개회사 이용시 우려되는 개인정보의 악용이나 불법 수수료 편취 피해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스팸대출문자에 의한 대출사기도 피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센터 이용 고객이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협회에서 책임지고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

직거래 대출센터가 활성화 될 경우 금융소비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고 낮은 대출 금리로 안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회원사도 대부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절감하게 되어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이트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대출신청자수가 적고 신청한 고객의 신용도가 낮아 승인율이 낮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군다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온라인 대출을 포기한 업체와 업계의 영업 환경 악화로 폐업한 업체로 인하여 2012년도말 참여회원사는 15개사에 불과하다. 향후 참여회원사 확대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늘리고, 적극적인 홍보로 서민들이 안전하게 대부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는 채널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2012년도말 대출센터 참여 회원사 현황은 〈표 34〉와 같다.


소비자금융 직거래 대출센터

나에게 맞는 대출상품!!! 골라서 신청하기 !!!

대출신청하기

유의사항

- 소비자금융대출센터는 법정기관인 한국대부금융협회 정회원사의 대출상품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대부중개업자가 영업적 목적으로 타인을 대리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은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하나, 대출상담은 각 회사의 업무시간내에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회사 직원이 고객님께 대출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업체명 □상품명 검 색 새로고침 엑셀다운로드

대부업체명/대출상품명	대출정보	대출신청
하이캐피탈대부㈜ 큐피드론	금리 : 신규 연37.0% / 추가,재대출 연38.26% 이내 / 연체금리 연38.26% / 수수료없음 자격 : 직장인, 자영업자,주부,공무원, 전문직 등 한도 : 최대 1천만원 기간 : 12~36개월(최장5년까지 연장가능)*자유상환가능	신청
(주)인터머니 인터머니론	금리 : 연36%이내*수수료없음 자격 : 회사원, 자영업자 한도 : 최대 1천만원 기간 : 12~60개월	신청
(주)희망만드는사람들대부 부채탈출론	금리 : 25%부터 시작하여 성실상환시 금리 인하 최저 17% 자격 : 직장인 한도 : 최대 5천만원 기간 : 60개월 이내 상담사와 협의후 결정	신청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네오라인크레디트	금리 : 연39%이내*수수료없음 자격 : 회사원, 자영업자 한도 : 최대 1천5백만원 기간 : 12~38개월	신청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러시앤캐시	금리 : 연 36% 이내 연체 38.81% *수수료없음 자격 : 직장인, 자영업자,주부,공무원, 전문직 등 한도 : 최대 1,500만원 기간 : 12~36개월	신청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웰컴론	금리 : 연 24~36%이내 *수수료없음 자격 :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자 한도 : 최대1천만원 기간 : 12~60개월	신청
㈜바로크레디트대부 바로크레디트	금리 : 연 36%이하 연체금리 39% 이내*수수료없음 자격 : 직장인, 자영업자 한도 : 최대 1천만원 기간 : 12~60개월	신청
㈜에이원대부캐피탈 로니오(히트론)	금리 : 연 32.4~39% 이내*수수료없음 자격 : 직장인, 자영업자,주부,공무원, 전문직 등 한도 : 최대 1천만원 기간 : 12~60개월(최장5년까지 연장가능)*자유상환가능	신청
㈜엠티인터내셔날아이앤시대부 원크레디트	금리 : 연 39%이내*수수료없음 자격 : 회사원, 자영업자 한도 : 최대 5백만원 기간 : 12~24개월	신청
㈜위드캐피탈대부 마우스론	금리 : 연 36%이내*수수료없음 자격 : 회사원, 자영업자 한도 : 최대 1천만원 기간 : 12~60개월	신청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조이론	금리 : 연 36~39% 이내*수수료없음 자격 :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 한도 : 최대 1천만원 기간 : 12~60개월	신청
㈜콜렉트대부 루스모	금리 : 대출금리 35.77%, 연체금리 38.69% *수수료없음 자격 :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 한도 : 2천만원 기간 : 12~60개월	신청
㈜태강대부 캐시박스	금리 : 연39%이내*수수료없음 자격 :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자 한도 : 최대 1천만원 기간 : 12~36개월	신청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유) 원더줄론	금리 : 연 39%이내 * 수수료 없음 자격 : 직장인, 주부, 사업자, 공무원등 한도 : 최대 1500만원 기간 : 24 ~ 36개월	신청

▲ 협회 홈페이지 상의 소비자금융 직거래 대출센터 페이지

〈표 34〉 2012년도말 대출센터 참여 회원사

NO	참여 회원사	NO	참여 회원사
1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9	㈜인터머니
2	㈜바로크레디트대부	10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3	에비스대부㈜	11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유)
4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12	㈜콜렉트대부
5	㈜에이원대부캐피탈	13	㈜태강대부
6	㈜엠티인터내셔날아이앤시대부	14	하이캐피탈대부㈜
7	웰컴크레디라인대부㈜	15	㈜희망만드는사람들대부
8	㈜위드캐피탈대부		

직거래 대출센터가 개설된 이래 2012년도말까지 대출센터를 방문한 자와 대출을 직접적으로 신청한 자는 〈표 35〉와 같다. 개설 당시 언론 보도에 힘입어 하루 최다 356명까지 방문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도말까지 대출센터를 통해 대출 승인이 이루어진 현황은 〈표 36〉과 같다. 대출 신청자의 대다수가 저신용자인데다 과다 대출자인 관계로 승인율이 저조하다.

〈표 35〉 대출센터 방문자 수 및 신청자 수 현황

(단위 : 명, %)

방문자 수 추이				대출 신청자 수 추이			
연도	월	방문자수	증감율	연도	월	방문자수	증감율
2011년	10	1,863		2011년	10	200	
	11	1,735	-7		11	220	10
	12	933	-46		12	196	-11
	합계	4,531			합계	616	

2012년	1	663	-29	2012년	1	153	-22
	2	762	15		2	49	-68
	3	1,086	43		3	54	10
	4	886	-18		4	59	9
	5	691	-22		5	34	-42
	6	600	-13		6	32	-6
	7	1,086	81		7	44	38
	8	606	-44		8	29	-34
	9	520	-14		9	29	0
	10	493	-5		10	24	-17
	11	442	-10		11	21	-13
	12	429	-3		12	24	14
	합계	8,264			합계	552	

〈표 36〉 대출센터 대출 승인 현황

(단위 : 건, 원, %)

대출 승인건수 추이				
연도	월	승인건수	승인금액	승인율
2011년	10	8	25,700,000	4.0
	11	1	3,000,000	0.5
	12	-	-	
	합계	9	28,700,000	1.5
2012년	1	-	-	
	2	2	12,000,000	4.1

2012년	3	–	–	
	4	3	35,100,000	5.1
	5	1	2,000,000	2.9
	6	–	–	
	7	1	5,000,000	2.3
	8	–	–	
	9	1	5,000,000	3.4
	10	–	–	
	11	–	–	
	12	1	2,000,000	4.2
	합계	9	21,800,000	1.6

(3) 중소 대부업체 e경영 지원 서비스

① 간편 전산프로그램(Bankey: 뱅키)

협회는 기존 소형 대부금융회사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고객관리와 대출관리, 채권관리, 신용정보 조회, 대부중개업무 등과 같은 수기 작업의 애로점을 고려하여 전산 프로그램(뱅키)을 개발하여 무료 또는 염가로 보급하고 있다. 현재 총 26개 회원사가 무료 전산 두 번째 버전인 “뱅키Ⅱ”를 사용하고 있으며, 회원사의 경우 1User 사용 시 무료 사용이 가능하며, 2User 이상 사용 시 1User당 사용료 3만원, 비회원사의 경우 1User 사용 시 월 9,000원, 2User 이상 사용 시 1User당 사용료 3만원 등 소형사가 실제 개발비 없이 전산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다.

〈표 37〉 "뱅키Ⅱ" 사용 회원사 현황

NO	회사명	NO	회사명
1	㈜희망만드는사람들대부	12	현대그린캐피탈대부
2	목동에셋㈜대부	13	㈜론케이대부
3	㈜한국리치캐피탈대부	14	㈜에이비씨론대부
4	㈜성원앤대부	15	씨앤브이투자대부㈜
5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	16	㈜KHO금호에셋대부
6	㈜에프이푸른하늘대부	17	㈜에스아이파이낸스대부
7	케이비캐피탈대부㈜	18	애플대부금융㈜
8	OPA대부중개	19	㈜에이앤디대부
9	세이프캐시	20	투데이대부
10	㈜행복한세상대부중개	21	㈜위자드캐시앤캐쉬대부
11	동원산업㈜		

② 무료홈페이지 제작

영세한 소형 회원사의 홈페이지를 무상으로 제작해 주는 서비스로 2009년 12월부터 실시하여 2012년 12월 末 현재 8개 회원사가 무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영업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단, 웹호스팅, 관리자 화면, 백업, 보안 등의 사유로 유지보수비 월 3만원(1년 선납조건 33만원)을 해당 전산업체에 납입해야 사용할 수 있다.

〈표 38〉 무료 홈페이지 사용 회원사 현황

NO	회사명	홈페이지 신청	상태
1	㈜한국리치캐피탈대부	2010년 9월	제작완료
2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	2010년 11월	제작완료
3	현대그린캐피탈대부	2011년 6월	제작완료
4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2012년 2월	제작완료

5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2012년 2월	제작완료
6	㈜에스아이파이낸스대부	2012년 4월	제작완료
7	맥가이버대부중개	2012년 5월	제작완료
8	노블캐쉬대부	2012년 9월	제작완료

※ 총 34개 회원사가 '홈페이지' 제작을 신청하였으나, 25개사는 중도에 폐업했으며, 회원탈회 등의 사유로 사용 중지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회원사 수는 8개사이다.

③ 대부업 CB 조회

대부업 CB 조회란 NICE신용평가정보(신용정보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 회원사가 채무자의 신용정보 조회 시 신용정보 조회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무료 전산프로그램인 "뱅키"에 탑재되어 있다. 서비스 요금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39〉 종량제 이용 현황 (부가세 별도)

회원가			비회원가		
133건	36만원	건당 2,707원	133건	40만원	건당 3,008원
179건	45만원	건당 2,514원	179건	50만원	건당 2,793원
231건	54만원	건당 2,338원	231건	60만원	건당 2,597원
292건	63만원	건당 2,156원	292건	70만원	건당 2,397원
364건	72만원	건당 1,978원	364건	80만원	건당 2,198원

※ 회원사 적용가격은 비회원사 적용가격에서 10% 할인된 가격이다.

〈표 40〉 월간제 이용 현황 (부가세 별도)

회원사 가격		비회원사 가격	
A	B	A	B
월 기본료 9만원 조회건당 900원 (신용등급 900원) 무료건수 50건	월 기본료 27만원 조회건당 200원 (신용등급 400원) 무료건수 없음	월 기본료 10만원 조회건당 1,000원 (신용등급 1,000원) 무료건수 50건	월 기본료 27만원 조회건당 200원 (신용등급 400원) 무료건수 없음

※ 회원사 적용가격은 비회원사 적용가격에서 10% 할인된 가격이다.

(4) 우수 회원사 인증·포상 및 임직원 포상

① 우수회원사 인증

협회는 2010년 12월부터 1년 단위로 우수회원사를 평가·선정하여 협회 우수회원사임을 인증하고 우수회원사 명판을 해당 회원사에게 수여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우수회원사 인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며 그 기준은 협회 회원사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동기간 중 감독기관에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업체나 협회 민원 발생건 중 미해결이나 협조불량 등 소비자보호에 소홀한 업체 또는 기타 건전한 대부업 질서를 해한다고 협회에서 판단한 업체는 우수회원사 인증에서 제외하여 공신력을 높일 예정이다.

〈표 41〉 우수회원사 현황

NO	회사명	인증번호	NO	회사명	인증번호
1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CLFA-01-00001	18	㈜에치제이인베스트먼트	CLFA-01-00018
2	산와대부㈜	CLFA-01-00002	19	와이앤금융파트너스대부㈜	CLFA-01-00019
3	웰컴크레디라인대부㈜	CLFA-01-00003	20	㈜미래크레디트	CLFA-01-00020
4	㈜바로크레디트	CLFA-01-00004	21	㈜미즈사랑	CLFA-01-00021
5	하이캐피탈대부㈜	CLFA-01-00005	22	㈜밀리언캐쉬	CLFA-01-00022
6	원캐싱㈜	CLFA-01-00006	23	㈜스타크레디트대부	CLFA-01-00023
7	유어캐피탈대부금융㈜	CLFA-01-00007	24	㈜비컴콜렉션	CLFA-01-00024
8	㈜머니라이프	CLFA-01-00008	25	㈜아이루리아대부	CLFA-01-00025
9	㈜위드캐피탈	CLFA-01-00009	26	㈜액트캐쉬	CLFA-01-00026
10	㈜콜렉트대부	CLFA-01-00010	27	㈜에이원대부캐피탈	CLFA-01-00027
11	㈜강남캐피탈	CLFA-01-00011	28	㈜하트캐싱	CLFA-01-00028
12	앤알캐피탈㈜	CLFA-01-00012	29	양천국제금융㈜	CLFA-01-00029
13	예스캐피탈㈜	CLFA-01-00013	30	오케이캐피탈㈜	CLFA-01-00030
14	㈜태강코퍼레이션	CLFA-01-00014	31	유승산업㈜	CLFA-01-00031
15	대부헬로우크레디트㈜	CLFA-01-00015	32	제이파이낸셜라인㈜	CLFA-01-00032

16	나라대부금융㈜	CLFA-01-00016	33	㈜굿타이밍	CLFA-01-00033
17	오닉스대부중개㈜	CLFA-01-00017	34	㈜더블유오엔대부캐피탈	CLFA-01-00034
35	㈜디지론피아	CLFA-01-00035	64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	CLFA-01-00054
36	㈜라이프캐피탈	CLFA-01-00036	65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유)	CLFA-01-00055
37	㈜미래파트너스대부	CLFA-01-00037	66	현대기업금융㈜	CLFA-01-00056
38	㈜아스리트	CLFA-01-00038	67	㈜세흥크레디트	CLFA-01-00057
39	㈜엄지캐피탈	CLFA-01-00039	68	㈜베르넷크레디트	CLFA-01-00058
40	㈜엘씨코퍼레이션	CLFA-01-00040	69	㈜동아캐피탈	CLFA-01-00059
41	㈜엘하비스트대부	CLFA-01-00041	70	동양파이낸셜대부㈜	CLFA-01-00060
42	㈜엠비엠캐피탈	CLFA-01-00042	71	㈜굿이에프	CLFA-01-00061
43	㈜엠제이앤씨대부	CLFA-01-00043	72	엠원크레디트㈜	CLFA-01-00062
44	㈜유낸킴메니지먼트	CLFA-01-00044	73	㈜신흥캐피탈	CLFA-01-00063
45	㈜유니크에프씨	CLFA-01-00045	74	㈜부영파이낸스	CLFA-01-00064
46	㈜유아이크레디트	CLFA-01-00046	75	㈜휴앤케이파트너스	CLFA-01-00065
47	㈜제일파이낸셜	CLFA-01-00047	76	㈜닛코코리아	CLFA-01-00066
48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CLFA-01-00048	77	㈜티에스씨앤아이	CLFA-01-00067
49	㈜케이아이코아즈대부	CLFA-01-00049	78	그라민㈜	CLFA-01-00068
50	㈜티엔코대부금융	CLFA-01-00050	79	세경파이낸스㈜	CLFA-01-00069
51	경신기획대부	CLFA-02-00001	80	베스트캐피탈대부㈜	CLFA-01-00070
52	경진대부	CLFA-02-00002	81	㈜에이트원대부	CLFA-01-00071
53	금강투자금융	CLFA-02-00003	82	㈜엠티인터내셔날아이앤시	CLFA-01-00072
54	나이스캐피탈	CLFA-02-00004	83	㈜서울코스모홀딩스	CLFA-01-00073
55	신안캐피탈	CLFA-02-00005	84	아리엘에셋(유)	CLFA-01-00074
56	아세아캐피탈	CLFA-02-00006	85	한국피에프대부금융㈜	CLFA-01-00075
57	창원캐피탈	CLFA-02-00007	86	㈜희망만드는사람들대부	CLFA-01-00076
58	월드케피탈대부	CLFA-02-00008	87	㈜굿모닝캐피탈	CLFA-01-00077
59	G.M캐피탈	CLFA-02-00009	88	㈜해피크레디라인	CLFA-01-00078

60	S&K금융캐피탈	CLFA-02-00010	89	스타페이㈜	CLFA-01-00079
61	동양캐피탈㈜	CLFA-01-00051	90	㈜케이위드리치시스템	CLFA-01-00080
62	㈜피앤에이치글로벌	CLFA-01-00052	91	㈜유니온에프씨대부중개	CLFA-01-00081
63	㈜리드코프	CLFA-01-00053	92	머스트원캐피탈㈜	CLFA-01-00082
93	㈜목동에셋	CLFA-01-00083	122	㈜베스트커뮤니티대부중개	CLFA-01-00101
94	나래캐피탈대부㈜	CLFA-01-00084	123	㈜파워캐피탈대부중개	CLFA-01-00102
95	㈜열린투자금융대부	CLFA-01-00085	124	㈜몬키	CLFA-01-00103
96	㈜해방새금융	CLFA-01-00086	125	원캐피탈대부㈜	CLFA-01-00104
97	㈜오아시스대부	CLFA-01-00087	126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CLFA-01-00105
98	트르머니대부금융㈜	CLFA-01-00088	127	㈜칸캐피탈대부	CLFA-01-00106
99	한국이지론㈜	CLFA-01-00089	128	㈜태산대부	CLFA-01-00107
100	성진베스트론	CLFA-02-00011	129	㈜더조은대부	CLFA-01-00108
101	신호금융대부	CLFA-02-00012	130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CLFA-01-00109
102	스타스탠다드	CLFA-02-00013	131	㈜에이모션	CLFA-01-00110
103	유경메디텍	CLFA-02-00014	132	㈜인터머니	CLFA-01-00111
104	캐시바나나	CLFA-02-00015	133	㈜성원앤대부	CLFA-01-00112
105	대안대부	CLFA-02-00016	134	㈜동그라미대부	CLFA-01-00113
106	원흥전당포대부	CLFA-02-00017	135	㈜미르코리아대부	CLFA-01-00114
107	성신대부	CLFA-02-00018	136	㈜에프이푸른하늘대부	CLFA-01-00115
108	늘푸른-론	CLFA-02-00019	137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	CLFA-01-00116
109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CLFA-01-00090	138	㈜엠에프파이넨스	CLFA-01-00117
110	씨앤브이투자대부㈜	CLFA-01-00091	139	㈜비아이지대부	CLFA-01-00118
111	에비스대부㈜	CLFA-01-00092	140	대상론대부㈜	CLFA-01-00119
112	애니원캐피탈대부㈜	CLFA-01-00093	141	㈜우리에셋대부	CLFA-01-00120
113	㈜이노비트대부	CLFA-01-00094	142	㈜티케이파이낸스대부	CLFA-01-00121
114	행복파트너스대부㈜	CLFA-01-00095	143	㈜어프로치대부	CLFA-01-00122
115	와이에프씨	CLFA-02-00020	144	㈜나이스대부	CLFA-01-00123

116	대영개발대부	CLFA-02-00021	145	티와이머니대부㈜	CLFA-01-00124
117	㈜새한캐피탈	CLFA-01-00096	146	강남파이낸스전당포대부	CLFA-02-00022
118	㈜한국리치캐피탈대부	CLFA-01-00097	147	노블캐쉬대부	CLFA-02-00023
119	와이비캐피탈대부㈜	CLFA-01-00098	148	굿모닝캐쉬대부	CLFA-02-00024
120	케이비캐피탈대부㈜	CLFA-01-00099	149	대림캐피탈대부중개	CLFA-02-00025
121	㈜세종대부컨설팅	CLFA-01-00100	150	진양국제결혼상담대부	CLFA-02-00026
151	일신캐피탈대부	CLFA-02-00028	172	㈜유니원하이대부중개	CLFA-01-00139
152	한일투자대출대부	CLFA-02-00029	173	에스앤케이파머스대부㈜	CLFA-01-00140
153	OPA대부중개	CLFA-02-00030	174	㈜엔씨엘시스템대부중개	CLFA-01-00141
154	투머니크레디트대부	CLFA-02-00031	175	㈜채움캐피탈대부	CLFA-01-00142
155	세이프캐시	CLFA-02-00032	176	㈜행복한세상대부중개	CLFA-01-00143
156	현대그린캐피탈대부	CLFA-02-00033	177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CLFA-01-00144
157	서진캐피탈대부	CLFA-02-00034	178	㈜칸도인베스트대부	CLFA-01-00145
158	펀코리아대부	CLFA-02-00035	179	㈜비에프솔류션대부중개	CLFA-01-00146
159	㈜서울캐싱대부	CLFA-01-00126	180	㈜론스타캐피탈대부	CLFA-01-00147
160	와이케이대부㈜	CLFA-01-00127	181	애플대부금융㈜	CLFA-01-00148
161	㈜페어컬렉션대부	CLFA-01-00128	182	㈜다우파트너스대부	CLFA-01-00149
162	㈜아크코리아대부	CLFA-01-00129	183	㈜로얄캐피탈대부	CLFA-01-00150
163	㈜오리온캐피탈대부	CLFA-01-00130	184	㈜기협기술금융대부	CLFA-01-00151
164	웰릭스캐피탈대부㈜	CLFA-01-00131	185	킨유우토우시대부㈜	CLFA-01-00152
165	대산대부㈜	CLFA-01-00132	186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	CLFA-01-00153
166	㈜굿프렌드대부	CLFA-01-00133	187	㈜서울기업금융대부	CLFA-01-00154
167	㈜엘씨대부	CLFA-01-00134	188	서브코리아대부㈜	CLFA-01-00155
168	㈜디딤캐피탈대부	CLFA-01-00135	189	㈜에이비씨론대부	CLFA-01-00156
169	㈜씨씨콜렉션대부	CLFA-01-00136	190	㈜템코파이낸스대부	CLFA-01-00157
170	㈜비오캐피탈대부	CLFA-01-00137	191	㈜에스비엠대부중개	CLFA-01-00158
171	㈜한국소상공인지원센터대부	CLFA-01-00138	192	㈜스마트대부	CLFA-01-00159

② 우수 소비자금융회사 표창

협회는 2010년도부터 각 회원사의 민원예방 및 처리, 협회 추진사업 참여도, 직원 교육훈련 상태, 사회공헌활동, 소비자금융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상위 회원사에게 우수상과 대상을 수여하여 그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대상의 영광은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에게 돌아갔고 3년 연속 대상에 선정되어 대상기를 소속 회사에서 영구히 소장하게 되었다. 〈표 42〉는 연도별 우수 소비자금융회사로 선정된 회원사이다.

〈표 42〉 우수 소비자금융회사 표창 회원사 현황

구분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대상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우수상	산와대부(주)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유) (주)에이원대부캐피탈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주)에이원대부캐피탈 (주)태강대부 (주)콜렉트대부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주)바로크레디트대부 (주)하트캐싱대부	산와대부(주) (주)에이원대부캐피탈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주)콜렉트대부 (주)티엔에스코리아 인베스트먼트대부

③ 회원사 임직원 포상

협회에서는 2012년도부터 회원사 소속 우수 임직원을 선정하여 협회장이 그 노고를 치하하고 포상하고 있다. 연말 회원사 송년회 또는 신년회 개최 시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전 회원사로부터 추천장을 받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회원사 우수 임직원을 포상할 예정이다. 2012년에 회원사 우수 임직원으로 선정된 직원 현황은 〈표 43〉과 같다.

〈표 43〉 회원사 우수 임직원 수상자 현황

회원사명	성함	직함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김용희	팀장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현경진	차장
산와대부(주)	최민옥	실장
하이캐피탈대부(주)	고범관	과장
(주)동그라미대부	서동석	차장

(5) 회원사 상조 서비스 시행

회원사 간의 상호부조와 친목도모를 위해 협회에서는 회원사 상조회를 구성하고 상조지급규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총 16개 회원사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 차례 상조회 규정을 개정(2011.3)하여 대상 지원자를 확대하였다. 회원사 상조회인 관계로 회비는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필요 경비는 협회 고유계정 경조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규정은 〈표 44〉와 같다.

〈표 44〉 상조회 지급규정

대상자	사망시	상조기	상조용품	조화	부의금	비고
대표이사	부모	○	○	○	○	기본 : 300인용 상조용품 이상
	본인	○	○	○	○	
	배우자	○	○	○	○	
	자녀	○	○	○	○	
	조부모 장인,장모, 형제자매	○	○	○	○	
임원 (법인)	**부모**	○	○	○	○	
	본인	○	○	○	○	
	배우자	○	○	○	○	
	자녀	○	○	○	○	
	형제자매	○	○	○	○	
	조부모 장인,장모	×	×	×	×	
직원	본인	○	○	○	○	
	배우자	○	○	○	○	

(6) 회원사 임·직원의 자기계발 교육 지원

2009년 12월 24일 서울디지털대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회원사 임·직원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의 자기계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산학협력 체결에 따라 회원사의 임·직원은 서울디지털대학교 입학 시 장학금 특전을 부여받는데 입학금이 전액 면제되며,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7) 각종 도서 출판

대부업 관련 업계 정보를 비롯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과 민원 사례 등을 회원사가 공유하고 현장에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협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서적을 발행하여 회원사에 배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협회에서 발행한 서적은 〈표 45〉와 같다.

〈표 45〉 협회 발행 서적 현황

No.	내용	날짜
1	JFSA백서(2008년도판)	2009.7
2	대부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10.5
3	JFSA백서(2009년도판)	2010.6
4	일본대금업협회 정관 및 각종 규칙	2010.8
5	대부업 관계법령 Q&A	2011.1
6	다중채무자 상담 매뉴얼	2011.3
7	대부금융업 유권해석	2011.5
8	대부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11.7
9	대부업무 지도사항 모음집	2011.11
10	대부금융업 보도기사 모음집Ⅱ, Ⅲ, Ⅳ	2011.12
11	JFSA백서(2010년도판)	2012.3
12	이자제한이 서민금융에 미치는 영향	2012.7
13	대부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12.7
14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	2012.8
15	대부금융업 보도기사 모음집Ⅵ	2012.10

2) 교육 사업

(1) 중개 교육

① 개요



▲ 2010년 8월 29일 처음으로 중개 교육이 실시되었다.

대부중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2010년 7월 "중개업무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대부중개회사들이 협회 회원인 대부금융회사들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회에 등록을 하고 사고예방 교육 4시간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중개교육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중개업 등록을 완료한 이후 협회에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1회 교육 이수 후 1년마다 재교육을 통해 갱신을 해야 한다. 미갱신 시에는 협회 등록이 자동 해제되며 해제된 이후에는 협회 회원사들과의 거래를 할 수 없다.

회원사는 반드시 협회에 등록된 대부중개회사들과 거래를 해야 하며, 미등록대부중개회사와 거래 시 규정에 따른 제재가 부여 된다.

② 교육과목

중개교육은 총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개업무관리규정과 민원사례 및 중개업무 관련 유의 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을 이수한 대부중개회사의 경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표 46> 중개 교육 과목 현황

교시	과목	교육시간
1교시	중개업무 규정의 이해	2시간
2교시	중개 관련 민원 예방	1시간
3교시	중개업무 유의사항	1시간

③ 교육 현황

중개교육은 월평균 3회(서울 2회, 부산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서울은 협회 1층 교육장에서 부산은 부산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표 47> 중개 교육 진행 횟수

(단위 : 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서울	19	26	26	71
부산	4	6	4	14
합계	23	32	30	85

※ 2010년 7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개업무관리규정"에 따라 협회에 등록을 하고자 교육을 신청하는 대부중개회사는 매년 7%씩 늘어나고 있다. 서울이 전체 교육생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부산교육생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48> 중개 교육 진행 횟수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서울	501	564	646	1,711
부산	106	90	52	248
합계	607	654	698	1,959

※ 2010년 7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직무 교육

① 개요

2010년 이사회 의안(회원사 직원의 직무교육 시행의 건) 승인에 따라 회원사에 재직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협회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집체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나 거리 및 시간상 제약으로 점차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이다.

② 집체교육 현황

서울 중구 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원으로 인가를 받은 후 협회 회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환급과정을 2010년 4월부터 진행하였다. 그러나 회원사 업무인원의 부족에 따른 집체 교육 참여율 저조로 인해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과정의 변경이나 추가 시 강사 섭외에 대한 제약 등으로 2013년에 집체교육은 종료할 예정이다.

2010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41회, 836명의 회원사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표 49〉 집체교육 과목 현황

1회			2회		
교시	과목	교육시간	교시	과목	교육시간
1교시	대부금융의 역사	1시간	1교시	민원예방	2시간
2교시	대출심사 - 실무	2시간	2교시	임의회수	2시간
3교시	대출심사 -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	1시간	3교시	채권보전 및 집행권원	2시간
4교시	고객만족(CS)	4시간	4교시	강제집행 실무	2시간

〈표 50〉 집체교육 연도별 진행 횟수

(단위 : 회)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진행 횟수	14	23	4	41

※ 집체교육은 2010년 4월부터 교육을 실시하여 2013년 교육 종료 예정이다.

〈표 51〉 집체교육 연도별 수강 인원

(단위 : 명)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수강 인원	358	410	68	836

③ 사이버 교육 개요

협회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협회 교육장까지 와야 하는 시간과 거리 등의 제약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2년 6월부터 온라인으로 운영이 되는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2012년도 말 기준 27개 회원사에서 총 294명의 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하였다.

④ 사이버 교육 과목

사이버 교육은 신입사원을 위한 “대부금융 종사자를 위한 업무 기초”교육과 경력자를 위한 “알기 쉬운 채권관리 실무”교육 등 총 2가지 과정으로 각각 20시간으로 구성되어 실시되고 있다.

〈표 52〉 사이버교육 과목 현황

대부금융 종사자를 위한 업무 기초 과정		알기 쉬운 채권관리 실무 과정	
차시	과목	차시	과목
1차시	대부업의 역사와 대부업 등록	1차시	계약일반(1)
2차시	대부거래 시 유의사항	2차시	계약일반(2)
3차시	이자율 및 감독·검사	3차시	채권이해
4차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차시	민법이해
5차시	민원의 이해와 예방	5차시	권리 – 변동
6차시	민원의 처리와 감정관리	6차시	임의회수
7차시	회계기초(1)	7차시	채권 – 효력
8차시	회계기초(2)	8차시	담보물권 및 채권상담
9차시	대부업 세무	9차시	민사소송
10차시	민사소송법률(1)	10차시	통상소송절차에 있어서의 개념(1)

11차시	민사소송법률(2)	11차시	통상소송절차에 있어서의 개념(2)
12차시	민사소송법률(3)	12차시	대여금채권과 관련된 소송
13차시	민사소송법률(4)	13차시	사해행위 최소소송의 절차와 쟁점
14차시	민사소송법률(5)	14차시	양수금 청구소송과 수인의 채무자
15차시	개인정보보호법	15차시	대여금 청구소송 소장
16차시	신용정보보호법	16차시	청구소송 소장 외 소송서류

⑤ 사이버교육 현황

사이버교육은 2012년 6월부터 시작하여 매월 진행하고 있다.

〈표 53〉 사이버교육 수강인원 현황

(단위 : 명)

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수강인원	80	55	44	32	23	23	37	294

⑥ 회원사별 직무교육 수강 현황

직무교육이 처음 도입된 이래 2012년도 말까지 각 회원사에서 교육을 수강한 현황은 〈표 55〉와 같다. 회원사 중 산와대부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회원사별 직무교육 수강인원 현황

(단위 : 명)

회원사명	집체교육				사이버교육	총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강남파이낸스	1			1		1
㈜굿모닝캐피탈대부	2			2		2
㈜굿이에프대부	2			2		2
㈜나이스대부		3		3		3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11	39	13	63	56	119
대부헬로우크레디트㈜	4	3		7	1	8
대산대부㈜		2		2		2

㈜동그라미대부		5	1	6	10	16
디오아시스대부					1	1
㈜론스타캐피탈대부		1		1	1	2
㈜리드코프					4	4
㈜머니라이프대부	5			5		5
㈜미래크레디트대부	4	2		6		6
㈜밀리언캐쉬대부	1			1		1
㈜바로크레디트대부	6			6		6
㈜베르넷크레디트대부	17	20	4	41	6	47
베스트캐피탈대부㈜	6	8		14		14
㈜브릭스캐피탈대부		1		1		1
㈜비오캐피탈대부		1		1		1
산와대부㈜	38	109	23	170	81	251
㈜서울옥션		1		1		1
㈜성원앤대부		2		2		2
㈜스타크레디트대부	4			4		4
아리엘에셋대부(유)	3	1		4		4
㈜아이루리아대부	5	11		16		16
애니원캐피탈대부㈜	7			7	3	10
㈜액트캐쉬대부	4	21	3	28		28
앤알캐피탈대부㈜	5	5		10		10
㈜에스아이파이낸스대부					1	1
에스앤케이파머스대부㈜		1		1		1
㈜에이모션					1	1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3			3		3
㈜에이원대부캐피탈	4	5	2	11	2	13
㈜에치제이인베스트먼트대부		2		2		2
㈜에프이푸른하늘대부		5		5		5
㈜엘하비스트대부	8	8	3	19	9	28
㈜엠에프파이넨스대부			1	1		1
㈜엠제이앤씨대부	13			13		13
㈜열린아침대부	1			1		1
와이앤금융파트너스대부㈜		1		1		1

와이케이대부㈜		1		1		1
원캐싱대부㈜	6			6		6
원캐피탈대부	1			1		1
웰컴크레디라인대부㈜	138	38	6	182	23	205
㈜유니크에프씨대부		1		1		1
유승산업대부㈜		2		2	6	8
㈜유아이크레디트대부	2			2		2
유어캐피탈대부금융㈜		2		2		2
㈜이노비트대부	2	1		3		3
제이파이낸셜라인대부㈜		1		1		1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24	45	7	76		76
지에스파이낸셜대부㈜	2			2		2
㈜칸캐피탈대부		2		2		2
㈜케이아이코아즈대부					5	5
㈜케이옥션					1	1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유)					18	18
㈜콜렉트대부	1	7	1	9	9	18
㈜태강대부	12	9	2	23	12	35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대부					10	10
터치론대부	1			1		1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1	2	3		3
㈜티엔코대부금융	1			1		1
하이캐피탈대부㈜					16	16
㈜하트캐싱대부	1			1	2	3
㈜한국금융플랫폼					2	2
㈜한국리치캐피탈대부					2	2
한국이지론㈜	6			6		6
㈜해방새대부					6	6
㈜휴앤케이파트너스대부	4	9		13		13
희망만드는사람들대부	3	1		4	6	10
기타		33		33		33
합계	358	410	68	836	294	1,130

※ 기타의 경우는 전산 오류로 인해 회사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3) 세무·회계교육

① 개요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과정에 세무·회계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정된 교육 시간에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② 교육과목

세무·회계교육은 총 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과목은 〈표 55〉와 같다.

〈표 55〉 세무·회계 교육 과목 현황

교시	과목	교육시간
1교시	대부업의 세금 및 세무	2시간
2교시	세무기장 사업자 등록 실무	1시간
3교시	대부업의 회계	3시간

③ 교육 현황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시 진행하는 설문조사에서 대부업 관련 세무·회계 교육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세무·회계만을 전문으로 한 교육을 개설하여 진행하였으나 수요는 저조한 상황이다.

2개월에 1회 정도로 교육생 수요를 감안하여 최소 수강인원인 10인 이상일 경우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1회 교육진행시 평균 11명이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

〈표 56〉 세무·회계 교육 진행 횟수

(단위 : 회)

연도	2011년	2012년	합계
진행 횟수	2	5	7

※ 2011년 9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57〉 연도별 세무·회계 교육 수강 인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1년	2012년	합계
수강 인원	23	56	79

※ 2011년 9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7. 법·제도 개선 업무

1) 업무개요

지금까지 불법사채업자의 행위가 대부업계의 일반적인 현상인 듯 인식되어 왔고 정부도 대부업 시장의 개선보다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실시해 왔다. 이로 인해 대부업권은 타 금융업권에 비해 차별적인 규제들이 많은 편인데 이는 합법적으로 법령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건전한 대부업체의 영업마저 위축시켜 금융소비자에 대한 긴급생활자금을 공급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부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부업법 및 관계 법률이 업계 및 소비자보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개정 되도록 국회와 금융당국, 언론 등에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2) 법률 개정에 대한 대응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심사 예정인 대부업 유관법령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의견서를 유관 기관에 제출하고 있다. 2012년 말까지 유관 기관에 제출한 의견서는 〈표 58〉과 같다.

〈표 58〉 의견서 제출 현황

제출년도	법안 내용	제출처
2009년	**[법무부] 이자제한법 개정안** - 이자제한법 위반 시 벌금형 추가	법무부
2010년	**[금융위원회]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 - 제4조 등록의 제한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 -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금융위원회
	[권택기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대부업 설립요건의 허가제 전환	금융위원회
	[박준선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법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만 대부 광고 가능	금융위원회
	[심재철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대부광고 시간 규제	금융위원회
	[김우남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금감원의 대부업자 검사 가능	금융위원회
	[이범래 의원] 이자제한법 개정안 - 상한금리 연30%로 인하	법무부
	[김부겸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대부업법상 이자율 이자제한법상 이자율로 인하	금융위원회
	[정옥임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대부업자의 배상 책임	금융위원회
	[임영호 의원] 이자제한법 개정안 - 상한금리 연30%로 인하	법무부
2011년	**[김부겸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상한금리 연30%로 인하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정옥임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대부업자의 중개관련 손해배상책임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임영호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연30%로 제한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조배숙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채권추심법 적용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이범래 의원] 이자제한법 개정안 - 상한금리 연30%로 인하	국회 법사위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박병석 의원] 이자제한법 개정안 - 상한금리 30%로 인하	국회 법사위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박선숙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상호저축은행 이자율 연30%로 제한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 상한금리 연 39%로 인하	금융위원회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개정안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5%)	금융위원회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 과잉대부기준 300만원으로 인하 - 광고시 주의문구 게재 등	금융위원회 국무총리실
	[이범래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3%)	금융위원회
2012년	**[양승조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여신금융기관 대출모집인의 대부중개업 등록	금융위원회
	[김기준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상한금리 30%로 인하	금융위원회
	[김학용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금융감독원의 불법추심행위 정기검사	금융위원회
	[강기윤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여신금융기관 오인 상호·표현 사용 금지	금융위원회
	[이재영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대부업 실태조사결과 관보 및 인터넷 공개	금융위원회
	[홍종학 의원] 채권추심법 개정안 -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시 연락 금지	법무부
	[서영교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미등록대부업자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금융위원회
	[정부 발의] 대부업법 개정안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5% 상한)	금융위원회
	[박성호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300만원 이하 대출도 소득증명자료 징구	금융위원회
	[노회찬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상한금리 연20%로 인하	금융위원회
	[참여연대] 대부업법 개정안 - 상한금리 연20%로 인하(이자제한법 준용)	금융위원회
	[서영교 의원] 채권추심법 개정안 -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시 연락 금지	법무부

3) 제도 개선 건의

설립 이래 지금까지 협회에서는 대부업권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표 59〉와 같은 제도 개선 관련 건의를 유관기관에 제출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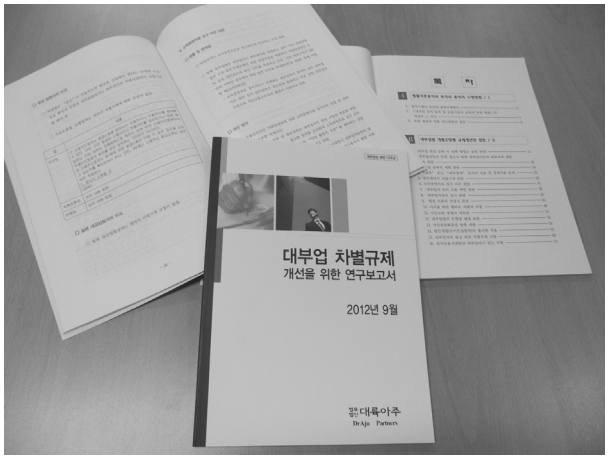
〈표 59〉 제도 개선 건의 현황

제출연도	제안 내용	제출처
200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건의안	공정거래위원회
2010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건의안	공정거래위원회
2011년	“소비자금융업법” 법 명칭 개정 건의서	이진복 의원, 금융위원회
	대부업 규제 개선 건의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 건의서	행정안전부
	대부중개인 감독체계 개선 건의서	권익위원회
	기업현장 애로 개선 건의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대부업 규제개선 건의서	상공회의소
2012년	기업현장 애로 개선 건의안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현장 애로 개선 건의안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불법사채 척결 방안 건의	국무총리실
	불법사채 광고 전화번호 사용정지 건의	방통위, 금융위원회
	대부업 업무위탁 건의	서울시 민생경제과
	대부업 제도개선 건의	서울시 민생경제과
	대부업 제도개선 건의	새누리당 박민식의원실

4) 차별규제 개선 건의

(1) 개요

협회에서는 건전한 대부업체의 영업을 규제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긴급생활자금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부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외에 20개 회원사 법무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부금융업 차별규제 철폐를 위한 TFT"를 발족하고 차별조항을 발췌하는 한편 대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컨설팅을 의뢰하고 의뢰한 내용은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라는 명칭으로 발행이 되었다. 발행된 보고서는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으며 배포한 유관기관은 〈표 60〉과 같다.



▲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

(2) 내용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는 다른 금융기관들에 비해 대부업권에 불합리하게 차별 적용되는 법령의 규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국의 대부업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비교하고 대부업과 관련된 논문이나 도서, 정부의 문서 등을 토대로 검토한 후 일본의 대금업법과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작성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대부업 변경 등록 시 전체 영업소 등록 관련 사항과 대부업자 등의 등록 갱신 시 대형 대부업자 등의 대표자에 대한 교육 관련 사항, 대부업 등록 제한 관련 사항,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문자의 강제 사용 관련 사항, 대부계약서 자필기재 관련 사항, 소득증명자료 징구 의무 관련 사항, 대부업자 등의 고용 제한 관련 사항, 검사 관련 사항, 행정처분의 적정성 관련 사항, 이자율 위반 행위의 차별적 처벌, 자금조달 방법의 명문화, 대부업법의 은행법 배제 조항,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제한, 법인세법(손비인정범위)의 불리한 적용, 대부업자의 광고 관련 차별규제 사항, 전자금융거래법상 대부업자가 받는 차별 등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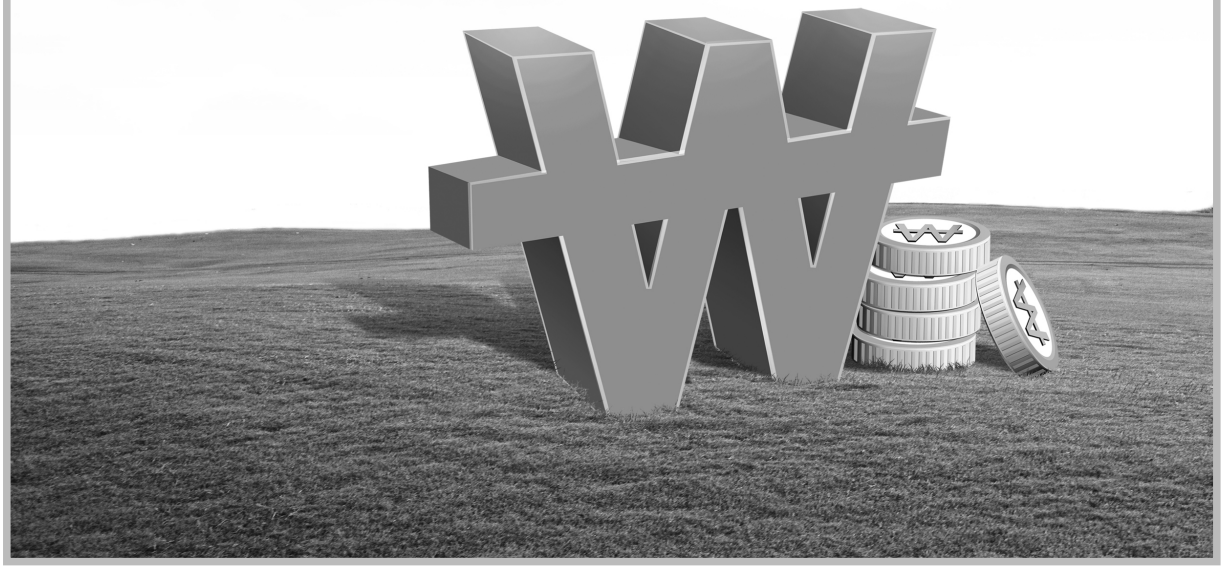
〈표 60〉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 배포 현황

배 포 처	
금융당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 회	입법조사처, 정무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국정운영실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기획조정실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단
연구소	여의도 연구소, 민생경제정책연구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금융소비자원 등 다수
학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원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인하대학교, 경희대학교, 선문대학교, 단국대학교, 한양대학교, 부경대학교
언론계	mbn, 뉴시스, 서울경제TV, 헤럴드경제, SBSCNBC, 경향신문, 뉴스핌, 대한금융신문,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서울파이낸스,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투데이, 조선비즈, 파이낸셜뉴스, 한국금융신문, 토마토TV
회원사	

제2편
대부업계 현황

제1장 대부업 시장 현황

제2장 회원사 현황



제1장 대부업 시장 현황

서민금융 활성화와 불법사채업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의장인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대부업정책협의회에서는 2007년 6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반기별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대부업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1. 등록업체 수 추이

1) 개요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2009년 12월 말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 수를 정리해 보았다. 우선 업종별 현황의 경우 대부업만 등록한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만 등록만 대부중개업체 그리고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대부 및 중개업체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대부업 등록을 한 총 대부업체 수는 대부업체 수에 대부 및 중개업체수를 가산해야 하며, 중개업 등록을 한 총 중개업체 수는 중개업체 수에 대부 및 중개업체수를 가산해야 한다.

2) 업종별 등록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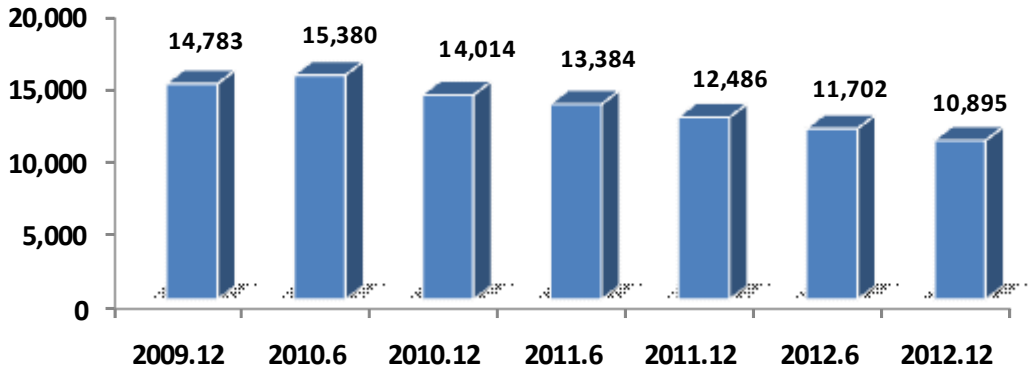
2010년 6월말 이후 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업 양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2년 대부업법이 시행되고 음성대부업체가 등록을 하게 되면서 등록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었다. 하지만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66%였던 대부업법의 최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등록업체 수가 감소를 거듭하여 2012년 12월말에는 2010년 6월말 대비 29%가 감소하였다.

〈표 61〉 업종별 등록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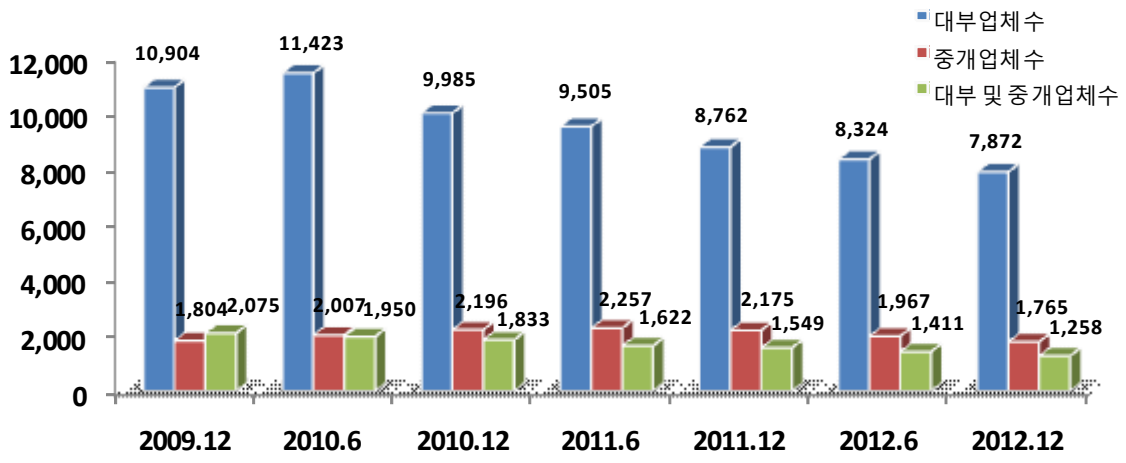
(단위 : 개)

구분	2009년 12월말	2010년 6월말	2010년 12월말	2011년 6월말	2011년 12월말	2012년 6월말	2012년 12월말
대부업체수	10,904	11,423	9,985	9,505	8,762	8,324	7,872
중개업체수	1,804	2,007	2,196	2,257	2,175	1,967	1,765
대부 및 중개업체수	2,075	1,950	1,833	1,622	1,549	1,411	1,258
총 업체 수	14,783	15,380	14,014	13,384	12,486	11,702	10,895

〈그림 10〉 총 등록업체 수 추이



〈그림 11〉 업종별 등록업체 수 추이



3) 규모별 등록업체 현황

대부업체와 중개업체를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고 법인은 다시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과 100억원 미만으로 구분하였다. 단, 2009년 12월 말의 경우에는 자산 70억원 이상과 70억원 미만으로 구분하여 조사했지만 편의상 표기를 생략하고 자산 100억원 이상과 100억원 미만에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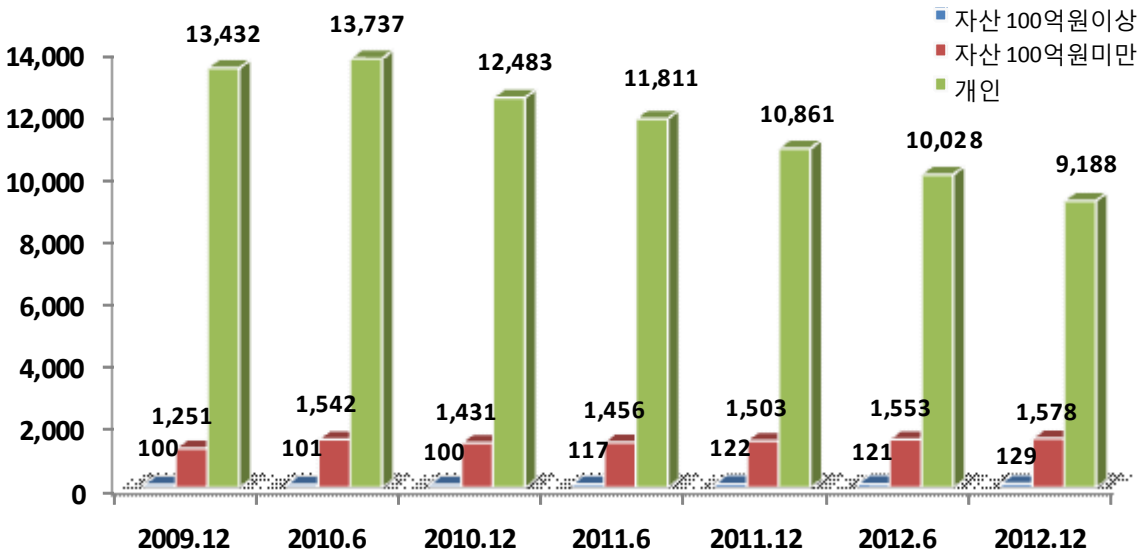
2010년 6월말 이후 개인 업체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속적인 이자율 인하와 규제 강화로 영업환경이 악화되자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규모 업체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62> 규모별 등록업체 현황

(단위 : 개)

구분	2009년 12월말	2010년 6월말	2010년 12월말	2011년 6월말	2011년 12월말	2012년 6월말	2012년 12월말
법인	1,351	1,643	1,531	1,573	1,625	1,674	1,707
자산 100억원 이상	100	101	100	117	122	121	129
자산 100억원 미만	1,251	1,542	1,431	1,456	1,503	1,553	1,578
개인	13,432	13,737	12,483	11,811	10,861	10,028	9,188
총 업체 수	14,783	15,380	14,014	13,384	12,486	11,702	10,895

〈그림 12〉 규모별 등록업체 수 추이



2. 규모별 거래자 현황

대부업자 등은 대부업법 제12조 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보고서를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기준일 다음 달 말일 즉 7월 31일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도 이와 관련하여 대부업법 제16조에 따라 대부업자 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조사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영업실태 조사가 앞에서 언급한 대부업 실태조사이다.

하지만 등록을 하고서도 영업실태를 보고하지 않는 대부업체도 있으며,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대출 잔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작성 오류가 심한 업체는 제외되기 때문에 대부업 실태조사가 등록한 대부업체 전체의 실적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우선 전체 대부업 거래자를 살펴보면 2009년 3월말 143만명이었던 거래자가 2011년말에는 252만명으로 109만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무려 76%나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거래자 수도 2012년도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감소했다.

규모별 대부업 거래자를 살펴보면 전체 대부업 거래자 중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2년의 경우 전체 대부업 거래자 중 91%가 100억원 이상 법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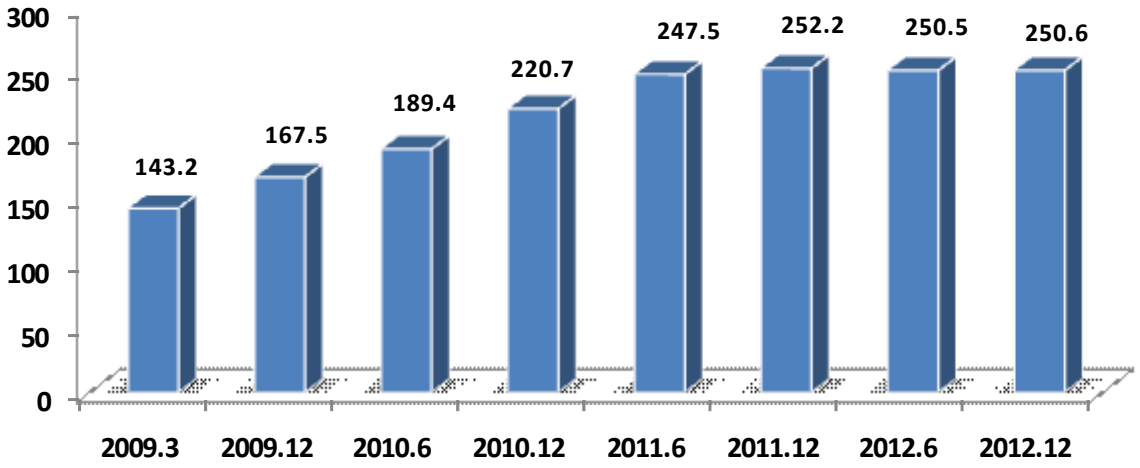
〈표 63〉 규모별 대부업 거래자 현황

(단위 :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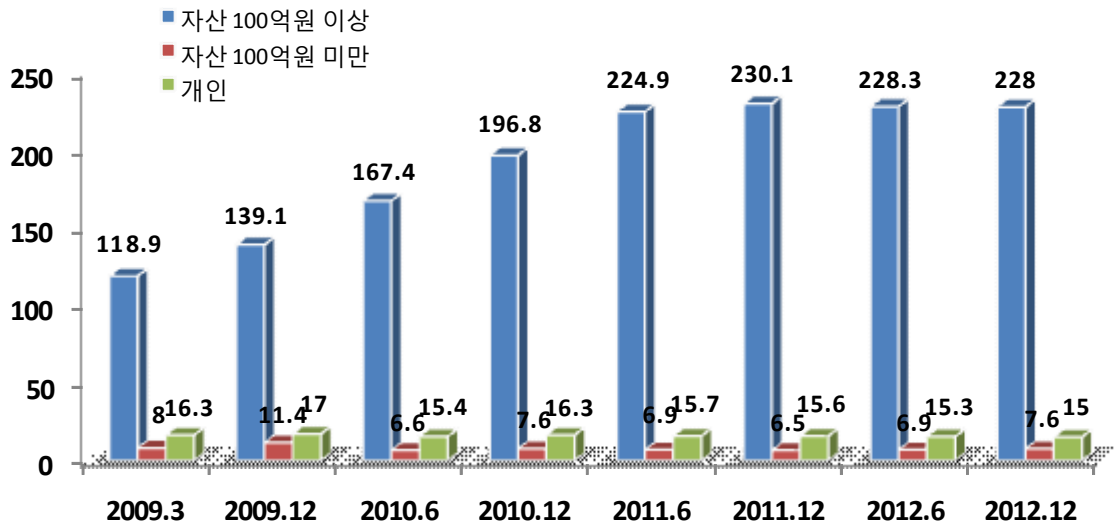
구분		2009년 3월말	2009년 12월말	2010년 6월말	2010년 12월말	2011년 6월말	2011년 12월말	2012년 6월말	2012년 12월말
법인		126.9	150.5	174.0	204.4	231.8	236.6	235.2	235.6
	자산 100억원 이상	118.9	139.1	167.4	196.8	224.9	230.1	228.3	228.0
	자산 100억원 미만	8.0	11.4	6.6	7.6	6.9	6.5	6.9	7.6
개인		16.3	17.0	15.4	16.3	15.7	15.6	15.3	15.0
총 거래자 수		143.2	167.5	189.4	220.7	247.5	252.2	250.5	250.6

※ 2009년의 경우 자산 70억원 이상과 자산 70억원 미만

〈그림 13〉 대부업 거래자 수 추이



〈그림 14〉 규모별 대부업 거래자 수 추이



3. 대출 잔액 현황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출 잔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거래자수 추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대부업 시장은 2011년 12월말 기준 대출 잔액이 8조 7천억원에 이르는데 이후 2012년도에 들어서면서 감소하기 시작해 6월말 기준 8조 4천억원으로 감소한다.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라 해당 회사가 대출을 축소하였고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영업 환경이 악화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인 대출 잔액 추이를 살펴보면 법인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이 개인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 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특히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의 대출 잔액은 2012년 12월말 기준 7조 5천억원으로 전체 대출 잔액의 87%를 차지했다. 대출 형태별 대출 잔액을 살펴보면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신용대출이 7조 3천억원으로 전체 대출 잔액의 84%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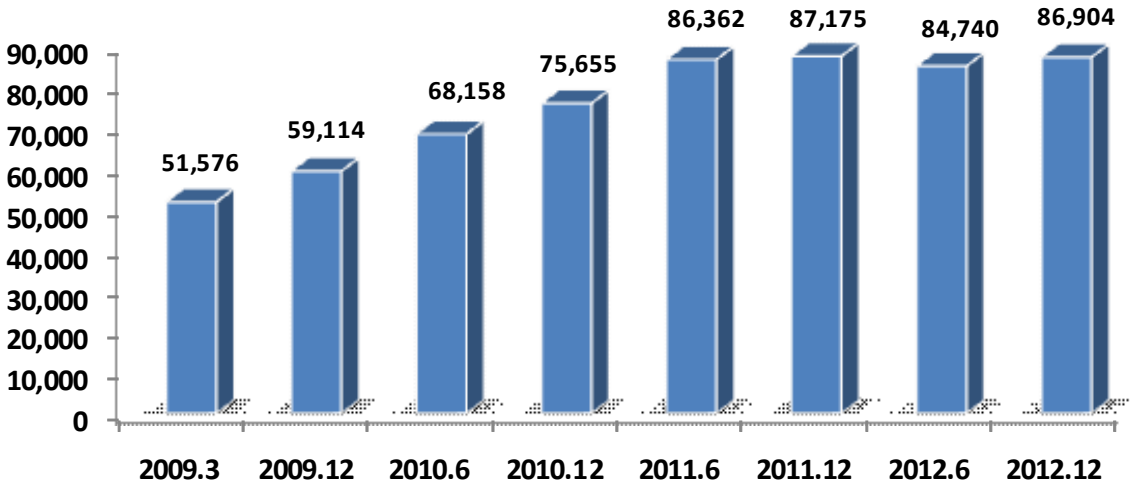
<표 64> 규모별 대출 잔액 현황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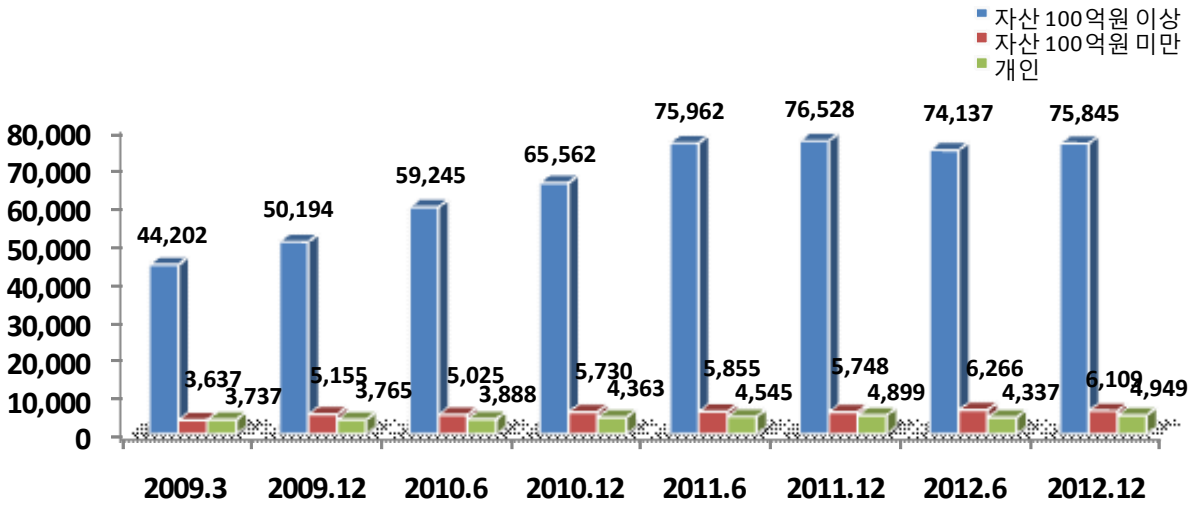
구분		2009년 3월말	2009년 12월말	2010년 6월말	2010년 12월말	2011년 6월말	2011년 12월말	2012년 6월말	2012년 12월말
법인		47,839	55,349	64,270	71,292	81,817	82,276	80,403	81,954
	자산 100억원 이상	44,202	50,194	59,245	65,562	75,962	76,528	74,137	75,845
	자산 100억원 미만	3,637	5,155	5,025	5,730	5,855	5,748	6,266	6,109
개인		3,737	3,765	3,888	4,363	4,545	4,899	4,337	4,949
총 대출 잔액		51,576	59,114	68,158	75,655	86,362	87,175	84,740	86,904

※ 2009년의 경우 자산 70억원 이상과 자산 70억원 미만

<그림 15> 총 대출 잔액 추이



<그림 16> 규모별 대출 잔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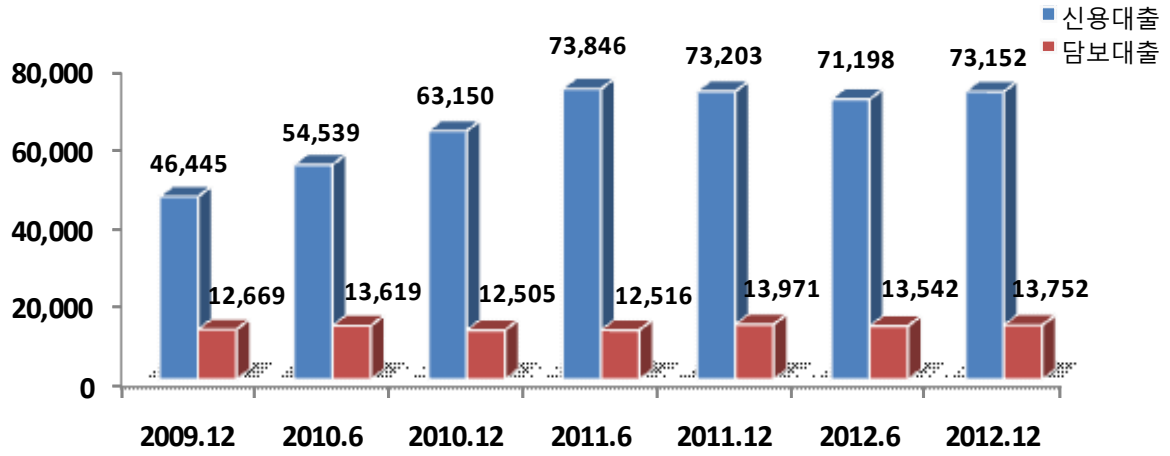
<표 65> 대출 형태별 잔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12월말	2010년 6월말	2010년 12월말	2011년 6월말	2011년 12월말	2012년 6월말	2012년 12월말
신용대출	46,445	54,539	63,150	73,846	73,203	71,198	73,152
담보대출	12,669	13,619	12,505	12,516	13,971	13,542	13,752
총 대출 잔액	59,114	68,158	75,655	86,362	87,175	84,740	86,904

※ 2009년의 경우 자산 70억원 이상과 자산 70억원 미만

<그림 17> 대출 형태별 잔액 추이



4. 대부중개업 현황

1) 개요

대부중개업이란 금전 대부를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중개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대부업법이 2009년 1월 개정되기 전까지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구분하지 않아 대부업 등록만으로도 대부중개가 가능하였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부중개업체는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직접 받게 되었다.

대부업체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그 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중개업체 수는 비교적 변동 폭이 적은 편이다.

대부업과 겸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체까지 포함한 총 중개업체 수는 전 페이지에 기재된 〈표 61〉을 참조할 경우 2009년 12월말 기준 3,879개사에서 2012년 12월말 기준 3,023개사로 22% 감소했다.

〈표 66〉 대부중개업체 현황의 경우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의 실적을 정리한 관계로 전체 대부중개시장의 실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개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 업체의 실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업 시장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66〉 대부중개업체 현황

(단위 : 개, 건, 억원, %)

구분	2009년 12월말	2010년 6월말	2010년 12월말	2011년 6월말	2011년 12월말	2012년 6월말	2012년 12월말
중개업체수	772	868	914	1,017	1,025	793	800
중개건수	250,814	136,205	328,227	440,219	35.8	47.3	52.5
중개금액	7,479	4,976	11,565	14,966	14,578	16,099	22,007
수입수수료	454	270	707	922	858	996	1,349
수수료율	6.1	5.4	6.1	6.2	6.2	6.2	6.1

※ 중개업체수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중개업체 수를 말하며, 중개건수의 경우 2011년 12월말 이후부터는 만건으로 표기

2) 대부중개건수

세부적인 항목별로 대부중개업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대부중개건수 추이의 경우 2011년 12월말부터 건수를 표기하는 방식이 만건으로 변경이 되어 이전 자료와 단위 표기가 다른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중 2009년 12월말 자료의 경우에는 상위 10개 업체를 따로 구분하지 않은 관계로 공란으로 처리했다.

<표 67> 대부중개건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9년 12월말	2010년 6월말	2010년 12월말	2011년 6월말	2011년 12월말	2012년 6월말	2012년 12월말
법인	225,891	98,231	290,154	379,104	30.0	41.4	46.2
상위 10개 업체		7,903	238,626	235,127	20.8	28.2	17.6
개인	24,923	37,974	38,073	61,115	5.8	5.9	6.3
총계	250,814	136,205	328,227	440,219	35.8	47.3	52.5

※ 2011년 12월말 이후부터는 중개건수를 만건으로 표기

3) 대부중개금액

2012년 12월말 기준 중개금액은 2조 2,007억원으로 2009년 12월말 보다 무려 1조 4천억원 정도가 증가했다.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대부 잔액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2011년 12월말에 중개금액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상승할 경우 직접 채널보다는 대부 이용자 선별이 용이한 대부중개업체를 통한 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2012년 6월말에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중개금액을 영업형태별로 살펴보면 개인 중개업체 보다 법인 중개업체의 중개금액이 월등히 많으며 그 중에서도 상위 10개 중개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2012년 12월말 기준 50%에 이른다.

〈표 68〉 대부중개금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12월말	2010년 6월말	2010년 12월말	2011년 6월말	2011년 12월말	2012년 6월말	2012년 12월말
법인	6,131	3,435	9,461	12,397	10,926	13,069	19,163
상위 10개 업체		2,643	6,803	8,284	7,359	7,986	11,076
개인	1,348	1,541	2,104	2,569	3,652	3,030	2,844
총계	7,479	4,976	11,565	14,966	14,578	16,099	22,007

4) 대부중개업 수입수수료

수입수수료의 경우도 영업형태별로 살펴보면 중개금액과 동일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상위 10개 중개업체의 수입수수료가 전체 수입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12년 12월말 기준 상위 10개 중개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51%로 절반을 넘어섰다.

〈표 69〉 대부중개업 수입수수료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12월말	2010년 6월말	2010년 12월말	2011년 6월말	2011년 12월말	2012년 6월말	2012년 12월말
법인	404	216	632	811	719	835	1,204
상위 10개 업체		179	494	554	516	542	694
개인	50	54	75	111	139	161	145
총계	454	270	707	922	858	996	1,349

〈표 70〉 대부중개수수료율 추이

(단위 : %)

구분	2009년 12월말	2010년 6월말	2010년 12월말	2011년 6월말	2011년 12월말	2012년 6월말	2012년 12월말
법인	6.6	6.3	6.7	6.5	6.6	6.4	6.3
상위 10개 업체		6.8	7.3	6.7	7.0	6.8	6.3
개인	3.7	3.5	3.6	4.3	3.8	5.3	5.1
총계	6.1	5.4	6.1	6.2	6.2	6.2	6.1

제2장 회원사 현황

본 백서 제작을 위해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회원사 현황을 파악하고자 2013년 5월부터 6월까지 조사한 결과 170개 회원사가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회원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사 수 추이

1) 영업형태별 회원사수 추이

협회 창립 시 68개사였던 회원사는 이후 396개의 대부금융사가 신규 가입하였으나, 그 중 213개 회원사가 영업부진과 폐업 등의 사유로 협회를 탈회하여, 실제 순수하게 증가한 회원사는 창립일 이후 183개사에 이르고 있다. 특히, 담보대출업체나 대부중개업체의 경우 영업부진과 대부업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채권추심(자산관리)업체의 수는 2012년 사이 급증하였다. 채권추심업체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채권추심업체의 규모가 대부분 자산 100억원 이상이 넘는 의무가입 대상업체이기 때문이다.

<표 71> 연도별 회원사 추이

(단위 : 개)

구분 \ 연도	창립시 (2009.05)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신용대출	39	84	93	99	105
담보대출	24	58	58	47	42
대출중개	4	14	31	30	26
채권추심	1	3	10	19	49
겸 업	-	-	25	27	29
합 계	**68**	**159**	**217**	**222**	**251**

※ 겸업사 : 대부업 이외의 유통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회사로 실제 대부업의 영업수익 보다 타 업종의 매출액이 큰 회사를 말한다.

2) 의무가입 및 자율가입업체 추이

의무가입업체란 대부업 법령에 의해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체를 말하며, 해당 의무가입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예외 없이 가입하여야 한다. 반대로 자율가입업체란 법령과 관계없이 협회에 자율적으로 가입한 업체를 말한다. 2012년도말 기준 대부업 법령에 의해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체는 〈표 73〉과 같다.

〈표 72〉 가입의사별 회원사 추이

(단위 : 개)

구분 \ 연도	창립시 (2009.05)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의무	12	68	77	84	121
자율	56	91	140	138	130
합계	**68**	**159**	**217**	**222**	**251**

※ 협회 의무가입업체 기준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이상이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법인인 대부업자등이 2 이상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표 73〉 협회 의무가입 대상 업체 현황[11)]

(단위 : 백만원, 명)

	회사명	총자산	대출 잔액	거래자수
1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1,602,901	1,477,366	457,090
2	산와대부㈜	1,085,918	1,209,912	402,777
3	웰컴크레디라인대부㈜	526,068	480,451	219,723
4	㈜리드코프	398,283	337,513	102,844
5	㈜바로크레디트대부	345,011	306,099	108,293
6	㈜그린씨앤에프대부	326,646	271,655	36
7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유)	243,778	250,458	94,879

11) 2012년도말 기준 협회 의무가입 대상 업체 현황이며, 이 업체들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이기도 하다.

8	㈜태강대부	253,068	247,738	78,177
9	㈜미즈사랑대부	152,533	174,849	66,622
10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172,905	164,655	64,962
11	원캐싱대부㈜	151,641	163,438	69,353
12	하이캐피탈대부㈜	160,914	159,028	58,924
13	㈜스타크레디트대부	143,496	141,346	47,938
14	㈜콜렉트대부	131,539	136,614	65,963
15	밸류대부모기지(유)	106,394	120,127	485
16	애니원캐피탈대부㈜	97,708	95,711	37,787
17	동양파이낸셜대부㈜	284,629	86,692	1,831
18	㈜기협기술금융대부	77,050	74,065	149
19	현대기업금융대부㈜	198,017	72,319	7
20	앤알캐피탈대부㈜	84,389	71,456	32,069
21	㈜에이원대부캐피탈	71,951	68,410	23,500
22	㈜미래크레디트대부	69,448	68,007	20,395
23	㈜머니라이프대부	70,377	66,574	21,746
24	남양유업㈜	1,026,636	61,944	155
25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67,833	58,163	22,156
26	㈜밀리언캐쉬대부	59,049	58,141	19,512
27	㈜위드캐피탈대부	68,996	57,473	17,347
28	㈜베르넷크레디트대부	60,156	56,596	23,563
29	㈜하트캐싱대부	55,053	56,367	26,580
30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60,871	54,703	22,843
31	㈜서울코스모홀딩스대부	35,676	52,740	52
32	시스코시스템즈캐피탈코리아(유)	189,128	52,339	18
33	㈜엘하비스트대부	53,380	50,821	18,756
34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49,708	46,801	16,815
35	베스트캐피탈대부㈜	50,525	44,068	16,775
36	㈜유아이크레디트대부	41,801	42,610	14,816
37	㈜액트캐쉬대부	39,269	40,759	16,243
38	지이리얼에스테이트	403,974	40,000	1

39	대부헬로우크레디트㈜	41,106	37,391	17,138
40	㈜강남캐피탈대부	30,262	28,390	1,909
41	대산대부㈜	27,613	27,523	7,250
42	㈜굿타이밍대부	25,328	24,887	11,788
43	㈜동그라미대부	22,484	23,720	6,135
44	㈜인터머니대부	40,676	23,156	6,949
45	㈜부영대부파이낸스	21,969	22,260	4
46	㈜티에스신용투자대부	25,716	21,176	13
47	유앤아이대부㈜	170,021	21,000	1
48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	20,649	20,190	4,166
49	아리엘에셋대부(유)	26,859	19,841	48
50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21,302	19,410	7,610
51	해피크레디라인대부㈜	18,144	18,119	1,808
52	㈜굿이에프대부	18,953	17,850	257
53	㈜굿모닝캐피탈대부	15,635	17,477	4,475
54	(유)엠펀드대부	16,919	16,800	10
55	㈜케이씨피드	98,296	16,409	17
56	포항수질환경대부(유)	13,709	13,616	2
57	㈜산호씨앤디대부	26,078	12,690	0
58	태정에이엠씨대부㈜	2,400	12,584	5,896
59	세경파이낸스대부㈜	18,528	12,537	31
60	나라대부금융㈜	13,540	12,209	42
61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	12,689	12,098	5,635
62	㈜서울옥션	67,565	11,015	23
63	머스트원캐피탈대부㈜	10,186	10,950	633
64	㈜케이티렌탈	1,674,714	10,454	46
65	㈜칸도인베스트먼트대부	10,832	10,179	3,720
66	㈜마샬플랜대부	9,988	9,863	3,667
67	비앤씨건설대부㈜	9,731	9,731	12
68	와이앤금융파트너스대부㈜	14,323	8,794	1,231
69	㈜케이옥션	19,008	8,418	24

70	㈜케이지코퍼레이션대부	7,716	8,284	2,547
71	경동흥업㈜	50,552	7,872	2
72	행복파트너스대부	29,594	7,792	67
73	동원산업㈜	984,423	7,490	22
74	㈜태산대부	6,930	7,130	2,069
75	씨앤브이투자대부㈜	11,737	7,084	865
76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	14,682	6,117	1,890
77	원캐피탈대부㈜	6,198	5,913	2,708
78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대부	16	5,558	1,645
79	㈜메리티지대부	5,483	5,342	1,709
80	㈜다우파트너스대부	4,454	5,010	1,663
81	㈜케이아이코아즈대부	12,544	4,915	2,530
82	한흥물산㈜	112,493	4,404	3
83	㈜처음앤씨	42,757	3,367	11
84	㈜에이모션	42,321	3,143	4
85	㈜부일기업	17,445	2,854	5
86	㈜팬택씨앤아이	65,290	2,811	47
87	㈜흥진	52,098	2,794	8
88	신우에너지㈜	70,771	1,555	924
89	엘케이파트너스대부(유)	37,441	1,200	1
90	선만대부통상㈜	14,617	1,190	8
91	㈜귀뚜라미홈시스	307,581	984	5
92	나이스제1차대부(유)	7,227	924	1
93	부산상조㈜	107,210	904	969
94	윈앤원파트너스대부㈜	7,466	761	32
95	케이앤엘대부투자㈜	8,454	746	6
96	아주렌탈	243,646	595	2
97	한라상조	95,836	505	21
98	㈜구구스영남	1,300	391	139
99	㈜한국리치캐피탈대부	288	263	13
100	남정개발㈜	30,990	165	9

101	동원냉장㈜	53,808	159	2
102	㈜예스코	835,232	29	14
103	롯데쇼핑㈜	24,802,591	20	5
104	㈜나이스대부	19,231	17,973	
105	대부에스엔비	12,735	9,473	
106	대부테크(유)	18,088	-	
107	㈜동영콜드프라자	53,449	655	
108	디에이치대부(유)	11,776	8,814	
109	디엔피에이엠씨대부㈜	15,673	1,202	
110	라미드에이치엠㈜	32,997	397	
111	라온에셋대부(유)	40,633	38,336	
112	멘토르대부일차(유)	11,425	-	
113	삼정인베스트먼트대부㈜	45,813	48,913	
114	스카이대부	20,571	-	
115	신용회복기금	821,037		
116	㈜아이엔비자산관리대부	11,798	9,220	
117	에스플러스자산관리대부(유)	31,666	37,276	
118	㈜엑시아아이비대부	14,772		
119	㈜엘씨대부	15,749	1,402	
120	엠메이드대부(유)	15,830	10,430	
121	예스캐피탈대부㈜	75,587	14,336	
122	㈜온누리에스엔씨대부	13,751		
123	와이케이대부㈜	15,113	18,892	
124	이든에셋대부(유)	14,810	14,397	
125	이오스제이차자산관리대부	12,923	12,854	
126	이오스제일차자산관리대부	16,764	16,661	
127	정일자산관리대부㈜	17,583	-	
128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14,935	-	
129	지에이에셋대부(유)	13,912	10,253	
130	㈜캠코브이알대부금융	167,306		
131	케이제이대부	18,651	18,145	

132	㈜코리아인포메이션서비스자산관리대부	14,289	1,511	
133	코어자산관리대부㈜	27,944	–	
134	큐브자산관리대부㈜	28,727	13,553	
135	㈜티에스홀딩스대부	10,300		
136	티와이머니대부㈜	42,229	41,699	
137	프리머스아이비대부(유)	13,911	5,200	
138	피아이에이엔피엘4차대부(유)	30,525	90	
139	(유)피엔지에셋대부	16,699	23,622	
140	한국아이비엠㈜	832,253		
141	한마음금융㈜	42,034		
142	한미에프앤아이대부㈜	15,544	8,254	
143	㈜현대베리타스투자3호대부	11,003	10,490	
144	(유)한성에셋대부	8,366	13,335	
145	그린에셋대부(유)	8,856	8,647	
146	피아이에이엔피엘2차대부(유)	8,210	–	
147	피아이에이엔피엘5차대부(유)	9,545	–	
148	이머니코리아대부중개㈜	187	–	
149	유니애대부(유)	7,644	9,154	
150	(유)블루버드대부	8,207	7,974	
151	아이앤씨코리아리미티드대부중개㈜	116	–	
152	㈜피앤에이치글로벌대부	2,341	814	
153	㈜오케이엔캐시대부중개	60	–	
154	에스앤케이파머스대부㈜	6,146	2,443	
155	㈜에이스커뮤니케이션대부중개	149	–	
156	㈜대부해나올	7,286		
157	디에이치대부(유)	8,819	8,814	
158	㈜와이엔디파트너스대부	7,047	6,806	
159	㈜새한자산대부평가관리	7,676	6,932	
160	㈜가온인베스트먼트대부	7,142		
161	㈜씨유대부중개	827	–	
162	㈜엘엔지크레디트대부중개	471	–	
163	㈜옥타대부자산관리	4,877		

※ 채권추심회사 및 중개회사와 같이 대출 잔액이 없는 업체는 “–”로 표시

3) 대출 잔액 규모별 회원사수 추이

협회 창립 이후 대출 잔액 1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회원사는 14개사에 이른다. 이 중 그린씨앤에프대부를 제외한 13개 회원사가 소액 신용대출을 주업으로 하는 회원사이다. 창립 초기 5백억원 이상의 회원사(1천억원 업체 포함)는 8개 업체였으나 2012년 12월 현재 25개사에 이르고 있다.

<표 74> 대출잔액 규모별 회원사 추이

(단위 : 개)

구분 \ 연도	창립시 (2009.05)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천억원 이상	4	7	9	12	14
5백억원 ~ 1천억원	4	5	7	7	11
1백억원 ~ 5백억원	30	33	34	36	32
1백억원 이하	30	114	167	167	194
합 계	**68**	**159**	**217**	**222**	**251**

4) 유형별 추이(개인/법인)

협회 소속 회원사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할 경우 <표 75>와 같이 개인업체의 수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법인업체 수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지속적인 규제 강화와 대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대부업계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었고 특히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대부업체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75〉 유형별 회원사 추이

(단위 : 개)

구분 \ 연도	창립시 (2009.05)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개인	12	34	52	42	34
법인	56	125	165	180	217
합계	**68**	**159**	**217**	**222**	**251**

2. 회원사 점포 현황

〈표 76〉의 회원사 점포 현황은 251개 회원사 중 본 백서 제작을 위해 자료를 제출한 170개 회원사의 본점 및 지점의 현황이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사의 점포를 1업체당 1개 점포로 가정한다면 최소 442개의 회원사 점포가 운영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76〉 회원사 점포 현황

(단위 : 개)

지역명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라	대전 충청	강원	제주	합계
점포수	184	55	45	21	23	25	5	3	361

※ 본점 포함 기준

3. 회원사 종업원 현황

251개 회원사 중 본 백서 제작을 위해 자료를 제출한 170개 회원사의 종업원 현황을 직급과 고용형태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70개 회원사에 총 6,175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이 전체의 8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중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12]이 2011년 8월 기준 65.8%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부 금융업권의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2) 2012년판 고용노동백서 중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참조

〈표 77〉 직급별 회원사 종업원 현황

(단위 : 명, %)

직급	사원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합계
인원	3,315	968	878	454	171	105	284	6,175
비율	53.7	15.6	14.2	7.3	2.7	1.7	4.5	100

※ 단, 겸업사의 경우 대부업 담당자만 포함

〈표 78〉 고용형태별 회원사 종업원 현황

(단위 : 명, %)

직급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합계
인원	5,046	768	361	6,175
비율	81.8	12.4	5.8	100

※ 단, 겸업사의 경우 대부업 담당자만 포함

4. 회원사 현황

2013년 6월말 기준 256개 회원사 현황은 〈표 79〉와 같으며, 업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표 79〉 회원사 현황

◎ 신용대출

NO	회원번호	회사명	대표	협회 가입일
1	A00001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최윤	2009-04-30
2	A00002	산와대부㈜	이동신	2009-04-30
3	A00003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손종주	2009-04-30
4	A00006	원캐싱대부㈜	심상돈	2009-04-30
5	A00007	㈜바로크레디트대부	김충호	2009-04-30
6	A00009	㈜태강대부	라영배	2009-04-30
7	A00010	㈜위드캐피탈대부	김정환	2009-04-30
8	A00013	㈜머니라이프대부	김경조	2009-04-30

9	A00014	㈜하트캐싱대부	이문경	2009-04-30
10	A00015	㈜스타크레디트대부	강상훈	2009-04-30
11	A00016	㈜유아이크레디트대부	강영훈	2009-04-30
12	A00017	㈜밀리언캐쉬대부	강길훈	2009-04-30
13	A00019	대부헬로우크레디트㈜	정명웅	2009-04-30
14	A00020	㈜미래크레디트대부	나카무라마사키	2009-04-30
15	A00021	㈜에이원대부캐피탈	주환곤	2009-04-30
16	A00022	하이캐피탈대부㈜	경세영	2009-04-30
17	A00023	㈜액트캐쉬대부	강동길	2009-04-30
18	A00024	㈜콜렉트대부	나카무라 히데토시	2009-04-30
19	A00028	㈜엘하비스트대부	김상수	2009-04-30
20	A00029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쿠니모토 마사히로	2009-04-30
21	A00030	앤알캐피탈㈜	김철우	2009-04-30
22	A00031	㈜굿타이밍대부	이정술, 나카무라분쿄	2009-04-30
23	A00049	㈜미즈사랑대부	정길호	2009-04-30
24	A00040	제이파이낸셜라인대부㈜	장영택	2009-04-30
25	A00042	㈜비컴콜렉션대부	나카무라마사키	2009-04-30
26	A00043	㈜아스리트대부	강상훈	2009-04-30
27	A00044	㈜유니크에프씨대부	박준경	2009-04-30
28	A00005	㈜리드코프	김철우	2009-05-12
29	A00046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	김성태, 오대강	2009-05-12
30	A00004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유)	양상흥	2009-05-13
31	A00008	㈜베르넷크레디트대부	히로세 타카유키	2009-05-14
32	A00011	동양파이낸셜대부㈜	김동훈	2009-05-15
33	A00026	㈜굿이에프대부	박병두	2009-05-15
34	A00047	㈜휴앤케이파트너스대부	김용호, 이대원	2009-05-21
35	A00037	㈜티에스신용투자대부	고덕희	2009-05-27
36	A00075	세경파이낸스대부㈜	심명규	2009-06-19
37	A00077	베스트캐피탈대부㈜	이경재	2009-06-22
38	A00071	㈜엠티인터내셔날아이앤시대부	배수환	2009-06-30
39	A00084	㈜서울코스모홀딩스대부	박성희	2009-07-02
40	B00015	신호금융대부	선도근	2009-07-02
41	A00090	㈜희망만드는사람들대부	김희철	2009-07-31

42	A00100	㈜굿모닝캐피탈대부	오대강	2009-10-01
43	A00101	㈜해피크레디라인	배석원	2009-10-05
44	A00120	트르머니대부금융㈜	안희영	2010-01-05
45	A00124	에비스대부㈜	이형대	2010-02-02
46	A00125	애니원캐피탈대부㈜	금영섭	2010-02-03
47	A00133	행복파트너스㈜	박현숙/승완수	2010-03-09
48	A00134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와타나베 타카시	2010-03-19
49	A00137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김재섭	2010-05-25
50	A00142	㈜태산대부	부동훈	2010-06-16
51	A00143	㈜더조은대부	조종인	2010-06-16
52	A00144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심형석	2010-06-17
53	A00152	㈜인터머니대부	김정환	2010-08-30
54	A00157	㈜성원앤대부	김성진	2010-09-15
55	A00159	㈜동그라미대부	이형열	2010-09-27
56	A00161	㈜미르코리아대부	오이시타카히로	2010-10-14
57	A00163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	김봉진	2010-11-01
58	A00175	㈜서울캐싱대부	장은정	2011-01-20
59	A00180	㈜아크코리아대부	장성길	2011-03-11
60	A00184	대산대부㈜	임병헌	2011-03-21
61	A00185	㈜굿프렌드대부	임정민	2011-03-22
62	A00186	㈜이지캐피탈대부	김영희	2011-03-24
63	A00196	㈜론케이대부	정정훈	2011-04-04
64	A00202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김미정	2011-04-26
65	A00203	㈜칸도인베스트대부	구태훈	2011-05-03
66	A00209	애플대부금융㈜	이영이	2011-06-28
67	A00211	㈜다우파트너스대부	강번구	2011-07-05
68	A00215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	김영석	2011-09-09
69	A00216	㈜서울기업금융대부	윤대병	2011-09-22
70	A00219	㈜에이비씨론대부	황지홍	2011-10-07
71	A00220	㈜템코파이낸스대부	오대강	2011-10-25
72	A00224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	남덕환	2012-02-10
73	A00227	㈜크라운홀딩스대부	이한영	2012-04-18
74	A00228	㈜에스아이파이낸스대부	박상익	2012-04-24

75	A00229	㈜마샬플랜대부	정민형	2012-04-30
76	A00231	㈜케이지코퍼레이션대부	김현영	2012-07-06
77	A00233	(유)엠펀드대부	정총자	2012-07-25
78	A00237	㈜엔씨캐피탈대부	허개천	2012-08-06
79	A00238	에이치유크레디트대부㈜	양석원	2012-08-07
80	A00247	㈜그린씨앤에프대부	신영천	2012-08-24
81	A00249	㈜씨엔에이대부	김철원	2012-08-24
82	A00267	㈜에이앤디대부	조태율	2012-09-25
83	A00272	㈜샤인캐피탈대부	송광용	2012-10-22
84	A00274	㈜안전대부	민경택	2012-10-29
85	B00100	투데이대부	조백구	2012-11-21
86	A00279	㈜위자드캐시앤캐시	채혜정	2012-12-06
87	A00281	㈜골든캐피탈대부	허개천	2012-12-14
88	A00285	케이제이머니대부㈜	이호식	2013-01-09
89	B00103	수호천사대부	강순주	2013-02-06
90	B00113	M.C기획대부	김장일	2013-03-29
91	A00297	㈜에이스파이낸셜대부	김진호	2013-04-08
92	B00115	더원대부	이경준	2013-05-10
93	A00303	㈜디케이대부	장동환	2013-05-22
94	B00116	유지대부캐피탈	김의겸	2013-05-27
95	A00304	㈜씨엠코퍼레이션대부	이주현	2013-05-29
96	A00307	㈜케이앤파이낸셜대부	임철우	2013-06-20
97	A00254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대부	강대호	2012-08-31

◎ 담보대출

NO	회원번호	회사명	대표	협회 가입일
1	A00027	㈜강남캐피탈대부	지흥진	2009-04-30
2	A00055	나라대부금융㈜	한택진	2009-04-30
3	A00057	오케이캐피탈대부㈜	이창원	2009-04-30
4	A00064	㈜에치제이인베스트먼트	김항주	2009-04-30
5	A00066	와이앤금융파트너스㈜	안희권	2009-04-30
6	A00058	유승산업대부㈜	허승빈	2009-04-30
7	A00061	㈜탑대부캐피탈	장주형	2009-04-30

8	A00069	㈜미래파트너스대부	문광주	2009-04-30
9	B00008	㈜아세아캐피탈대부금융	김영두	2009-04-30
10	B00014	G.M캐피탈대부	이종인	2009-04-30
11	A00052	현대기업금융대부㈜	김재근	2009-05-13
12	A00073	동아캐피탈대부㈜	김상진	2009-05-14
13	A00054	㈜부영대부파이낸스	이종혁	2009-05-18
14	B00007	성진베스트론대부	원종혁	2009-05-18
15	A00081	㈜에이트원대부	허수	2009-06-26
16	A00085	아리엘에셋대부(유)	정영수	2009-07-09
17	B00018	캐시바나나론대부	남태우	2009-07-30
18	A00107	목동에셋㈜대부	김용필	2009-10-22
19	A00116	㈜해방새대부	김해	2009-12-11
20	B00033	원흥전당포대부	조치훈	2010-01-05
21	A00140	㈜새한캐피탈대부	김공모	2010-06-11
22	B00046	강남파이낸스전당포대부	이원백	2010-06-22
23	B00054	노블캐쉬대부	이성형	2010-09-07
24	A00156	㈜한국리치캐피탈대부	박재찬	2010-09-14
25	B00058	굿모닝캐쉬대부	박성익	2010-12-01
26	A00171	케이비캐피탈대부㈜	김재문	2010-12-15
27	B00064	한일투자대출대부	심재경	2011-01-14
28	B00073	세이프캐시	김용진	2011-04-12
29	A00199	㈜채움캐피탈대부	나진영	2011-04-13
30	B00076	현대그린캐피탈대부	김근호	2011-06-10
31	A00213	㈜기협기술금융대부	김인철	2011-07-15
32	B00083	펀코리아대부	이수원	2011-11-28
33	B00089	펀아일랜드대부	장길태	2012-03-28
34	B00090	우신대부	성화순	2012-04-12
35	B00092	디오아시스대부	고영모	2012-05-03
36	A00232	㈜찬호론대부	김팔호	2012-07-13
37	A00265	윈앤원파트너스대부㈜	유재경	2012-09-22
38	A00278	㈜테미스캐피탈대부	김유미	2012-11-27
39	B00101	월드PF대부	소병근	2012-12-07
40	B00102	이티원대부	안동렬	2013-02-05
41	B00104	퍼스트캐시전당포대부	이정순	2013-02-06

42	B00105	제일사전당포대부	김영길	2013-02-06
43	B00106	강남명품전당포대부	서만금	2013-02-06
44	B00107	무지개사전당포대부	김병식	2013-02-06
45	B00108	대성사전당포대부	김길성	2013-02-06
46	B00109	청담명품전당포대부	윤길식	2013-02-06
47	B00110	미즈전당포대부	송금재	2013-02-06
48	B00111	엠에스파이넨스대부	김모세	2013-02-14
49	A00296	마더스대부㈜	신욱철	2013-04-08
50	B00114	JW캐피탈대부	김진석	2013-04-11
51	A00300	카네이션대부㈜	윤유진	2013-04-26

◎ 대출중개

NO	회원번호	회사명	대표	협회 가입일
1	C00009	㈜유니온에프씨대부	이승희	2009-10-15
2	C00012	한국이지론㈜	이상권	2010-01-07
3	C00018	㈜파워캐피탈대부중개	이제혁	2010-07-12
4	C00019	㈜몬키대부중개	최기정	2010-07-19
5	C00023	㈜비투비에스대부중개	이종록	2010-09-29
6	D00017	OPA대부중개	안상현	2011-02-17
7	C00028	㈜엔씨엘시스템대부중개	정환준	2011-04-11
8	C00029	㈜행복한세상대부중개	정병은	2011-04-25
9	C00034	㈜두리대부중개	김종성	2012-01-25
10	C00035	㈜KHO금호에셋대부	신성숙	2012-03-09
11	D00032	맥가이버대부중개	강병수	2012-04-23
12	C00036	㈜패러독스매니지먼트대부중개	윤성시	2012-05-02
13	C00037	㈜비엔에스컴퍼니대부중개	최윤석	2012-05-15
14	D00034	미소머니대부중개	박은성	2012-05-24
15	C00038	㈜코스모대부중개	임정민	2012-08-24
16	C00039	㈜오제이대부중개	원정재	2012-09-11
17	D00040	OK대부중개	황일창	2013-03-08
18	C00040	㈜엔씨에스대부중개	권지나	2013-06-17
19	C00041	㈜클래스대부중개	손덕일	2013-06-28

◎ 채권추심

NO	회원번호	회사명	대표	협회 가입일
1	A00012	예스캐피탈대부㈜	최호	2009-04-30
2	A00045	㈜케이아이코아즈대부	최영철	2009-04-30
3	A00051	㈜피앤에이치글로벌대부	김숙정	2009-05-11
4	A00123	씨앤브이투자대부㈜	노인영	2010-01-28
5	A00127	대부베이㈜	민상기	2010-02-16
6	A00158	㈜어프로치대부	강맹훈	2010-09-16
7	A00160	㈜나이스대부	나카무라히데토시	2010-10-14
8	A00162	㈜에프이푸른하늘대부	박슬기	2010-10-19
9	A00170	티와이머니대부㈜	김동훈	2010-12-10
10	A00177	와이케이대부㈜	이세윤	2011-01-31
11	A00178	㈜페어컬렉션대부	강경훈	2011-02-22
12	A00182	㈜오리온캐피탈대부	이상원	2011-03-17
13	A00183	웰릭스캐피탈대부㈜	금영섭	2011-03-17
14	A00187	㈜엘씨대부	김종건	2011-03-29
15	A00189	㈜씨씨콜렉션대부	나카무라분쿄	2011-03-30
16	A00198	에스앤케이파머스대부㈜	국종하	2011-04-07
17	A00207	디엔피에이엠씨대부㈜	강대현	2011-06-17
18	A00212	㈜로얄캐피탈대부	김민승	2011-07-11
19	A00217	서브코리아대부㈜	김성은	2011-09-26
20	A00225	㈜뱅가즈대부넷	권기태	2012-02-29
21	A00234	솔로몬에이엠씨대부㈜	김인건	2012-07-25
22	A00236	㈜현대베리타스투자3호대부	박정원	2012-07-31
23	A00239	큐브자산관리대부㈜	이도석	2012-08-10
24	A00240	㈜지오에셋대부	이도석	2012-08-10
25	A00241	㈜마이티에셋대부	김태윤	2012-08-10
26	A00242	(유)대부에스앤비	박세의	2012-08-17
27	A00243	피아이에이엔피엘2차대부(유)	김일윤	2012-08-17
28	A00245	유앤아이대부(유)	이종성	2012-08-17
29	A00246	㈜아이엔비자산관리대부	여인수	2012-08-23
30	A00250	프리머스아이비대부(유)	김종화	2012-08-24
31	A00251	그린에셋대부(유)	김진수	2012-08-31
32	A00252	나이스제1차대부(유)	김현수	2012-08-31

33	A00255	라온에셋대부(유)	강계흥	2012-08-31
34	A00256	지에이에셋대부(유)	이종성	2012-08-31
35	A00257	유니애대부(유)	이상철	2012-08-31
36	A00259	에스플러스자산관리대부(유)	염철호	2012-08-31
37	A00260	(유)한성파트너스대부	윤정현	2012-09-06
38	A00261	동서자산관리대부㈜	변동훈	2012-09-07
39	A00262	케이제이대부(유)	성수현	2012-09-07
40	A00263	코리아인포메이션서비스자산관리대부㈜	안상준	2012-09-10
41	A00264	엠메이드대부(유)	정미숙	2012-09-15
42	A00268	(유)블루버드대부	변정훈	2012-09-25
43	A00276	이오스자산관리제일차대부(유)	양정재	2012-11-23
44	A00277	이오스자산관리제이차대부(유)	양정재	2012-11-23
45	A00280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김규호	2012-12-06
46	A00282	지엠아이파트너스대부(유)	채수훈	2012-12-28
47	A00283	㈜씨앤지에셋코리아대부	채수훈	2012-12-28
48	A00284	㈜코로신대부	채수훈	2012-12-28
49	A00287	디에이치자산관리대부(유)	양정재	2013-01-23
50	A00289	와이티자산관리대부(유)	양정재	2013-02-01
51	A00290	이오스대부㈜	김구연	2013-03-08
52	A00292	㈜아이엠에셋대부	임흥순	2013-03-08
53	A00293	㈜멘토르씨앤아이대부	임양택	2013-03-13
54	A00294	멘토르대부일차(유)	임양택	2013-03-13
55	A00298	㈜바리움홀딩스대부	김충호	2013-04-11
56	A00299	디케이자산관리대부㈜	김소연	2013-04-18
57	A00301	애스앤에스파이낸셜대부㈜	이성구	2013-05-15
58	A00302	피제이자산관리대부㈜	박관수	2013-05-15
59	A00305	씨에프자산관리대부㈜	김현철	2013-06-05
60	A00306	희망1자산대부관리(유)	임창숙	2013-06-12

◎ 겸업사

NO	회원번호	회사명	대표	협회 가입일
1	A00060	㈜귀뚜라미홈시스	이종기	2009-05-14
2	A00067	㈜케이옥션	조정열	2009-05-12
3	A00076	㈜나진코퍼레이션	라이트수자, 권병수	2009-06-22

4	A00079	㈜서울옥션	이학준	2009-06-24
5	A00091	롯데쇼핑㈜	이철우	2009-08-03
6	A00094	포항수질환경대부(유)	김대근	2009-08-14
7	A00096	한국아이비엠㈜	이휘성	2009-08-26
8	A00103	㈜케이티렌탈	이희수	2009-10-06
9	A00108	㈜남정개발	이상해	2009-10-23
10	A00111	시스코시스템즈캐피탈코리아㈜	조범구, 웨인이릭수퍼	2009-10-30
11	A00115	㈜예스코	노중석, 구자명	2009-11-30
12	A00119	㈜팬택씨앤아이	박병엽	2009-12-24
13	A00139	신우에너지㈜	우국환	2010-05-31
14	A00145	선만대부통상㈜	안명숙	2010-06-28
15	A00147	㈜에이모션	고현석	2010-07-19
16	A00148	경동흥업㈜	한기성	2010-07-21
17	A00149	한흥물산㈜	한기성	2010-07-21
18	A00169	라미드에이치엠㈜	오도환	2010-11-30
19	A00204	동원산업㈜	박부인	2011-05-12
20	A00214	킨유우토우시대부㈜	김용남	2011-08-17
21	A00235	㈜동영콜드프라자대부	정성진	2012-07-31
22	A00248	㈜부일기업	정의권	2012-08-24
23	A00253	비앤씨건설대부㈜	박정숙	2012-08-31
24	A00258	㈜산호씨앤디대부	김용식	2012-08-31
25	A00266	남양유업㈜	김웅	2012-09-25
26	A00275	동원냉장㈜	정성진	2012-11-07
27	A00291	㈜케이씨피드	정한식, 김희철	2013-03-08
28	B00112	마포컨설팅공인중개사대부	서승열	2013-03-21
29	A00295	㈜유니버스	최윤희	2013-03-29

5.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 영업 현황

협회에서는 대부업계의 영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NICE신용평가정보[13]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금융 크레딧뷰로(CB) 컨소시엄[14]에 가입한 대부금융회사의 영업현황을 월별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NICE를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과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비금융기관 총 9,808개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업체는 304개사 정도가 된다. 이 중 컨소시엄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금융회사는 대략 85개사 정도가 되는데 가입과 탈회로 인하여 월별 조사대상 업체 수가 달라 업체 수를 명시하였다.

1)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 현황

2012년 12월말 기준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 현황은 〈표 80〉과 같다. 1~68번까지가 신용대출사이며, 69~85번까지가 채권추심사이다.

〈표 80〉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 현황

(2012년 12월말 기준)

번호	회원사명	번호	회원사명
1	㈜굿모닝캐피탈대부	11	㈜리드코프
2	㈜굿타이밍대부	12	㈜마샬플랜대부
3	㈜굿프렌드대부	13	㈜머니라이프대부
4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14	㈜미래크레디트대부
5	㈜다우파트너스대부	15	㈜미즈사랑대부
6	대산대부㈜	16	㈜밀리언캐쉬대부
7	㈜더조은대부	17	㈜바로크레디트대부
8	㈜동그라미대부	18	㈜베르넷크레디트대부
9	동양파이낸셜대부㈜	19	베스트캐피탈대부㈜

13) 나이스홀딩스 계열의 신용정보회사로 1985년 2월 (주)기업금융센터로 설립한 뒤, 2010년 한국신용정보(주)와 분할 합병하여 지금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주요 사업은 기업정보사업과 개인신용정보사업(CB사업), 자산관리(채권추심 등)사업 등이다.

14) 2005년 과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채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대부회사들이 대출고객 정보(대출금액, 상환상황, 개인정보 등)을 공유하여 이용 고객들에 대한 대출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출 심사 시 이용하려고 만든 컨소시엄으로 협약을 체결한 회사들은 고객 정보를 공유한다. 현재 NICE 신용평가정보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다.

10	㈜라이프캐피탈대부	20	산와대부㈜
21	㈜샤인캐피탈대부	54	㈜칸도인베스트대부
22	서브코리아대부㈜	55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유)
23	㈜스마트대부	56	㈜케이지코퍼레이션대부
24	㈜스타크레디트대부	57	㈜콜렉트대부
25	씨앤브이투자대부㈜	58	㈜태강대부
26	㈜아스리트대부	59	㈜태산대부
27	㈜아이루리아대부	60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28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	61	㈜템코파이낸스대부
29	㈜아크코리아대부	62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
30	㈜안전대부	63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31	애니원캐피탈대부㈜	64	하이캐피탈대부㈜
32	㈜액트캐쉬대부	65	㈜하트캐싱대부
33	앤알캐피탈대부㈜	66	해피크레디라인대부㈜
34	에비스대부㈜	67	대부헬로우크레디트㈜
35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	68	㈜휴앤케이파트너스대부
36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69	㈜나이스대부
37	㈜에이원대부캐피탈	70	㈜로얄캐피탈대부
38	㈜엔씨캐피탈대부	71	㈜비컴콜렉션대부
39	㈜엘하비스트대부	72	㈜서울캐싱대부
40	㈜엠에프파이넨스대부	73	㈜씨씨콜렉션대부
41	와이앤금융파트너스대부㈜	74	㈜어프로치대부
42	원캐싱대부㈜	75	에스앤케이파머스대부㈜
43	원캐피탈대부㈜	76	㈜엘씨대부
44	웰컴크레디라인대㈜	77	예스캐피탈대부㈜
45	㈜위드캐피탈대부	78	㈜오리온캐피탈대부
46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79	와이케이대부㈜
47	㈜유니크에프씨대부	80	웰릭스캐피탈대부㈜
48	㈜유아이크레디트대부	81	㈜케이아이코아즈대부
49	㈜이지캐피탈대부	82	티와이머니대부㈜
50	㈜인터머니대부	83	㈜페어컬렉션대부
51	제이파이낸셜라인대부㈜	84	㈜프라미스대부
52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	85	㈜피앤에이치글로벌대부
53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2) 대출 잔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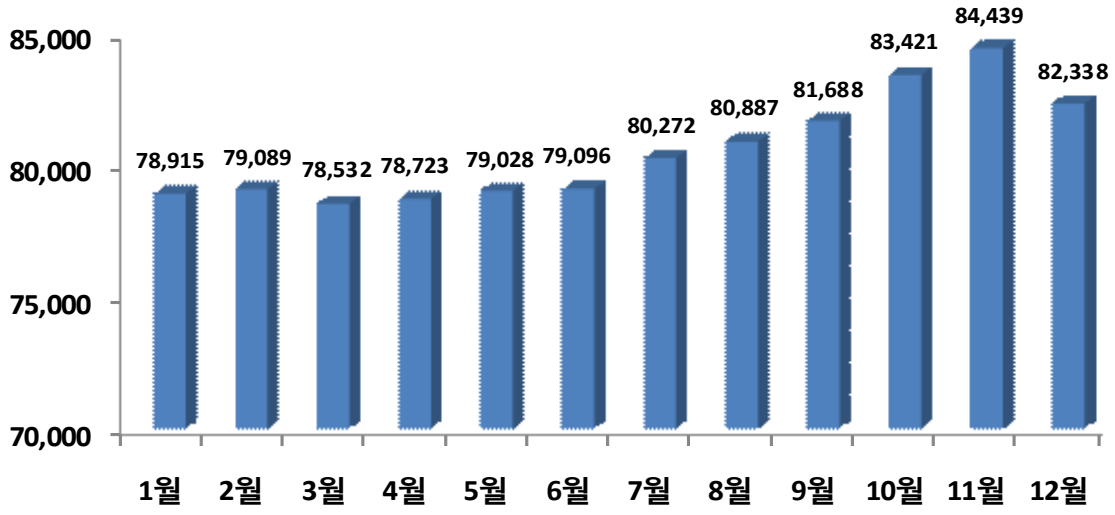
2012년도의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의 대출 잔액은 월별로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1월 대비 12월 대출 잔액의 경우 4.3%가 증가하였다.

<표 81>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의 대출 잔액 현황

(단위 : 개사, 억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대상업체수	85	85	85	86	86	85	83	83	85	85	85	85
2012년	78,915	79,089	78,532	78,723	79,028	79,096	80,272	80,887	81,688	83,421	84,439	82,338

<그림 18>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의 대출 잔액 추이



3) 신규 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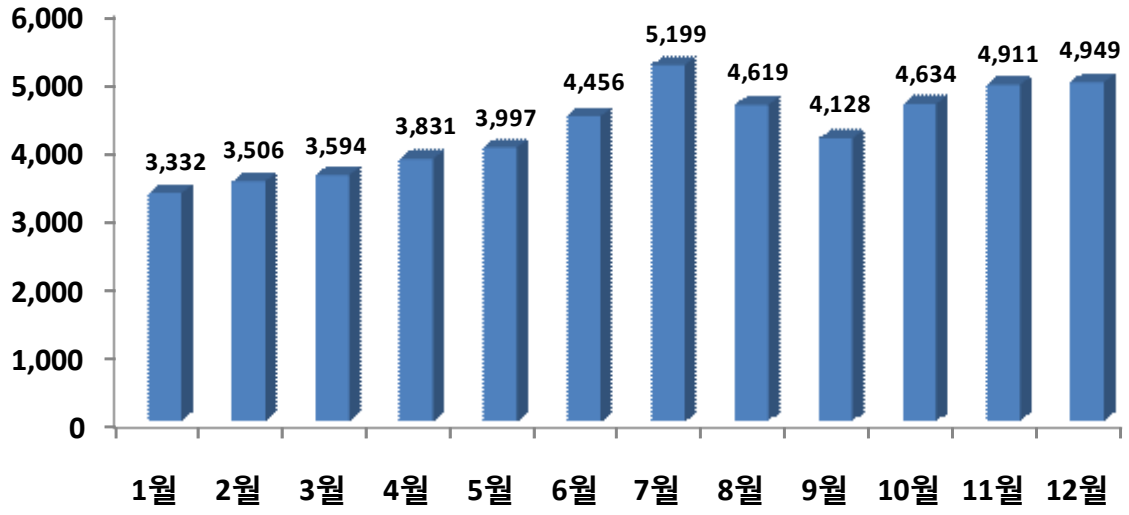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의 신규대출의 경우에는 7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8월부터 주춤하다가 다시 회복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1월 대비 12월 신규대출의 경우 48.5% 증가하였다.

〈표 82〉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의 신규대출 현황

(단위 : 개사, 억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대상 업체수	85	85	85	86	86	85	83	83	85	85	85	85
2012년	3,332	3,506	3,594	3,831	3,997	4,456	5,199	4,619	4,128	4,634	4,911	4,949

〈그림 19〉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의 신규대출 추이



4) 연체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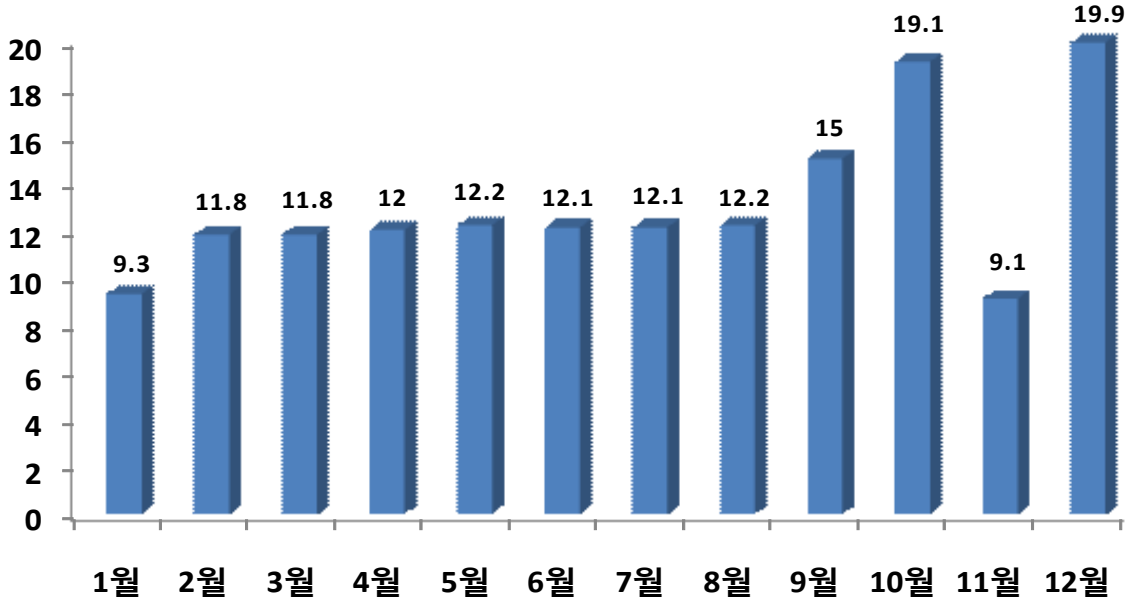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의 연체율도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10월과 12월의 경우에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몇 개 회원사가 전상정보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실제 연체율을 반영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표 83〉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의 연체율 현황

(단위 : 개,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대상 업체수	85	85	85	86	86	85	83	83	85	85	85	85
2012년	9.3	11.8	11.8	12.0	12.2	12.1	12.1	12.2	15.0	19.1	9.1	19.9

〈그림 20〉 NICE 이용 회원사의 연체율 추이



5) 신용등급별 이용자 현황

NICE에서는 신용등급별 대부업 이용자 현황을 매월 조사하고 있는데 0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책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된다. 저신용자에 해당하는 6~10등급에 해당하는 대부업 이용자의 경우 12월 기준 1,447,101명으로 전체 대부업 이용자 중 98%가 저신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4> 신용등급별 대부업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등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1	1	1	3	1	1	1	1	0	1	2	3
2	27	16	20	28	26	23	27	34	32	35	41	45
3	48	16	22	40	22	22	44	35	32	44	53	63
4	805	821	884	1,019	1,022	1,084	1,196	1,237	1,237	1,298	1,379	1,458
5	13,977	14,655	15,435	16,074	16,752	17,351	18,226	18,520	18,670	19,829	20,490	20,998
6	189,982	192,260	193,582	195,090	198,229	199,192	202,212	203,534	199,438	202,060	205,749	205,982
7	399,579	400,678	393,932	390,895	398,385	385,373	389,539	386,159	394,238	374,080	395,237	377,718
8	299,246	297,344	296,694	292,610	285,851	292,803	289,249	288,959	281,041	287,460	319,855	292,741
9	294,122	301,620	305,770	312,393	312,754	321,394	322,716	328,523	334,731	354,691	323,836	350,103
10	184,811	190,378	193,025	195,730	199,934	202,043	208,084	212,021	216,907	231,740	216,485	220,557
0	3,621	3,917	3,767	3,253	3,225	3,161	2,902	2,874	4,087	7,329	7,312	7,005
계	1,386,219	1,401,706	1,403,132	1,407,135	1,416,201	1,422,447	1,434,196	1,441,897	1,450,413	1,478,567	1,490,439	1,476,673

제3편
대부업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금융감독원에서는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2002년 3월부터 대부업 등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자금용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설문조사로 지금까지 추정만 되어 왔던 대부시장의 변화와 특징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었으며 제도 개선이나 대책 마련 시 참고가 되고 있다.

협회 창립 이후 협회는 금융감독원의 설문조사에 협조해왔는데 2010년도 하반기부터는 독자적으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세 차례 발행하여 회원사에 배포하였다.

2. 대부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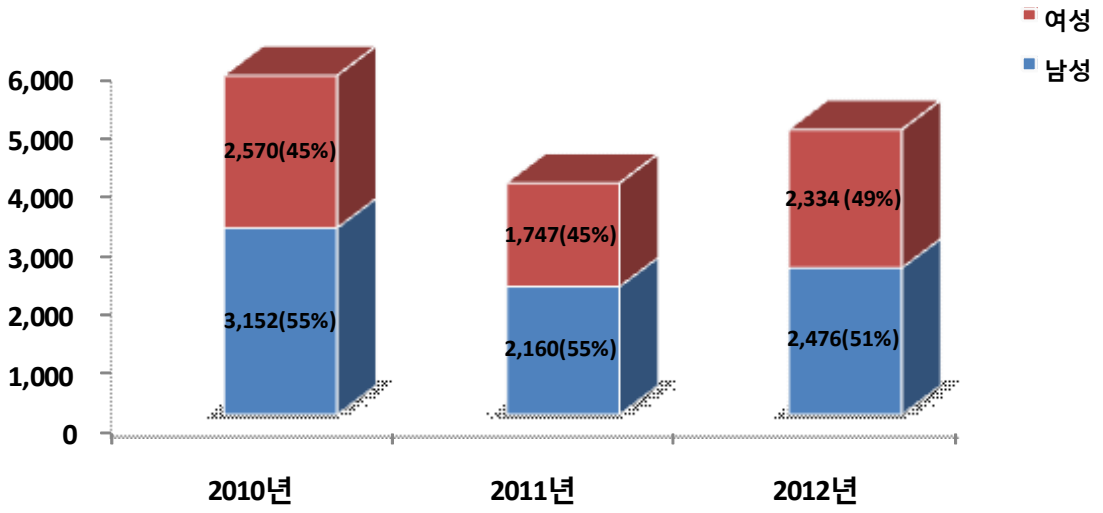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는 크게 설문에 참여한 대부업 이용자의 특성에 대한 부분과 대부업을 이용하는 실태에 대한 분석으로 나뉜다.

1) 대부업 이용자의 특성

(1) 성별 현황

대부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나 점차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의 경우 여성 비중이 29%였는데 2012년의 경우 49%까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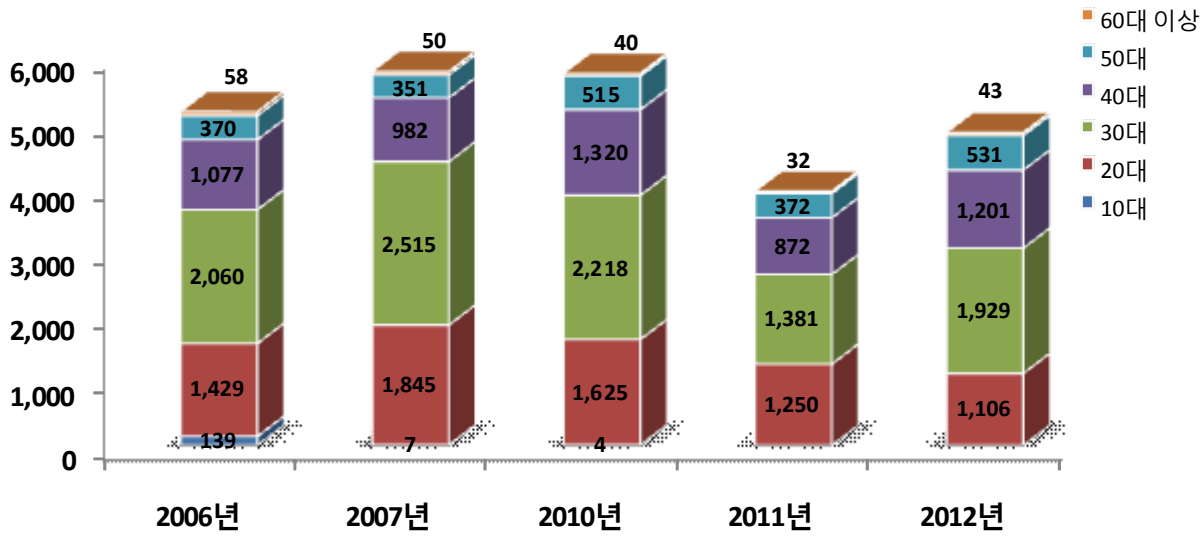
〈그림 21〉 대부업 이용자의 성별 추이



(2) 연령대별 현황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40대와 20대가 많은 편이다. 이는 이 연령대가 결혼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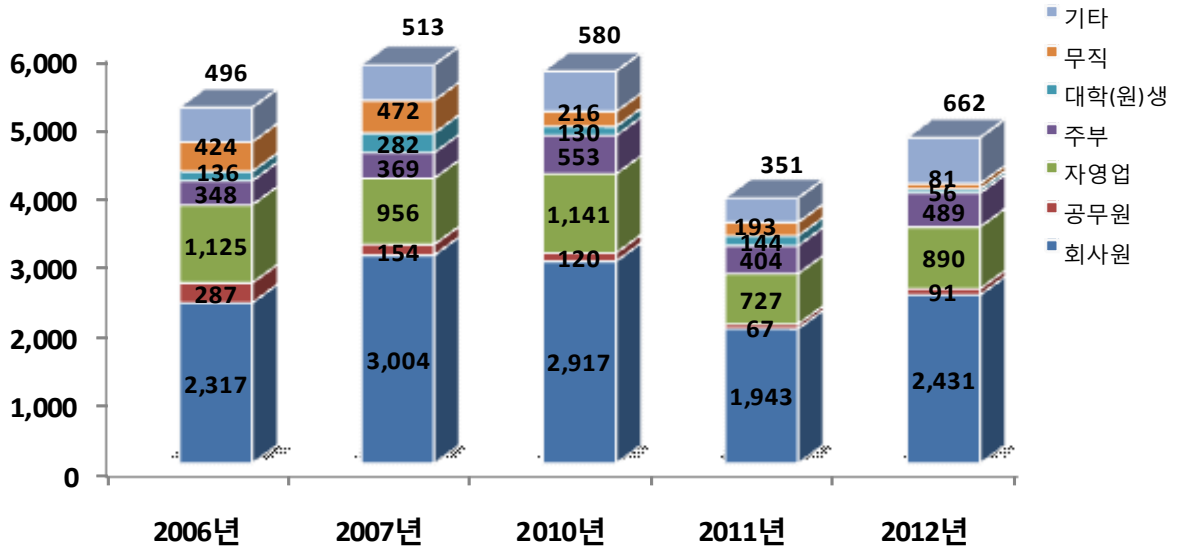
〈그림 22〉 대부업 이용자의 연령대별 추이



(3) 직업별 현황

대부업 이용자를 직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회사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영업자가 뒤를 잇고 있다. 2012년의 경우 회사원이 전체 이용자의 52%를 차지했으며, 자영업자가 19%를 차지했다.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긴급생활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부업의 경우 사용기간만큼 이자를 부담하여 단기 이용 시에는 이자 부담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 대부업 이용자의 직업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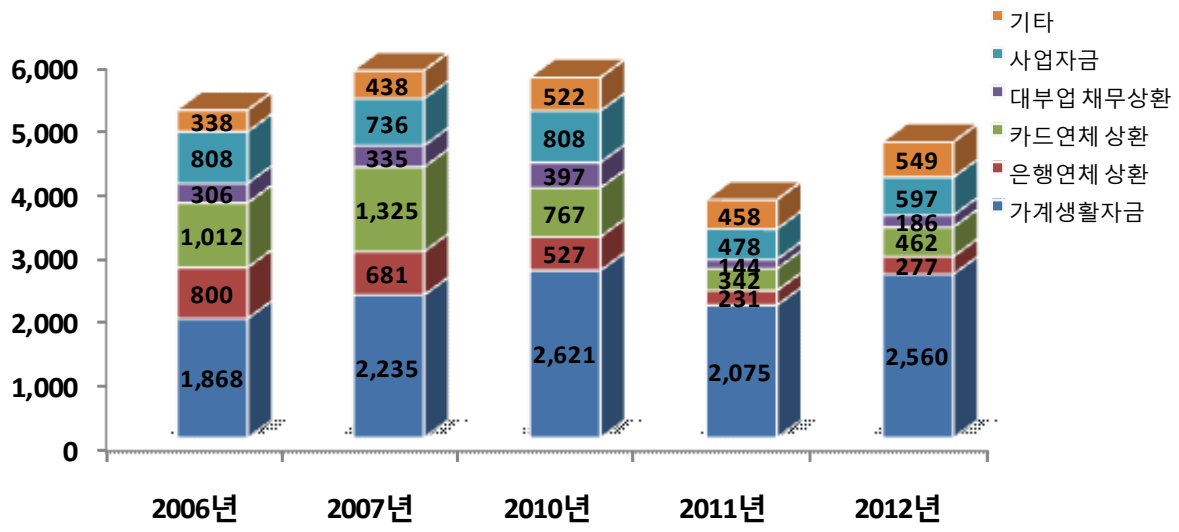


2) 대부업 이용 실태

(1) 자금용도

대부업 이용자의 자금 용도를 살펴보면 2006년의 경우 카드연체대금 상환 등과 같은 기존 대출금 상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교육비와 병원비 등 긴급한 가계생활자금이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가계생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2012년의 경우에는 전체 비중의 55%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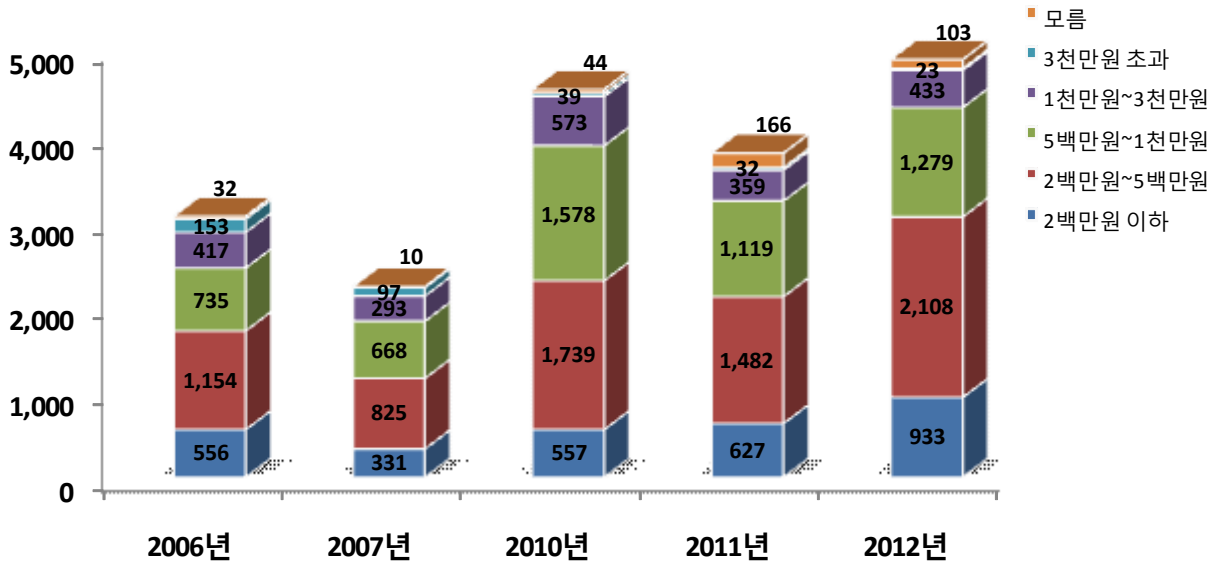
<그림 24> 대부업 이용자의 자금용도 추이



(2) 1인당 대출 금액

대부업 이용자의 1인당 대출 금액은 2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5백만원 이하의 경우 2012년도 기준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액 대출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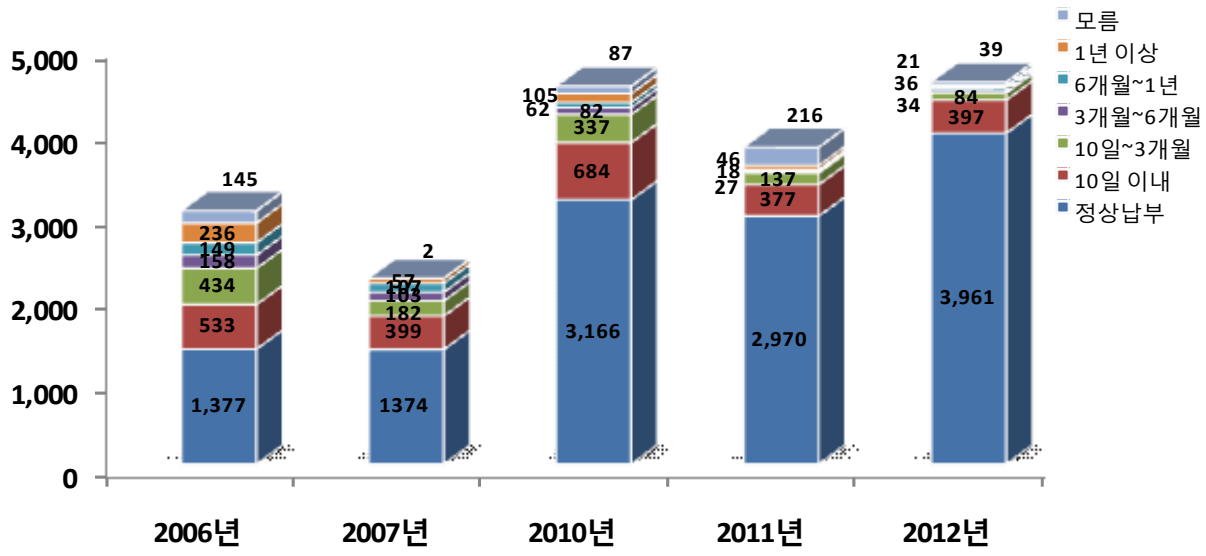
〈그림 25〉 대부업 이용자의 1인당 대출금액 추이



(3) 평균 연체 기간

대부업 이용자 중 정상 여신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연체기간 3개월 이내의 이용자는 2012년 기준 97%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본 설문조사에 응한 대부업 이용자의 경우 회원사와 정상적인 여신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이 대다수인 부분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림 26〉 대부업 이용자의 평균 연체 기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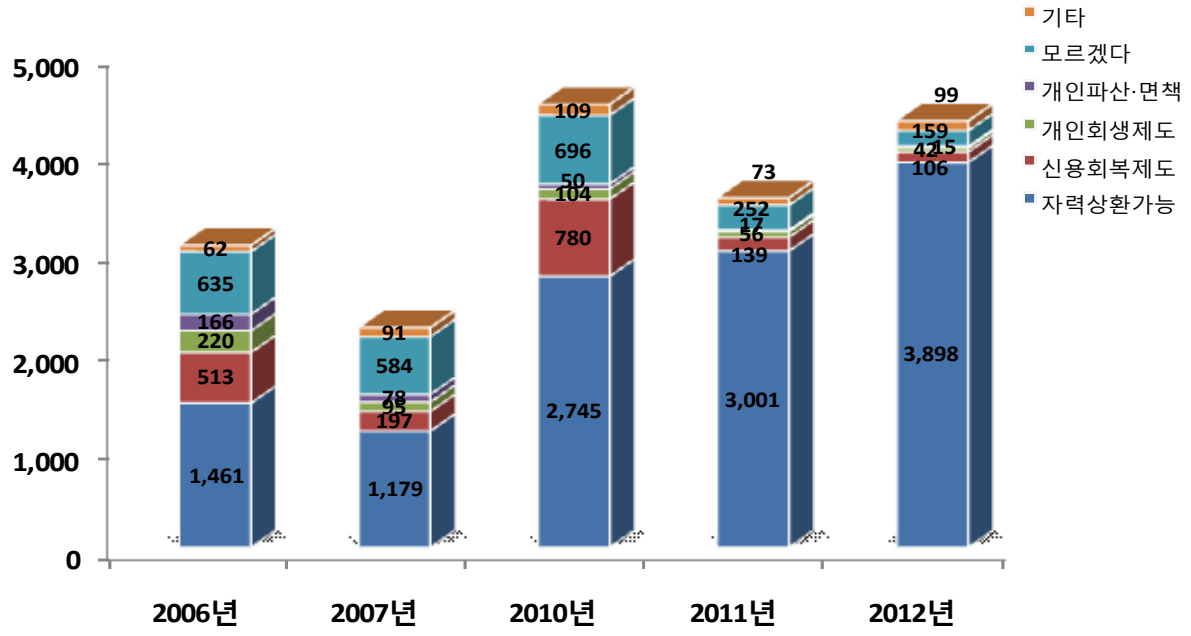


(4) 부채상환 능력

대부업 이용자 중 자력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90%에 이른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상 여신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이 설문에 참여한 경우가 많은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자력 상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신용회복제도와 개인회생제도와 같은 채무조정을 이용하거나 개인파산이나 면책과 같이 상환 불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7〉 대부업 이용자의 부채상환 능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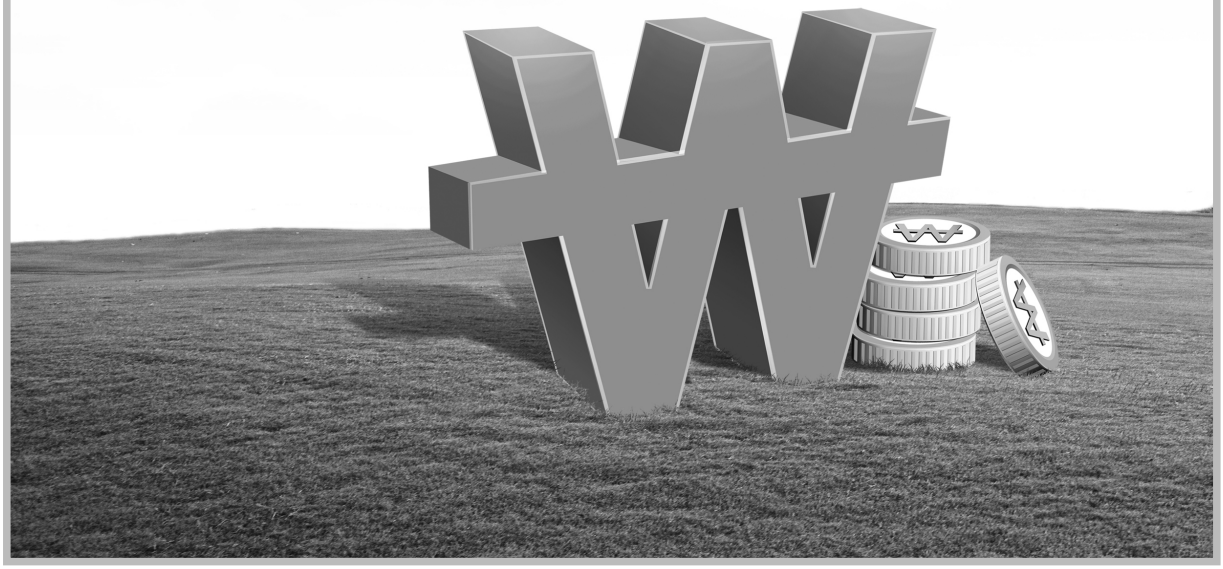


부 록
대부의 역사 및 대부업법 연혁

제1장 소비대차의 역사

제2장 대부업법의 제정 및 개정

제3장 대부업의 관리·감독체계



제1장 소비대차의 역사

1. 고대의 소비대차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소비대차 제도는 흉년이나 춘궁기에 빈민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는 환곡제도로서 그 시원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 삼국시대

신라시대에는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수확기에 곡식을 장리(長利)로 계산해 받았다. 약 9개월에 50%이니 연리로 따지면 66%의 이율에 해당한다.

'장리쌀'은 '장리벼'라고도 하는데, '장리벼'란 '장리(長利)'로 갚기로 하고 빌리는 '벼'를 말한다. 그리고 '장리'란 원칙적으로 연 5할의 이자(利子)로, 춘궁기에 양식이 떨어진 농가에서 양곡(糧穀)을 대차하여 장리 혹은 갑리(甲利 – 2배로 받는 이자)와 복리(複利)로 수확기에 이를 갚는 제도였다.

신라 백성들이 곡식을 관청에서 빌릴 때는 이자를 갚는 것이 원칙이었다. 고구려 역시 비슷한 제도가 있었으나 환곡제도와는 달리 무이자로 빌려주는 진대법이 시행되었다. 백제에도 대식제도라는 환곡제도가 있었는데 관청에서 일반인들에게 곡물을 빌려준 후 곡물을 돌려받을 때는 5할의 이자를 운영하여 받았다는 문헌이 있다.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이런 관행이 국가 대 백성뿐 아니라 일반 민간에도 존재하여 빚을 갚지 못하면 대개 채권자(債權者)의 노비(奴婢)가 되곤 하였다.

2)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경종 5년(980년) 4월에 쌀과 베(布)의 이식(利息, 이자)을 정하여 쌀 15말(斗)에 이식을 5말(斗), 베 15척(尺)에 이식을 5척(尺)으로 하는 것을 법식(法式)으로 삼은 바가 있었다. 이를 1년 이자율로 환산하면 33.3%에 해당 된다. 고려에서는 이보다 높은 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을 가했다.

1047년 문종은 자모정식(子母停息)법을 제정하였는데, 1년에 33.3%의 이자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3년에 2배를 받되 4년째는 이자를 받지 못하고 5년째에 원금의 3배까지 상한선을 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자제한법은 민간은 물론 관청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1312년 충선왕과 1318년 충숙왕이 자모정식법에 의해 이자를 제한하여 지킬 것을 어명으로 내린바있었으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충숙왕 때는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이자를 한 없이 증가시켜 가난한 자가 이자를 갚기 위해 자기 아내와 자식을 팔고도 갚지 못하는 지경이었다. 1345년 충목왕 때에는 벼슬아치들이나 권세가들이 장리(곡식을 빌려주고 50%의 이자를 받는 것)라는 명목으로 평민에게 빚을 안겨주고 문건을 마음대로 고쳐서 복리이자로서 이득을 취했으며 묵은 빚이 있다는 이유로 협박하여 노비로 만들어 부린 것을 보면 고리의 병폐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

3)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연 5할의 이자인 장리가 아니라, 100% 이자인 갑리가 사회적으로 문제였다. 게다가 화폐로 빚을 지면 장리인 경우 3배 이상, 갑리인 경우 6~7배의 곡물을 팔아야 갚을 수 있었다. 물론 이 정도의 고율(高率)의 이자는 예외적인 것이었다. 조선후기에 국가가 빌려주는 쌀, 포, 은, 돈의 이자율은 1할, 민간에서는 쌀은 5할, 은, 돈, 포는 2할로 빌려주는 것이 법에서 정한 이자율이었다. 하지만 확산된 화폐 유통으로 인해 이자 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상평통보와 같은 화폐가 유통되면서 다시 금전을 이용한 소비대차가 성행하자, 1717년 숙종은 돈이나 베는 연 2할, 곡식은 5할의 이자를 넘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렸다. 1746년(영조 22)에 편찬된 속대전에서는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20%의 이자율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이자를 본전과 같게 거두는 자를 몽둥이 100대의 중벌로 다스리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관청이나 관리들부터 지키지 않는 이 법은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고리의 소비대차는 백성들에게 많은 폐해를 끼쳐 국가가 이자율 통제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번번이 실패에 그쳐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4) 구한말

구한말인 1906년 9월에 시행된 이식규례(利息規例)와 일제강점기인 1911년에 시행된 이

식제한령(利息制限令)은 근대에 이르러 이자제한법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식규례는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는 자모정식법과 같은 제도인데 반하여, 이식제한령(현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만을 규제하는 제도로 일제강점기는 이자의 제한을 총액제한에서 이식제한으로 공포하면서 조선의 이자율을 일본보다 고율로 책정하였고 일제독점금융자본은 이자 수익을 한 없이 늘려 조선의 농촌을 지배·수탈한 바가 있다.

5) 각 시대별 금리 관련 구휼(피해구제) 제도

삼국시대 여러 보(寶) 중에 궁민(窮民)·기민(飢民)을 구제하기 위한 제위보(濟危寶)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자가 없었다. 고구려에도 진대법이라 하여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는 법을 만들어 구휼하였고 조선초기에는 자모정식법과 개화기인 구한말에는 최고 이자를 제한하여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는 법을 시행하였다. 일본이 조선을 침탈한 후 이러한 제도는 사라지고 가난한 채무자는 이자가 무한대로 증식되는 이식제한령(利息制限令:이자율만 제한하는 법으로 지금의 이자제한법과 유사)이 시행되면서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악법이 시행되게 되어 가난한자를 더욱 어렵게 했다.

2. 해방 전후

1) 사설무진 (私設無盡)

사설무진은 광복초기 1947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워지자 소규모업자의 자금수요가 급증하면서 성행하였다. 근본적인 이유는 조선저축은행의 대출이 유명무실해지고 무담보신용대출이라는 편의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저축은행의 영업활동이 저조하고 사설무진이 성행하자 국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대한상공호조협회(최초의 사금융업자 협회)를 설립하고 이들에게 대한무진금융주식회사를 창설시켰고, 본점 외 다수의 영업소를 서울시 4개구(용산구 1개소, 서대문구 1개소, 종로구 2개소, 중구 6개소)에 설치하여 운용하였다.

2) 사설계 (私設契)

사설무진이 6.25 전쟁의 발발로 사라지고 사설계가 번창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파악된 사설계의 규모는 100억환[15], 전금융기관의 예금이 166억환인 것을 보면 숫자로도 파악되듯이 당시 사설계가 상당히 번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설계의 번창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하였다. 1955년에서 56년, 전국적인 계의 파동으로 계는 위축되었으며 1973년 상호신용금고법의 제정으로 계는 상호신용금고에서만 취급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이 계를 하면 불법으로 취급되어 사실상 사설계가 몰락하게 되었다.

3) 전당포 (典當鋪)

사설무진과 사설계 등이 몰락하자 전당포가 수면으로 등장하였다. 1956년에 공영전당포가 서울지역(4개소)에 설립되었다가 금융기관이 정비되면서 공영전당포는 1958년에 폐쇄되고 사설전당포가 번창하였다.

오늘날 전당업의 법적 근거는 1961년 11월 법률로 공포한 "전당포영업법"이며 이 법은 전문 37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법의 공포로 일제시대에 시행한 "질옥취체에 관한 제령"과 동 시행규칙은 광복 16년 만에 폐지되었고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전당업을 경영하게 되었다.

1972년 12월 개정시행령에서는 종래의 화폐단위인 환을 원으로 개칭하였고 "전당포영업법"에서 전당포 영업이라 함은 "물품 유가증권 외에 민법에 규정한 질권을 취득하여 유질기간까지 당해 전당물로써 채권을 담보하고 그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할 때는 당해 전당물로써 그 변제에 충당하는 약관을 만들어 금전을 대부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전당영업을 정의하고 있다.

전당포는 서민금융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고, 60 ~ 70년대까지 명맥을 오랫동안 유지하였지만 동산담보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으나 간혹 범죄로 취득한 장물 등을 취급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1961년 11월 전당포영업법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1999년 3월에 폐지되었으며 그 후에는 누구나 신고만 하면 전당업

15) 1954년 한국은행 조사부의 비공식 추산

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9월에 대부업법 개정으로 전당업자 역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이자율 상한을 제한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영향과 신용카드의 보급으로 인해 전당물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사람의 수는 급속히 감소하였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전당영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예를 들면 명품전당포와 디지털전당포 등을 들 수 있다.

4) 암달러상

1950년대 남대문 시장에서 출발하였고 소위 북한출신 '삼팔따라지'를 중심으로 서울 회현동과 소공동, 명동에 자리를 잡고 주한미군과 연계하여 군수품 암거래를 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달러를 공급했다.

암달러상은 상인들에게 하루 1% 이자를 받고 물품대금을 대여하였고 여기서 '달러이자'라는 말이 유래했다고 한다.

3. 1970년대 이후

1) 사채동결조치

① 배경

1972년 8월 3일 정부는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관한 긴급명령" 즉 8.3 사채동결 긴급조치를 선포하였다. 이는 자본주의 자유기업경제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전무후무한 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② 내용

8.3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채를 무효화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한다는 것이고, 금융기관이 발행한 특별금융채권을 한국은행에서 인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금융기관의 이자율 등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최고 이자율 연 36.5%에서 연 20%로 인하)하였고,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해

서는 각 금융기관에 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되어 보증지원 업무를 실시하였고, 산업합리화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하였고, 사채를 제도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해 사금융양성화 3법이 제정(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되었으며, 산업합리화 및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감가상각할인율은 인상하고 법인세 및 투자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각종 세제상의 지원을 실시하였다.

③ 효과

8.3 긴급조치는 기업의 재무구조에 뚜렷한 개선을 가져왔다. 1971년에 394.2%나 되던 부채율이 1972년에는 313.2%, 1973년에는 272.7%까지 하락하였다. 긴급조치는 경공업에 종사하던 기업들이 부채압력의 난관을 이겨내고 중화학공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본 체질을 갖추게 하였고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④ 한계

관치금융인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결탁도 날로 심각해져 금융기관이 대기업에 끌려 다니면서 자원의 합리적 배분 기능을 상실하였다. 긴급조치의 실시는 기업의 체질 개선을 가져왔지만 한국 기업으로 하여금 돈을 빌리기 좋아하는 습관을 양성하게 만들었는데 대기업을 지원하고 특혜대부금을 분배하는 등 한국기업으로 하여금 기업내부의 자금적립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금 차입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때문에 8.3 긴급조치 등 관치금융은 1997년 금융위기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2) 금융실명제

① 배경 및 과정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압축 성장 과정에서 국내저축을 늘리고 자금 축적을 위해 예금주의 비밀보장과 가명 또는 무기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허용해왔다. 이는 국가의 재원조달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경제가 성장하고 금융거래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하경제의 확대, 빈부격차의 심화 등의 문제점도 발생했다.

특히 1982년에 일어난 “이철희·장영자 사건”은 비금융실명제의 폐단을 보여준 대

표적인 사례였다. 이 사건은 권력 핵심의 친인척이었던 이철희, 장영자가 기업을 돌며 어음을 받아 사채시장 등에 어음을 현금화하거나 담보로 하여 제도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몇천억원이나 되는 자금을 조성하였고, 이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해외로 도피하다 발각된 사건이다. 이는 우리나라 금융거래 사상 최대의 사기사건으로 남아있으며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이에 전두환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처방으로 1982년에 "7·3 조치"를 발표, 이 조치로 1983년 7월 1일부터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시방침은 금융자산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고 실명화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금출처에 대하여 조사하며, 실시 이후에는 가명 및 무기명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1983년 7월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종합과세제도와 자금출처조사가 삭제되고, 비실명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때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하는 시기도 1986년 이후로 연기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부동산투기와 과소비풍조 만연, 저축의 감소현상, 제2금융권의 비대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이 제도의 존재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이후 1993년 8월 12일 김영삼대통령은 대통령긴급명령을 발동, 오후 8시를 기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했다. 금융실명제는 실명거래의 의무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종합과세를 단계적으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3단계 실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효과

금융기관을 경유하는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사용을 의무화함으로 금융거래자금의 이동이나 경로가 파악되어 음성적으로 거래된 관행을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③ 한계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 금융거래 질서의 정상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변화와 개혁을 위한 초석 마련, 부정부패 및 사회부조리의 제거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도입 취지와는 달리 차명 거래가 여전하여 미완의 개혁이라 볼 수 있겠다.

3) 이자제한법 폐지

1997년 11월 21일,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린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난 이후 금융시장 환경은 급속도로 냉각되었으며 제도권금융기관은 기업 및 개인에게 소극적으로 자금을 대여, 이로 인해 자금경색에 빠진 기업들은 줄도산하였고 생계를 잃은 종업원들은 길거리로 내쫓겨 노숙자로 전락하였다. IMF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및 해외자금 투자유치라는 명목을 내세워 이자제한법 폐지를 권고하였고 이듬해인 1998년 1월 13일에 권고를 받아들여 이자제한 연 40%의 금리를 폐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이자제한 상한이 없는 고금리가 합법화되었고, 이는 결국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이자제한법 부활

① 배경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자제한법은 고금리 사채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명목아래 예정대로 2007년 6월 30일에 시행되었다.

② 내용

최고이자율은 연 30%, 최고이자율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효 및 반환청구(미반환시에는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 제기), 법 시행이전 금전계약은 시행이후 이자율 적용, 간주이자, 선이자 공제 시 원본에 충당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사항을 신설하여 사채시장으로 내몰린 서민을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2011년 10월 26일 이후부터는 최고이자율 초과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전 계약건도 이 법 시행이후에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한계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자금 공급 측면을 도외시한 채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 하에 금리의 양극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금융소외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더욱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제2장 대부업법의 제정 및 개정

1. 대부업법의 제정

1998년 1월 이자제한법이 철폐되자, 제도권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들은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며 생계 등을 유지하였지만 한계에 봉착하였다. 고금리 사금융 시장은 몇 년 사이에 급성장하며 세력을 확장, 사금융업자는 고금리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서슴지 않았지만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어 사회적 약자인 사금융 이용자를 사실상 보호하지 못하였다.

이에 2002년 5월 금융감독원에서 사금융업자와 사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 및 사금융 이용자 피해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대부업법 제정의 필요성을 각계에 전파,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2002년 7월 31일)하였다. 동년 10월 26일에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만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켰으며, 이자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고 상한이자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행위(폭력, 협박 등) 시에는 형사처벌 사항을 두어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표 85〉와 같다.

대부업법 제정 이후 국회 등은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 개정과 감독 체계 개편 등을 실시했으나 최근 지나친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영업 규제로 인해 대부업의 양성화와 시장의 자금공급기능이 외면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계가 적은 차별규제는 완화해나갈 뿐만 아니라 대부업자에 대한 지나친 영업 규제를 현실화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안전한 대부 자금을 공급하고 불법사채업자와 차별화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표 85〉 대부업법 주요 내용

항목	개정 조문	개정 내용
대부업 등록	대부업법 제3조	- 대부업 등록 의무화(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
계약서 관련	대부업법 제6조	- 계약서 교부 의무화(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에게 대부금액·이자율·변제기간·변제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 교부)
이자율 제한	대부업법 제8조	-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금전대부 시 3천만원 이내(1회 대부원금 기준)의 경우 연 66% 초과 금지
채권추심	대부업법 제10조	-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추심 시 폭행·협박 행위 금지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대부업법 제18조	-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해 시도지사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검사 및 관리·감독	대부업법 제12조, 13조	-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 가능 - 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대부업법 위반 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가능

2. 2005년 개정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태와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의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부업의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 5월 31일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는 기존 등록을 갱신토록 규정했으며, 8월 31일에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계약관계서류와 이자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을 명시화 하였다. 개정된 법령과 시행령은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정된 주요 내용은 〈표 86〉과 같다.

〈표 86〉 주요 개정 내용

항목	개정 조문	개정 내용
대부업 등록	대부업법 및 시행령 제2조	- 등록면제 규정 삭제(대부를 업으로 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등록대상)
	대부업법 제3조	- 등록 유효기간제도 도입(3년마다 갱신)
계약서 관련	시행령 제4조	- 계약관계서류 명시
	대부업법 제6조	- 대부계약서 항목에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추가 - 계약관계서류 보관 의무 추가(계약체결일부터 2년간 보관)
명의 대여	대부업법 제5조의 2	- 명의대여 등의 금지 추가
이자율 제한	대부업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 이자율 규제 적용대상 상한(1회 대부 원금액 기준 3천만원) 삭제 - 간주이자제외비용 명시
대부조건 게시	시행령 제6조	- 대부조건 게시 항목 추가(영업소의 주소, 전화번호, 대부업 등록 지방자치단체 명칭, 대부중개업자인 경우 중개업자란 사실)
광고	대부업법 제9조 제9조의 2	- 대부조건 광고 시 필수기재사항 추가 - 미등록 대부업자 광고금지
채권추심	대부업법 제10조	-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관련 전문 개정

3. 2007년 개정

대부업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4일 시행령을 개정하고 2007년 12월 21일에는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대부업법 목적 조항 중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금융이용자 보호 및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으로 변경하고, 이자율 상한을 하향조정했다. 개정된 법령과 시행령은 각각 2008년 3월 22일,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정된 주요 내용은 〈표 87〉과 같다.

〈표 87〉 주요 개정 내용

항목	개정 조문	개정 내용
이자율 제한	대부업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 이자율 연 49%로 인하
채권추심	대부업법 제10조	- 채권추심 관련 금지행위에 체포, 감금을 추가 - 채무변제를 위한 금전 차입 강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대납 강요,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금지
대부업 검사권	대부업법 제12조	- 금융감독원의 대부업자에 대한 직권검사조항 신설
	대부업법 제16조	- 시·도지사 수시로 대부업자의 영업실태 조사 의무, 결과는 매년 행정자치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 제출

4. 2009년 개정

대부중개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업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21일 대부업법을 개정, 2009년 4월 21일과 8월 5일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대부업자 등의 상호와 광고에 관한 규제 등을 신설하였다. 대부중개업 등록제 신설로 대부업법의 명칭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또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09년 2월 6일에 추심 관련 조문인 제10조가 삭제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표 88〉과 같다.

〈표 88〉 주요 개정 내용

항목	개정 조문	개정 내용
대부업 등 등록	대부업법 제1조, 제2조	- 대부중개업 등록 의무화
	대부업법 제3조의 2 시행령 제2조의4	- 등록갱신 관련 사항 신설
	대부업법 제3조의 3	- 폐업 및 등록취소 시 등록증 반납 의무
	대부업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 변경등록 예외조항 신설(경미한 사항)
교육	대부업법 제3조의 4 시행령 제2조의5	- 대부업 등 등록 및 갱신 시 교육 의무화
상호 및 광고	대부업법 제5조의2, 제9조, 제9조의3 시행령 제3조의2, 제6조의2	- 대부업자는 상호에 "대부", 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의무 사용 - 대부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규제 신설
계약 관련	대부업법 제6조의2, 제7조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3	- 중요사항 자필기재 의무화 - 5백만원 이상 대부계약 체결 시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 관련 증명서 징구
채권추심	대부업법 제9조의 4 제10조	- 미등록대부업로부터의 채권 양수·추심 금지 - 채권추심행위 금지 관련 조문 삭제
협회	대부업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1조의2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근거 마련
이자율	대부업법 제11조	- 미등록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 이자율 적용
실태조사	시행령 제7조의3	- 대부업자 등의 보고서 제출 의무
벌칙	시행령 제7조의4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신설

5. 2010년 개정

이자율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면서 2010년 1월 25일에는 대부업법이, 7월 21일에는 시행령이 개정되어 최고 이자율 상한이 연 44%로 인하되었고 연체이자율이 대부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이 고려되어 대부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등에 연체이자율을 명시하도록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표 89〉와 같다.

〈표 89〉 주요 개정 내용

항목	개정 조문	개정 내용
대부업 등 등록	대부업법 제3조, 제4조 시행령 제2조의6	- 등록 시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제출 의무화 - 고정사업장 미보유 시 등록 제한
	시행령 제3조	- 변경등록 예외조항 추가(출자총액이 5/100 이하인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지분율)
계약 관련	대부업법 제6조, 제9조 제7조의2	-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대부계약서에 기재 의무화 - 제3자 명의의 담보 제공 시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 확인 의무 - 대부계약서 및 영업소 게시 사항에 연체이자율 추가
이자율	대부업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 이자율 연 44%로 인하
고용 제한	대부업법 제9조의5	- 범죄단체 관련자 등 고용제한 사유 신설

6. 2011년 개정

2011년에는 6월 27일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최고 이자율이 연 39%로 인하되었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광고 행위와 객관적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행위 등으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 11월 30일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에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이 명시되었으며, 과잉대부 금지 관련하여 변제능력 조사 대상이 기존의 5백만원 이상에서 3백만원으로 조정되었다. 11월 30일 개정된 시행령의 경우 일부는 공포된 즉시 시행되었으며 일부는 공포되고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시행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표 90〉과 같다.

〈표 90〉 주요 개정 내용

항목	개정 조문	개정 내용
광고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3, 제11조의2	- 광고 시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 광고표시 기준 구체화 - 광고용 전화번호 이외 전화번호로 광고 금지 - 등록번호 확인 가능한 시·도의 전화번호 표시 -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 가능한 표현 사용 금지 - 협회에 대부광고 자율심의 기능 부여
계약 관련	시행령 제4조, 제4조의3	- 변제능력 조사대상을 5백만원 초과대출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에 “채무 및 보증채무 관련 증명서 발급비용과 기한” 추가
교육	시행령 제2조의5	- 교육사항에 “대부업자의 광고에 관한 방법” 추가
검사	시행령 제7조의2	- 대부거래자수 1천명 이상, 대부잔액이 50억원이상인 법인을 금감원 직권검사 범위에 추가
이자율	시행령 제5조	- 이자율 연 39%로 인하

7. 2012년 개정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고금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과도한 수준의 대부중개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11일 대부업법을 개정하였고 개정법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표 91〉과 같다.

〈표 91〉 주요 개정 내용

항목	개정 조문	개정 내용
대부업 등 등록	대부업법 제4조	- 업무총괄사용인 등록 제한 규정 적용 - 채권추심법 위반 벌금형 시 2년간 제한 - 자진 폐업 시 1년간 제한
교육	대부업법 제3조의4	- 대표자와 업무총괄사용인 변경 시 교육 이수 의무
업무총괄사용인	대부업법 제5조의3	- 전 영업소 업무총괄사용인 설치 의무
대부조건 게시 및 광고	대부업법 제9조, 제9조의3 시행령 제6조의3	- 게시사항에 대부업 등록증 원본 추가 - 광고 시 서민금융상품 오인 표현 금지
중개	대부업법 제9조의4, 제11조의2 시행령 제6조의4	- 미등록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 - 수수료 상한 마련

제3장 대부업의 관리·감독체계

1.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 현황[16)]

현재 대부업은 2002년에 제정된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 및 관리 운영되고 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대부업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경찰과 검찰이 불법채권추심이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경우 단속 조사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표 92〉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

단 계	담당 기관	내 용
대부업체 등록	시도지사 (위임한 경우 시군구청장)	▸대부업법 제3조~제5조 등 ▸"지자체 사무위임조례"에 의해 대부업 관련 업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위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시도지사 (위임한 경우 시군구청장, 일정요건에 따른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검사 실시)	▸대부업법 제12조 및 제16조
영업정지·등록취소 및 벌칙(징역·벌금·과태료) 부과	시도지사 (위임한 경우 시군구청장) 및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	▸대부업법 제13조, 제19조, 제21조 등

이러한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대부업을 총괄 관리하는

16)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광역자치단체 및 금융감독원 정보공개청구 답변자료 및 관련기관 보도 자료를 토대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 참조

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정책기관과 집행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통합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이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다. 〈표 93〉은 2012년 5월 기준 광역자치단체의 대부업 담당 인력 현황이며, 〈표 94〉의 경우에는 2008년 7월 기준 등록업체 현황과 지자체별 대부업 담당자 현황이다.

〈표 93〉 광역자치단체의 대부업 담당인력 현황

구분	담당부서명	담당 인원	現 담당자 업무기간	전담 여부	병행 업무	시군구 위임	시군구 위임일시
서울	생활경제과	1	8개월	X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단체인허가 업무	O	2010.1.1
부산	경제정책과	1	12개월	X	서민금융지원 등	O	2009.8.6
대구	경제정책과	1	12개월	X	중소기업지원 등	O	2008.8
인천	생활경제과	1	6개월	X	소비자생협 등	O	2004.3.29
광주	경제산업정책관실	1	6개월	X	대규모 점포 등	O	2006.4.15
대전	경제정책과	1	6개월	O	없음	X	X
울산	경제정책과	1	18개월	X	다단계판매업, 담배수입판매업	X	X
충북	생활경제과	1	2개월	X	물가조사 및 모니터요원 관리 등	O	2004.4.9
충남	일자리경제정책과	1	34개월	X	유통산업발전 등	O	2006.11.1
전북	민생경제과	1	12개월	X	소상공인지원	O	2005.5.13
전남	일자리창출과	1	12개월	X	중소기업육성업무지원 등	O	2005.12.12
경북	민생경제교통과	4	7개월	X	계량, 담배, 부정경쟁, 대부업 업무 등	O	2011.2.7
경남	민생경제과	2	3개월	X	예산, 결산 등	O	2004.5.13
경기	경제정책과	1	11개월	X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중소유통물류센터건립지원, 비영리 법인 일반	O	2003.11.3
강원	경제정책과	2	12~24개월	X	경제통향 등	O	2009.5.1
제주	경제정책과	1	12개월	X	국서무, 계량기, 부정경쟁행위 등	O	2006.6.21

〈표 94〉 지자체별 등록대부업체 및 담당자 현황

(단위 : 명)

지역명	등록대부업체	시도 대부업 담당자 수	1인당 담당업체 수
서울시	6,196	7	885
부산시	1,342	2	671
대구시	1,002	9	111
인천시	763	11	69
광주시	433	6	72
대전시	515	2	258
울산시	366	1	366
경기도	3,633	38	96
강원도	431	1	431
충북도	371	11	34
충남도	389	14	28
전북도	683	10	68
전남도	362	23	16
경북도	509	2	255
경남도	917	21	44
제주도	89	3	30
총계	18,001	161	112

2008년 7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8,001개인데 이를 관리 감독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담당자는 총 161명으로 1인당 평균 112개 업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 백서 (2012년도판)

발 행 처 한국대부금융협회
전　　화 02) 3487-5800
팩　　스 02) 3487-5757
홈페이지 www.clfa.or.kr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길 39
(한국 YMCA전국연맹빌딩 2층)

비즈커뮤니케이션 02)585-8321
인터디자인 02)2268-5625
파본은 바꿔드립니다.